



교육개발

2012
Summer
Vol.39 No.2

특별기획 1

의무교육의 진화와 한국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시의 쟁점
주5일 수업제 시행 중간점검 ... 성과와 과제, 향후 전망
다문화학생 교육선진화 '한국판 ESL과정' 추진, 전망과 과제

특별기획 2

제10회 한국교육개발원 - 중앙일보 교육포럼 지상중계

세계의 교육

미국 캔들리고등학교의 도서관을 활용한 교육
중국 정부, '교육공평' 위해 학교 간 격차 좁히기 '안간힘'
선진국들의 청소년 진로교육 우수사례와 시사점

초대석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의 성과와 전망

이슈와 전망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11~2020 고졸 32만 '품귀', 대졸 50만 '백수'
학력 간 고용 미스매치 심화, 원인·문제점·대책

정책과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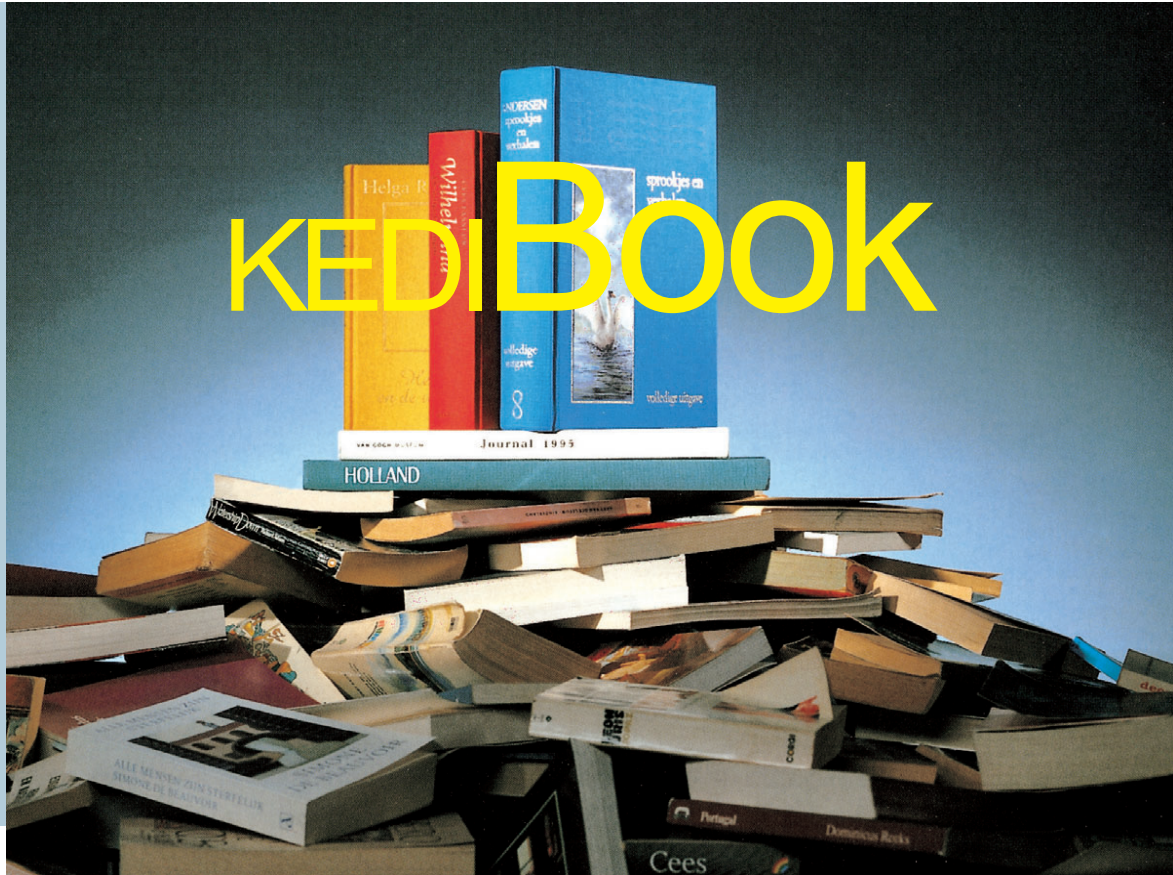
말레이시아 사례를 통해 본 외국교육기관 유치 발전전략과 과제

현장르포

공교육에서 '발도르프교육'을 꿈꾸다 : 강원 고성 공현진초등학교
즐거운 배움, 따뜻한 감성교육 펼치는 경기 양평 지평중학교
방과후 창의적 체험활동 '인 1기' 학생들 꿈 찾아주는 나침반 : 서울 현대고등학교



‘KEDI 도서회원’이라면 당신은 이미 신지식인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지난 40년 동안 국가수준의 교육목적, 방향, 비전, 정책, 전략을 연구해 온 교육정책전문연구기관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교육분야 연구성과의 폭 넓은 활용과 보급을 위하여 '87년부터 'KEDI 도서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EDI가 발간하는 최신 연구보고서를 받아보시는 순간, 귀하께서는 가장 앞서가는 교육자가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 KEDI 도서회원으로 함께 하십시오!

▣ 회원 자격 및 특전

- (1) 회원자격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 주어집니다.
- (2) 본원에서 계간으로 발간하는 『교육개발』(연 4회)과 『한국교육』(연4회)을 보내드립니다.
- (3) 기관회원 : 기본연구보고서를 우송해 드립니다.

▣ 가입방법 : 가입신청서와 함께 회비 납부

- ▣ 연 회 비 : 1계좌당 개인회원 120,000원
기관회원 200,000원

- ▣ 입금계좌 : 011916-0006202 (우체국)
070-01-0379-171 (국민은행)
예금주 : 한국교육개발원

- ▣ 문 의 처 : 정보자료팀 Tel : 02) 3460-0407



08



31



38



85



96

『교육개발』은 한국도서잡지 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본원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발행처 | 한국교육개발원

발행인 | 김태완

편집장 | 문성룡

홍보출판심의위원 | 이재분(위원장), 김미숙, 문성룡
문성빈, 박병영, 박영숙, 서영인
신철균, 유효순, 이강주, 장혜승

편집실 | 정경아, 정미영, 한지연, 김원기, 신소민

디자인, 인쇄 | 지성토탈 02-2272-8288

홈페이지 | <http://www.kedi.re.kr>

발행 | 2012년 6월 30일

계간등록번호 | 서초바 00022

등록번호 | 2011년 1월 21일

정가 | 6,500원

구독문의 | 02-3460-0319 keditor@kedi.re.kr

교육개발

2012
Summer
Vol.39 No.2

04 파워 인터뷰

손경식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13 특별기획 1

의무교육의 진화와 한국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시의 쟁점
양승실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 교육정책학자

주5일 수업제 시행 중간점검 ... 성과와 과제, 향후 전망
김상재 / 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학교팀 팀장

다문화학생 교육선진화 '한국판 ESL과정' 추진, 전망과 과제
최성유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과 과장

31 특별기획 2

[제10회 한국교육개발원 - 중앙일보 교육포럼 지상중계]

주제 :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추진상황 중간점검

이한길 / 중앙일보 기자

38 세계의 교육

미국 캔들리고등학교의 도서관을 활용한 교육

김운미 / 서울 동성고등학교 사서교사

중국 정부, '교육공평' 위해 학교 간 격차 좁히기 '안간힘'
류경숙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치담당관실 국제협력 주무관

선진국들의 청소년 진로교육 우수사례와 시사점

김병숙 / 경기대학교 대학원 직업학과 교수

64 초대석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 성과와 전망

고영중 / 교육과학기술부 APEC교육장관회의 준비기획단 부단장

70 이슈와 전망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11~2020 고졸 32만 '품귀', 대졸 50만 '백수'

학력 간 고용 미스매치 심화, 원인 · 문제점 · 대책

이대창 / 한국고용정보원 연구본부 본부장

76 정책과 현장

말레이시아 사례를 통해 본 외국교육기관 유치 발전전략과 과제

홍영란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82 현장르포

공교육에서 '발도르프교육'을 꿈꾸다 : 강원 고성 공현진초등학교

김용근 / 공현진초등학교 교감

즐거운 배움, 따뜻한 감성교육 펼치는 경기 양평 지평중학교

허행윤 / 경기일보 기자

방과후 창의적 체험활동 '1인 1기' 학생들 꿈 찾아주는 나침반

: 서울 현대고등학교

전민희 / 중앙일보 기자

손경식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대담 _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POWER INTERVIEW

손경식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창의력이 경쟁력의 원천…
창의력 · 문제해결력 높이는 교육해야”

“기업환경 개선, 국민생활 편의 제고, 일자리 창출에 중점 둘 것”

“**교육과** 국가경쟁력은 상관관계가 큼니다. 창의력이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창의력이 높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야 합니다. 실업교육과 기업의 현장과는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야 합니다. 대학도 기업의 수요를 인식하고 기업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지만 마이스터고나 특성화 고등학교도 기업과 협력해야 합니다.”

손경식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향후 정책추진 방향 중 교육분야의 개혁과제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 손경식 위원장은 이와 함께 “기업을 활력 있게 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생활의 편의를 제고하는 일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일 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에도 힘 쓸 것”이라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또 “우리 교육이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문제해결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말하고, “교육의 수요자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원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이 지난 5월 29일(화)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접견실에서 손경식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그 동안의 소회와 포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성과와 향후계획, 현안 및 이슈에 관한 대안, 우리나라 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KEDI에 대한 당부 등을 들어봤다.



“국경위는 그동안 인력개발 및 교육 경쟁력 강화와 관련 여러가지 일들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방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교육개혁과 관련, 앞으로 추진할 정책이나 제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완 원장 CJ그룹 회장직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면서 지난해 8월부터는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이하 '국경위' 라 칭함) 위원장도 함께 맡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소회랄까, 지난 시간을 회고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손경식 위원장 사실, 저와 국경위는 위원장 취임 이전부터 인연이 깊었습니다. 국경위의 업무는 상공회의소의 업무와 서로 연관된 일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국경위 설립 초기부터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어 국경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경위 활동이 낯선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위원장으로 취임하고 나니 이전과는 또 다른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지더군요. 특히, 대통령께서 장관 출신인 사공일, 강만수 두 전임 위원장님들과는 달리 경영인 출신인 저를 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잘 반영해 달라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실제로 그분들이 겪는 어려움을 경청하고, 이를 대통령과 관련 기관에 전달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온 것도 그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김태완 원장 '경제살리기'라는 국민적 염원과 함께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경위가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경위는 어떤 곳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요.

손경식 위원장 국경위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국가경쟁력'이라면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과제도 범위를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국경위는 그 중에서도 규제개혁, 신성장동력 발굴,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문제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해왔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하거나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전략산업의 경쟁력 개발, 법질서의 선진화와 각종 사회적 인프라 보강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에 관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위원회는 정계, 재계, 학계, 언론계, 노동계, 소비자 대표와 연구기관장 등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각계 각층의 지도급 인사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 부처와의 연결고리로서 기획재정부장관,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이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간위원들은 규제개혁, 산업경쟁력, 법제도 등의 분과로 나뉘어 정기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김태완 원장 2008년 2월 국경위 출범 이후 이룬 주요 성과와 역할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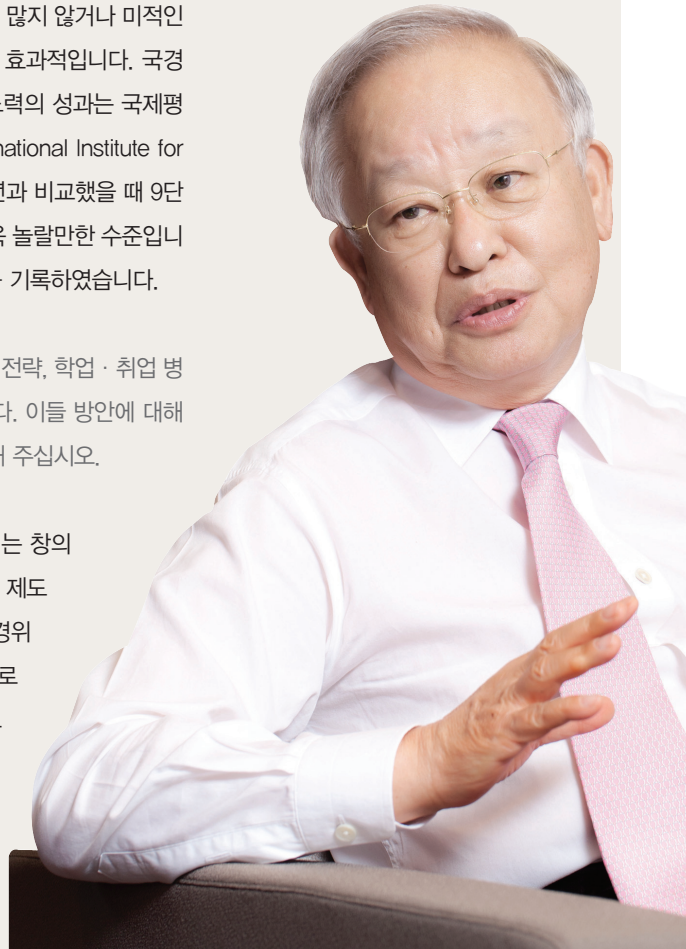
손경식 위원장 국경위 출범 이후 지금까지 28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76개의 안건을 대통령께 보고하였습니다. 최근에는 IT를 이용한 '지능형교통체계 선진화방안'과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국민생활과 산업의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보고하는 등 대통령 직속 위원회 중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경위는 그동안 많은 일을 했습니다. 실제로 구체적인 숫자로 나타난 성과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국민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대표적인 성과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최장 4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08년~'11년의 신규산업단지 공급이 그 이전의 4년에 비해 18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종업원의 잘못에 대해 업주까지 처벌하는 과도한 양벌규정을 합리화하고 중복된 행정형벌과 과태료 부담을 완화했는데, 이는 기업 하는 분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구체적인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원칙허용·예외금지 인허가 방식을 도입한 것이나 규제 일몰제를 확대하는 등 규제시스템 전반을 혁신한 것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업환경 개선 외에도 국민생활을 편하게 하는 제도개혁과제도 여러 추진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당초 1천여종에서 3천여종으로 확대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만 있으면 원하는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창업에 필요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 했습니다. 인감증명 제출을 요구하는 사무도 대폭 줄였습니다. 또한, 우측보행, 직진우선신호 등을 도입하여 보행과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여행을 하다보면 회전교차로를 많이 볼 수 있는데, 교통량이 많지 않거나 미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관광지에는 사거리 신호등 대신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국경위는 이러한 회전교차로 설치의 확대를 적극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국경위의 이러한 노력의 성과는 국제평가기관의 평가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인 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11년에 22위로 평가했는데, '08년과 비교했을 때 9단계나 상승한 것입니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지수(Doing Business Index)의 상승은 더욱 놀랄만한 수준입니다. '08년에 23위를 기록했던 우리나라가 '11년에는 무려 15단계나 경중 뛰어오른 8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김태완 원장 국경위는 그동안 인력개발 및 교육 경쟁력 강화와 관련, 지식재산강국 실현 전략, 학업·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 스마트 캠퍼스 구축 마련 등의 일들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방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교육개혁과 관련, 앞으로 추진할 정책이나 제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손경식 위원장 우선 지식재산강국 실현전략은 우리 경제가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창의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 보호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업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방안은 '11년 1월에 국경위에서 보고한 것으로서, 마이스터고 취업계약 입학제도 도입, 사내대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함에 있어 실업고등학교 교육의 역할을 강화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불고 있는 고졸취업문화 확산에 대한 단초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09년 16.7%에서 '12년 42.3%로 25%p 이상 상승하는 등 국경위의 대책 발표 이후 고졸채용시장에서 큰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긍정적인 것은 기업과 일반인들의 고졸취업자에 대한 인



“교육과 국가경쟁력은 상관관계가 큼니다. 창의력이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창의력이 높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야 합니다. 실업교육과 기업의 현장과는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야 합니다. 대학도 기업의 수요를 인식하고 기업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지만 마이스터고나 특성화 고등학교도 기업과 협력해야 합니다. 마이스터고의 취업계약 입학제도가나 취업인턴제도는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의 약점과 강점을 꼽는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아울러 약점을 개선하고 강점을 살리기 위해 어떤 제도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발표한 스마트캠퍼스 구축방안은 스마트폰과 모바일기기를 활용하는 캠퍼스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앞으로 고졸취업자가 대학에 진학하고자 할 때,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학위를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육과 국가경쟁력은 상관관계가 큼니다. 창의력이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창의력이 높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야 합니다. 실업교육과 기업의 현장과는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야 합니다. 대학도 기업의 수요를 인식하고 기업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지만 마이스터고나 특성화 고등학교도 기업과 협력해야 합니다. 마이스터고의 취업계약 입학제도와 취업인턴제도는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태완 원장 국경위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종 불필요한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경제 전반의 효율성 제고, 선진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사회적 자본 축적 등의 과제를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과 국경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안이랄까 이슈, 과제는 무엇이며, 앞으로 중점 연구, 추진, 제시할 테마나 어젠다, 플랜은 무엇입니까.

손경식 위원장 국경위는 지난 4년여간 추진해 온 과제가 현장에 잘 정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부족한 것은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실행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과제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기업을 활력 있게 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기업환경 개선과 국민생활 편의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을 추진해 갈 것입니다. 먼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규제의 해소에 노력하고 각종 표준, 인증과 관련된 제도를 선진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업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산업,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 민원처리 등 국민의 실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구체적인 사안들을 발굴하여 해소하고자 합니다. 회전교차로 확대 등 교통체계 선진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김태완 원장 위원장께서는 특히 최근 일자리 창출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위원장께서 가지고 계신 나름의 복안이랄까 해법, 대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손경식 위원장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부문을 육성해야 합니다. 앞으로 관광, 의료, 교육 등 해외의 수요를 우리에게 돌릴 수 있는 부문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쟁력을 높이고 FTA를 활용하면서 수출활동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국내기업의 지원과 함께 외국인 투자유치에 보다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유치는 경쟁국들에 비해 저조한 편입니다. 일자리 창출도 결국 국가경쟁력이 높으면 더 늘어날 것입니다. 긴 안목으로 본다면 경쟁력 강화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것입니다.

김태완 원장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의 약점과 강점을 꼽는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아울러 약점을 개선하고 강점을 살리기 위해 어떤 제도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손경식 위원장 현재 각국의 경쟁력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는 기관은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세계경제포럼(WEF) 등이 있으며 세계은행(World Bank)은 기업환경 분야에 초점을 맞춘 국가경쟁력 관련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의 경쟁력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나라는 교통·통신, 기술과 과학 등 인프라, 거시경제 운용 및 기업혁신 등에서 비교적 강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노사관계, 정부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일관성·효율성, 금융시장 성숙도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약점으로 지적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범정부차원에서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경위는 이러한 개선노력의 중심에 서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경쟁력의 큰 약점이라고 보는 항목들은 정치, 사회, 문화와 관련된 것도 많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직접 관여하는데 한계가 있는 부문이지요. 정치, 언론, 노동, 교육 등 사회 각 부문의 협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강점으로 지적되는 부문은 더욱 확고히 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경쟁국가들도 전진하고 있고 우리의 여러 환경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강점이라 하더라도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강점은 투자, 수출 등 여러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교통·통신, 기술과 과학 등 인프라, 거시경제 운용 및 기업혁신 등에서 비교적 강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노사관계, 정부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일관성·효율성, 금융시장 성숙도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강점으로 지적되는 부문은 더욱 확고히 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경쟁국가들도 전진하고 있고 우리의 여러 환경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강점이라 하더라도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김태완 회장 위원장께서 기업인 출신이기 때문에 업계에선 기업인 시각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일 정책 수립과 규제완화가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른 한편에선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공생발전을 화두로 던지며 대기업에 동반성장과 사회공헌을 촉구한 바 있어 기업인 출신인 위원장님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같은 기대와 역할에 대해 어떤 구상이랄까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손경식 위원장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고쳐 나가고, 육성이 필요한 부문은 방안을 제시하며 해당 행정부처의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 수렴하여 이를 해소하는 노력에 역점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경위는 각 경제단체와 주요 회원들, 업종별 단체, 그리고 각 지역 기업인들과 만남의 기회를 계속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락된 기업의 애로사항을 검토하여 해당 정부부처와 해결방

“최근 기업들의 교육기부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방학 기간 중 전국에서 진행된 교육기부 프로그램에 37개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1만3천여명이 수혜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장께서는 기업들의 교육기부에 대해 평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안을 찾고 있습니다. 창립 이후 지금까지 약 1,800여건의 개선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규제의 개혁을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 더 나아가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까지 개정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한편 유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중앙정부의 각 부처는 긍정적인 시각에서 매우 협조적인 자세로 임해 주고 있습니다.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은 우리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날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서로가 다 강해야 세계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대·중소기업간에 이익의 분배가 아니라 파트너로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김태완 회장 최근 기업들의 교육기부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방학 기간 중 전국에서 진행된 교육기부 프로그램에 37개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1만3천여명이 수혜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장께서는 기업들의 교육기부에 대해 평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서, 국경위 위원장으로서 기업들의 교육기부에 대해 어떤 어젠다나 플랜을 가지고 계십니까.

손경식 위원장 앞으로 기업들은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 학습,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교육기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기업이 우리 청소년들의 교육에 동참·협력해 나가려는 노력은 참으로 바람직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전부터 장학금 지원 등 기업의 기부활동이 이루어져 왔지만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으로써,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기업에 대한 이해와 호감을 높일 것입니다. 다만, 교육기부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가 되지 않고 일관성 있게 꾸준히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은 물론 사회 전반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태완 회장 우여곡절 끝에 지난 3월 14일 한·미 FTA가 발효되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FTA민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한·미 FTA 협정이 발효된 것에 대해 남 다른 감회와 바람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손경식 위원장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인 미국시장으로 일본, 중국, EU 등 경쟁국보다 먼저 유리한 조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미국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소폭의 관세감축만으로도 우리 기업에게는 큰 수출확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FTA로 가격경쟁력이 높아집니다. 특히, 한미 FTA는 무엇보다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에게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관세율이 높은 자동차부품, 섬유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들의 직접적인 대미 수출증가와 대기업 납품을 통한 간접수출 증대효과도 기대됩니다. 다만, FTA에 따른 수출시장 확대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FTA지역지원센터 등을 통해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상공회의소에서도 원산지 증명을 비롯한 지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과제는 우리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업들은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 학습,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교육 기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기업이 우리 청소년들의 교육에 동참·협력해 나가려는 노력은 참으로 바람직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전부터 장학금 지원 등 기업의 기부활동이 이루어져 왔지만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므로써,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기업에 대한 이해와 호감을 높일 것입니다.”

김태완 원장 최근 한국과 중국이 FTA 협상 개시를 공식선언하였으며 지난 14일에는 1차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한·중 FTA 협정과 관련, 일각에서는 민감부문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다른 한편에선 세계 2위 경제대국과의 교역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교차하는 분위기입니다. 생각과 입장, 제언을 말씀해 주십시오.

손경식 위원장 우리나라는 지난 5월 초, 제2의 경제대국이면서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과의 FTA 협상개시를 선언하였습니다. 향후 중국과 FTA를 체결한다면 이미 체결한 한·미, 한·EU FTA에 버금가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한국은 칠레와 함께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가 되며, FTA경제영토는 전세계 GDP의 약 70%로 확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EU 국가 등의 대중국 진출을 위한, 그리고 중국의 미국, EU 진출을 위한 투자 확대 등 FTA허브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제조업은 전반적으로 대중국 교역 확대, 중국 내 투자환경 개선 등으로 교역과 투자에 긍정적 효과가 예상됩니다. 다만, 농수산업과 일부 중소기업 등 취약분야의 경우 피해가 우려되나, 협상과정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중 FTA는 다른 FTA와 같이 쌍방이 WIN-WIN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김태완 원장 앞으로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가기 위해 국경위에서는 경제성장과 사회적 자본 이외에 또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고 계신지요.



손경식 위원장 국경위는 우리 경제가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유대나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보고, 법과 질서의 확립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데 노력하여 왔습니다. 유·무형의 자본을 축적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것만으로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진국은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비교하여 일컬을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소양이 좀더 향상되어야 하겠고 문화도 좀 더 수준이 높아져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국민교육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태완 원장 위원장께서는 “우리나라 교육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신지요.

손경식 위원장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문제해결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교육의 수요자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원하는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경제, 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내용이 교육되어야 합니다.

김태완 원장 평소 가지고 계신 교육관, 교육철학은 무엇입니까.

손경식 위원장 훌륭한 인성을 심어주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교양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창의력이나 문제해결능력이나 기본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김태완 원장 한국교육개발원이나 교육계에 대해 위원장께서 가지고 계신 바람이나 기대, 제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손경식 위원장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 즉 글로벌 창의인재 육성, 인성교육 등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제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도 양보다는 질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의 우수대학과도 경쟁해야 합니다. 초등교육에 있어서는 능력있는 학부모와의 협력체제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초고속인터넷, 스마트폰 확대 및 클라우드 서비스에 맞춰 스마트 캠퍼스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

손경식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PROFILE

1939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클라호마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전공, 경영학석사학위(MBA)를 취득했다. 이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최고경영자과정 수료했다. 한일은행에서 행원('61)으로 출발해, 삼성전자공업주식회사('68)를 거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 전무('74)·사장('77)·부회장('91)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CJ그룹 회장('95~), 대한.서울상공회의소 회장('05~), 한중민간경제협의회 회장('05~), 세계발전심의회 위원장('05~),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05~), 지속가능경영원 이사장('05~), 환경보전협회 회장('06~),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06~), 한국경영교육인증원 이사장('06~), 통일고문회의 고문('06~), 코리아외국인학교재단 이사장('06~), FTA민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06~),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위원회 위원('06~),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07~), 지식서비스산업협의회 회장('07~), 서울대발전기금 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07~), 등을 맡고 있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11~)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기분야

I

SPECIAL REPORT

1. 의무교육의 진화와 한국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시의 쟁점
2. 주5일 수업제 시행 중간점검 ... 성과와 과제, 향후 전망
3. 다문화학생 교육선진화 '한국판 ESL과정' 추진, 전망과 과제



SPECIAL
REPORT

의무교육의 진화와 한국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시의 쟁점

글

• 양승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 교육정책학자



최근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의무교육의 연한을 9년에서 12년으로 늘려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1985년 2월 도서벽지 중학교부터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하여 2004년 전국적으로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이 실현된 이후 주로 복지적 측면에서 간헐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근래 들어서는 무상급식, 영유아 무상보육 및 취학전 교육의 무상화 등 정치적 선택이 필요한 쟁점과 더불어 의무교육이 무상교육 등 차원이 같지 않은 용어와 개념 구분 없이 혼동하여 언급되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의무교육과 때때로 혼용되는 무상교육, 공교육, 보통교육 등의 개념을 분명히 짚고, 의무교육의 개념, 원리, 목표에 대해서도 시민사회가 어느 정도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전제로 할 때 고등학교 의무교육제도의 도입여부에 대한 담론을 순조롭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의무교육이라 함은 법률로 강제하는 교육으로 의무강제성의 원리(학교설치, 취학지원 의무, 취학 의무, 학령기 아동의 고용금지 의무 등), 무상성의 원리(교육 받는 사람의 권리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장), 중립성의 원리(교육활동에서의 편향성 제거), 보편성의 원리(교육과정내용의 공통·기초교육의 성격)를 내포한다. 무상교육은 의무교육을 전제로 또는 교육복지 차원에서 취학에 필요한 경비를 교육수요자에게 지원하는 교육이다. 의무교육은 무상을 전제로 하나 무상교육이라고 반드시 의무교육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한편 공교육은 공공기관이 세금 등 공적자원으로 운영하는 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교육과 대비되는 개념이며, 보통교육은 사회·경제적 계층, 성, 인종 등의 차별을 받지 않고 모든 학령기 아동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을 의미한다.

따라서 원래 의무교육은 국민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질서 유지 및 사회통합을 취지로 법률로 정한 일정 연령 또는 기간에 해당되는 모든 학생들이 국가가 인정한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필수교육으로서 이를 어기는 경우 제재가 따르는 강제성을 가진다.

I. 의무교육의 진화 : 취학의무형에서 교육의무형으로

그런데 급변하는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교육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교육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으로 작동함과 아울러 교육에 대한 요구와 필요가 다원화되면서 OECD 국가를 중심으로 가능한 한 국민이 일정 시기에 교육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막고자 느슨한 의미의 의무교육으로 진화하고 있다. 동시에 특히 의무교육 연한을 늘려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학교 중도탈락을 줄임으로써 장기적으로 국가나 개인모두에게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자 힘쓰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여타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고등학교 졸업율과 줄어들지 않는 중도탈락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각 주별로 점차 의무교육의 연한을 늘려 왔다. 1990년대 후반에 의무출석 연한을 18세로 연장한 캔사스주와 텍사스주의 경우 의무출석 연한 증가와 중도탈락률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율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미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여전히 의무출석의 연한 증가는 중도탈락을 줄이는 중요한 정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의무교육은 제도교육의 발생과 함께 생긴 것이 아니라 국민의 교육을 공적 자금으로 충당하는 무상 공교육이 먼저 실시되고 나서 19세기 중반 '의무출석법'을 제정하기 시작하면서 도입되기 시작했다. 의무출석법은 1852년 메사추세츠주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이래



1918년까지 하와이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발효되었다. 현재 미국의 모든 주는 유치원교육(K)부터 12학년까지 13년의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의무교육기간은 주에 따라 10~1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취학 전 유치원교육(K)이 의무인 주가 9개이고, 20개의 주는 만 18세(혹은 12학년)까지 의무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에 대한 과대한 국가의 개입을 우려하는 논의와 함께 전통적으로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고유권한을 중시해온 전통에 따라 의무출석법은 그 범위가 사립학교와 종교학교뿐 아니라 홈스쿨링까지 인정하게 되었으며, 법적인 논쟁과 재판 등을 통하여 의무출석법의 예외조항이나 홈스쿨의 정의도 보다 명확해지고 있다. 한마디로 어떻게 하든 고등학교를 졸업할 18세가 되기 전에 어떠한 형태의 교육으로부터도 멀어지는 탈락자들을 막아보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탈락자의 대부분이 소수인종과 저소득층이라는 통계는 미국 공교육의 구조적인 불평등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의 의무교육강화정책이 소외계층의 취학 전 취학준비교육과 학습부진아를 위한 방과후프로그램의 강화와 더불어 의무출석 연한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초와 방법이 과연 효과적인가에 대한 정책적인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원래 취학 의무형은 연소자를 장시간 노동에서 보호할 목적에서 유래한 것이지만, 의무교육의 참뜻을 염두에 두면 교육 의무형이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인접국인 일본에서도 1992년 학생이 학교 밖의 공적기관이나 민간시설에서

1. 의무교육의 진화와 한국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시의 쟁점



상담지도를 받는 경우 생활기록부 상에서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학교에 하루도 출석하지 않고도 졸업증서가 나올 수 있게 되는 등, 최근에는 취학 의무가 더 유연하게 적용되고, 사실상 교육 의무형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I. 한국 의무교육의 실태와 고등학교로의 확대

현재 우리나라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9년을 의무교육기간으로 정하고,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 교과서 무상공급,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비용,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2년 올해부터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을 OECD 국가 중 최초로 만3세 유치원과정부터 전면 실시하며, 의무교육 기간은 고등학교까지 15년간 적용하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는 실업계 특성화고교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현재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적용받는 학생수가 고교 재학생의 절반에 다다르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의무교육은 양적으로 급속히 성장해 왔으나, 질적인 측면에서 교육수요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교육 만족도가 낮은 실정이다. 특히 한국은 다원적

지식정보사회에서 기대수준이 높고 급격히 다양해지는 교육수요자의 요구와 필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교육 및 사회정책환경의 변화로 유발된 새로운 교육소의 계층(학교부적응 자발·비자발적 이탈자, 다문화가정, 탈북 청소년 등)을 포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안고 있는 9년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12년으로 확대 실시할지의 여부를 판단하고자 할 때 참조해야 할 준거와 긍·부정적인 요소를 면밀히 분석·고려해야 할 것이다.

1. 교육재정의 확충과 의무교육 여건 관련 이슈

일차적으로는 고등학교 의무교육에 따르는 학생수용시설과 교원 확충, 소요 재원의 국가부담여력 등 제반 기본요건의 점검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일부 지방교육자치단체에서는 현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률이 99%로 거의 완전진학인 상황이고, 고교 취학 해당 연령의 고교 재학율도 92.5%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며, 이미 저소득층과 특성화고교 학생 등에 대한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므로 그리 큰 부담은 아니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의 순차적 확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이 도서벽지 지역부터 순



차적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도시 빈민층 학생들이 배제되어 교육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논의도 있으므로 고등학교 무상 의무교육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행될 수 있는지, 동시에 실행이 여의치 않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더불어 무상급식이 교육계 내분으로 번지기도 하였고, 세계적으로 무상의 범위는 국가의 전통과 문화 등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르므로 우리 교육수요자의 필요와 요구를 가장 잘 반영하면서 교육재정의 효과성, 효능성, 효율성의 3박자가 조화를 이룰 접점을 찾아 무상의 내용과 범위 및 그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의 교육재정 관련 쟁점은 고등학교 해당 연령 학생들의 노동에 관한 것이다. 의무교육의 확대로 현재 9년 의무교육의 지원 수준과 마찬가지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등을 무상으로 지원받는다면 생계유지나 기타 여러 사유로 시간제 근로 등이 필요한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하는 제도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고등학교의 다양화와 생활지도 관련 이슈

다음으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고등학교 의무교육의 목표를 정립하고 이에 따른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하는 것이다. 20여 년 동안 우리 교육개혁의 기초가 되어온 교육의 자율화, 다양화와 보편적인 보통교육을 기저로 하는 고등학교 의무교육 과정간의 조율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적극 추진해온 고등학교 다양화정책으로 학교유형별로 차별화된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과 이에 따른 학생 일인당 교육비의 차등을 어떤 논리와 비전으로 교육정책이해 관련 당사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것인가는 고교 의무교육제도의 효과성과 효능성을 좌우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의무교육 본연의 의의를 살려 공정성과 보편성이라는 핵심가치를 잃지 않으면서, 학습자의 적성과 재능을 살릴 수 있



는 방향으로 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 및 그 운영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고등학교가 본연의 설립 취지와 달리 상급학교 진학시험위주, 경쟁위주의 운영으로 인해 학교부적응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상은 학생이 학교에 부적응할 뿐 아니라 학교가 다양한 학생들에게 부적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학교교육 중심으로 진로개척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이루어야 한다. 고등학교의 의무교육화는 국가나 지방교육자치단체가 고등학교 학생들의 삶과 삶까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 학생들의 생활지도 영역과 방식의 적합성 제고도 간과해서는 안 될 쟁점이다. 중학교가 의무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사들이 겪는 큰 어려움 중의 하나가 학생들의 생활지도 문제라고 한다. 학교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인 퇴학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켜도 권고전학 정도 수준의 조치가 최선이어서 문제 학생을 폭탄 돌리는 식의 형국이라는 것이다. 사회변화에 따라 성인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지는 연령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1. 의무교육의 진화와 한국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시의 쟁점

고등학교과정까지 의무교육이 확대되면 학생 징계와 선도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제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3. 의무교육 확대의 효과와 국가주의 교육 관련 이슈

많은 교육경제학자들은 학생들이 학교에 재학하는 연한이 길수록 경제적인 보상이 크고 삶을 풍요롭게 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학교에서 중도탈락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교육(의무출석)의 강제성 활용을 찬성하고 있다. 서구 선진국들의 연구에 의하면 의무출석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잠재적 탈락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나아가 의무교육법의 경제적인 이익은 한 세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인 이점에도 불구하고 의무교육제도(의무출석제)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무교육제도가 부모의 고유 권한인 자녀를 원하는 대로 교육시킬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부모는 자신의 가치관과 믿음에 따라 자녀를 교육시킬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를 국가는 침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공교육’의 이름으로 제공되는 의무교육이 부모나 학습자 본인의 신념(종교, 가풍 등)을 침해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언급한 대로 소위 교육선진국들의 의무출석법에는 ‘예외’조항에서 그 범위가 늘어나고 있으며, 가정에서 교육을 맡는 유형도(홈스쿨링) 가능하나 원칙과 체계 등이 잡히지 않은 홈스쿨링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제재를 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

국가주의 교육에 대한 우려는 제도권 교육이 미래의 국민이자 시민인 학생들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의무교육제도가 ‘권리’나 ‘기회’ 등의 가치를 내세워 시장가치와 기업의 지배논리를 정당화하며, 기업에 유리한 가치

와 기술을 가진 노동자를 생산해내는 데만 주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의무교육제도가 가야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즉, 틀에 박힌 교육제도와 교육과정으로 한 가지 유형의 인재를 길러 낼 것이 아니라, 의무교육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III. 의무교육 기간보다 더 중요한 중등교육의 정체성 확립

지식정보사회에서 의무출석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복잡성을 인정하고 의무출석 연한의 확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의무교육을 받는 동안, 특히 전·후기 중등교육 단계의 학생들의 학교이탈과 삶의 일탈에 관심을 갖고 적합성 있는 맞춤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학생들의 학업동기를 유발하고 진로탐색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도록 하는 방안의 모색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교육의 분명한 지향 없이 무의미하게 법률에 의거하여 18세까지 학교에 머무르도록 하는 것보다는 학교교육이 학생들이 향후 개인적·사회적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핵심역량을 제공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진로를 위한 탐색과 실천적 경험을 제공해야 한





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중학교교육 단계에서 진로가 결정된 경우에 추가 의무교육기간은 오히려 불편이나 불이익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으로서 필요한 소정의 교육(현재로서는 9년)을 받은 후엔 학교교육을 더 이상 받지 않을 권한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교육 기간의 연장이라는 교육정책의 결정은 기존의 교육제도 구조와 변화하는 사회구조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 전제되어야 한다.

의무교육제도가 개인의 배경이나 사회경제적 위치에 상관없이 교육기회를 균등히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이긴 하지만 지식변화의 주기가 급속히 짧아지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획일적인 교육방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수요자의 요구와 필요에 섬세하게 부응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의무교육기간의 확장을 위해서는 단지 이 정도의 경제규모가 되었으니 중등교육과정까지는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거나, 교육기회 균등의 차원을 넘어서는 논거가 필요하다. 의무교육 제도의 경제적인 혜택과 이점이 부각되기 위해서는 의무교육의 목표와 정체성 등 질적인 측면이 더욱 부각되고, 연구되어야 한다. 현재 학교폭력

이나 생활지도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보고되는 중학교 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의 연계를 모색하는 것이 우리나라 중등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대한 과제이다. 따라서 지식기반 글로벌 사회의 준비된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제공해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 어젠다가 책정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교육의 무상화와 의무교육화는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준거가 다른 정책이다. 간단히 말하면, 무상화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물적·인적 인프라가 핵심준거이고, 의무교육화는 미래사회가 원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또는 개인의 자아실현과 미래사회 및 직업세계에 적합한 준비된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9년의 보통교육과정으로는 불충분한 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야 한다. 아무리 의무교육제도가 느슨한 의무로 나아가고 있다고는 하나 의무의 내포와 외연에 따른 책무성은 간과해서도 안 되고 간과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미래는 확산되지 않았을 뿐 현재에 이미 닿아 있다. 대다수가 꿈꾸는 미래를 여는 의무교육의 모습 속에서 쟁점을 조율하는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㉞

주5일 수업제 시행 중간점검 ... 성과와 과제, 향후 전망

글

김상재
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학교팀 팀장



I. 시작하는 말

주5일 수업제는 '11년 6월 전면 자율 도입계획 발표 이후, 올해 3월부터 시행되어 전국 초·중·고교의 99.6%인 11,451개 교에서 도입, 운영되고 있다. 주5일 수업제는 2011년 7월 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40시간 근무제를 확대 시행하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대하여 건전하고 바람직한 여가문화를 정립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학습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창의성 및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주5일 수업제에 대비해 2009년 12월 '2009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하였고, 2011년 10월 초·중·고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연간 수업일수를 190일로 조정하는 등 제도적 정비를 완료하였다. 아울러, 2011년 상반기에 관련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2011년 2학기에 632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주5일 수업제 시범학교를 운영하였다. 시범학교 운영 결과, 전체 학생 중 24.7%가 학교에서 운영하는 토요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학교 토요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가족활동(50.9%), 취미특기 활동(16.4%), 집에서 보냄(12.7%), 학원 등 교과학습(7.8%), 도서관 및 기타활동(12.2%)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범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주말에 자녀의 희망활동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가족활동(50.6%), 지역사회프로그램(21.4%), 학교프로그램(16.7%), 학원 등 사교육(6.6%)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시범학교 운영 결과를 토대로 학교급별 주5일 수업제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여 각급 학교에 제공하고, 체육·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교육취약계층 대책 수립 시행, 지역사회의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확대 등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주5일 수업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Ⅱ. 주5일 수업제 추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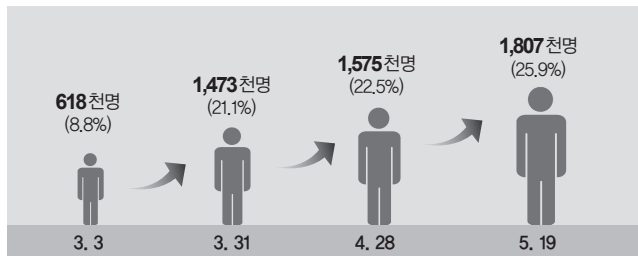
1. 기본방향

정부에서는 주5일 수업제를 통해 건전한 여가 문화를 정립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학습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창의성 및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 '가정-사회-학교가 함께 하는 건전한 토요일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주5일 수업제의 취지에 따라 가정과 사회의 교육기능 강화
- 주말은 체육·문화예술·특기적성·체험활동의 시간으로 활용
- 주말 돌봄 기능 등을 강화하여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 유관부처 및 지역사회 등 학교밖 교육 자원의 활용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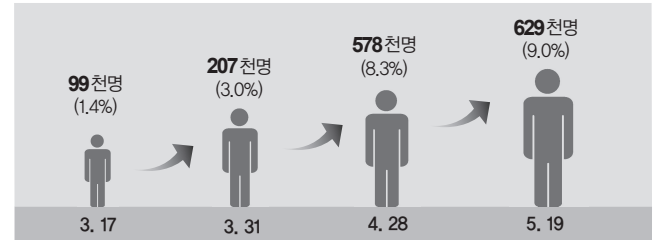
2. 주5일 수업제 토요일프로그램 운영 현황

2012년 3월부터 주5일 수업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된 이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토요일프로그램은 3월말부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학교 토요일프로그램의 경우 3월 3일 8.8%의 학생이 참여한 이래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며 4월부터 22~26%의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1] 학교 토요일프로그램 참여율 추이

또한, 지역사회 토요일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학생의 참여율도 증가하고 있다.



[그림2] 지역사회 토요일프로그램 참여율 추이

3. 중점 추진과제

가. 학생 스포츠 및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주5일 수업제를 맞이하여 학생들이 토요일을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육, 문화예술 등 다양한 특기적성 활동 및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표1〉 정부에서 추진 중인 토요일프로그램

구분	주요 내용
토요일 방과후학교	• 초·중학교 토요일 방과후학교 예체능 및 특기적성 분야 프로그램 무료 운영 지원(33,983개 프로그램)
토요일 스포츠데이	• 토요일스포츠강사 배치 지원(3,828개교, 4,689명) • 학교 스포츠클럽 리그와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종목을 확대 운영 - 스포츠클럽 : ('11) 11개 교육지원청 23개 리그 → ('12) 178개 교육지원청 890개 리그 -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종목 : ('11) 10개 종목 → ('12) 32개 종목 • 외부 체육시설 및 강사 활용을 위해 교과부-문화부-유관단체 다자간 MOU 체결
토요일 문화예술 동아리	• 양악·국악분야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11:65개→'12:300개) • 토요일예술강사 배치 지원(693개교) • 중학생 예술동아리 지원(838개교) • 사제동행 독서동아리 지원(750개교)

나. 교육 취약계층 지원 강화

주5일 수업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토요일에 홀로 집에 있는 학생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육 취약계층

에 대한 보살핌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는 모든 토요일프로그램은 희망하는 교육 취약계층 우선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학생들의 흥미가 높은 프로그램 개설을 통해 참여율을 제고하고 담임교사가 학생의 주말시간 활용실태를 파악하여 지도하는 등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교육기부를 통해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대학생 멘토링 등 대학생 교육기부를 적극 활용하고, 대학생 멘토링 활성화를 위해 대학생 멘토에 대한 활동비 지원뿐만 아니라 봉사학점 인정, 우수 동아리 인증제도를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기업 등의 교육기부 프로그램(예: 현대차정몽구재단 온드림스쿨)은 교육 취약계층을 우선 배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는 교육 취약계층 학생들이 재정적인 부담 없이 각종 토요일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재정지원도 확대하였다.

- 교육 취약계층의 초등학교 토요일 돌봄교실 수요를 전부 수용하기 위해 수요에 비해 돌봄교실이 부족한 경우에는 학교 도서실, 특별실 등을 토요일돌봄시설로 개방하고, 지역아동센터도 토요일에 운영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학교 프로그램 이외에 돌봄교실과 학교밖 체험활동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에서 토요일프로그램 참여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 수강료, 교통비 지원 이외에 중식비까지 지원 범위 확대
- 국립박물관 주말프로그램 저소득층 학생 쿠키제 시행
-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등 독자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경우, 지역 연합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 통학버스 운영 지원 등 부가서비스 지원 방안 추진 등

다.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일문화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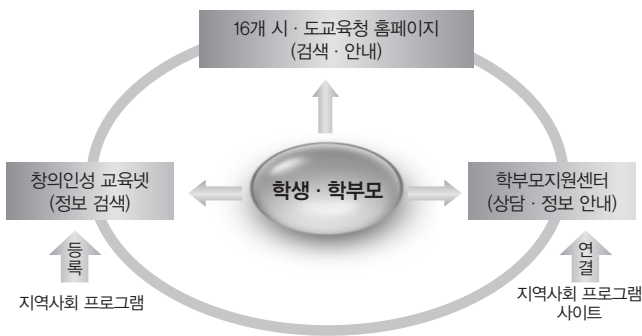
주5일 수업제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바람직한 토요일문화 조성을 유도하고 있다. 학부모 교육 등을 통해 주5일 수업제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 소개하고 있으며, 5~7월 UCC 공모전을 통해 가족과 함께 하는 토요일,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토요일 등 바람직한 여가문화 조성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좋은 학교 박람회, 방과후학교 콘텐츠 페어, 각종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우수사례 홍보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토요일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유관부처에서는 인프라 및 프로그램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금년 7월부터는 공공기관의 보유시설 중 시설 접근성이 좋은 운동장, 체육시설 등을 우선 개방할 예정이며(공공기관 편의시설 개방 추진방안 발표, '12.3.9), 부처별로 마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창의인성교육넷에 탑재·홍보하여 학생·학부모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다.

지자체 등 지역단체에서는 지역사회 인프라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지자체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토요일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일학교' 사업을 통해 60개 기초지자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업·대학 등의 교육기부 프로그램은 가능한 한 주말과 방학 중에 중점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대학생·학부모 등의 개인 교육기부도 초중등 학생들의 토요일 체육·문화예술·체험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사회 토요일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안내 서비스를 강화하여 지역단위에서는 시도별로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지역사회 토요일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체계를 구축하였고, 중앙단위에서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창의인

성교육넷(www.crezone.net)에 시도의 토요프로그램을 종합 등록하고 학생·학부모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색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전국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www.parents.go.kr)와 시도교육청별 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주5일 수업제 배너 설치, 프로그램 활용방법, 학부모 상담 공간을 마련하여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정보안내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림3] 토요프로그램 종합안내 서비스 체계

Ⅲ. 맺음말

주5일 수업제는 정부가 1998년부터 추진해온 주 40시간 근무제의 최종 단계인 쉼이다. 주5일 수업제는 단순히 학교 가는 날을 하루 줄인다는 의미가 아니다. 학습의 장을 가정과 지역사회로 넓혀 학교 밖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게 한다는 것이 참 의미일 것이다. 주5일 수업제의 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민·관과 지역사회가 협력해 학생들이 다양한 창의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확대시키는 게 중요하다. 국민들도 의식을 전환하여 토요일은 학교 밖에서 가족과 함께 여가생활을 즐기면서 학교현장에서 그동안 다소 뒷전으로 밀렸던 체육, 예술 관련 활동과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는 기회로 활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

〈참고1〉 토요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토요스포츠데이 및 스포츠리그

학급 간·학교 간 스포츠리그 운영 등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말을 스트레스 해소 기회로 활용

- (서울 원종중) 토요일 오전에 야구, 기초체력 등 6개 종목을 운영하고, 격주 토요일 오후에는 건강체력측정(PAPS), 교사·학부모 동행 트레킹, 학급 간·학교 간 스포츠리그, 수영강습 등 운영(380명 참여)
- (서울 석관중) 스포츠강사, 학교 교사, 청소년수련관 등 다양한 인력을 활용하여 농구, 치어리딩 등 7개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116명 참여)하고, 그 중 6개 프로그램은 상설 동아리로 운영
- (충남 공주중) 전교생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당 4개팀씩 학급대항 주말 스포츠리그 운영(축구, 풋살 등 3개 종목 126명 참여)
- (서울시교육청 스포츠리그) 11개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 중 755개팀이 참가하여 넷볼, 농구, 소프트볼 등 10개 종목에서 약 3,500여개 경기 운영

학생오케스트라 등 문화예술 활동

학생들의 문화 감수성 및 창의력 제고를 위해 학교가 연합하거나,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 학생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실시

- (경기 운양중) 오산시 관내 26개 학교가 연합하여 취약계층 학생 147명으로 오케스트라를 운영 (8명의 멘토 학부모 지원)
- (강원 오덕초) 철원 6사단 군악대, 대진대 등과 지역예술교육협의회를 구성하고 자원봉사 등을 통해 31명의 학생오케스트라 운영
- (충북 문광초) 농어촌 연중 돌봄학교와 연계하여 37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현악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주민 축제 및 느티나무 음악회 개최
- (경북 구미그린학생오케스트라) 구미지역 37개 학교가 연합하여 초·중·고교 학생 70명으로 표준 관현악 오케스트라 운영

교육기부를 통한 토요프로그램 운영

교육취약계층, 농어촌지역 학생 등을 대상으로 기업·개인의 교육기부가 가시화 되고 있음

- (삼익악기) 충북 음성 등 농어촌지역 학생 대상으로 악기 제공, 강사 지원 등을 통해 20개 학교의 예술동아리 지원
- (충남 한산초) 학부모 교육기부를 통해 할아버지 바둑·장기 교실, 전통 짚공예 등 5개 프로그램 운영
- (하남 풍산초) 학교장이 지역·학부모 교육기부자(7명)를 적극 유치하여 토요일봄, 플룻, 오카리나, 로봇 등 7개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토요프로그램

지역사회·지자체와 교육기관, 학교, 학생간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음

- (고양시) 고양교육지원청과 고양시청이 MOU를 맺고 (재)고양문화재단이 주관하는 '고양시 토요일학교' 운영
 - 전통놀이, 방송동아리 등 프로그램에 매주 2,000여명 참여
- (대구시교육청)대구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1,056개 프로그램 운영
 - 삼성라이온스 야구단, 대구태권도협회 등과 MOU를 맺고 토요일야구 교실(3개) 등 운영, 삼성 야구경기예 교사와 동행 시 무료입장

교육취약계층 지원

다문화, 탈북자 등 주말에 홀로 방치될 가능성이 많은 교육취약계층 및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무료 토요일프로그램 지원

- (충남 차동초) 다문화 가정 등 교육취약계층 학생에게 이중언어교육 및 체험활동을 무료 제공
 - 참여인원 45명(전교생 75명의 60%), 그 중 교육취약계층 학생 25명
- (인천 장도초) 탈북자 학생(73명) 등 교육취약계층이 많은 학교로서 가족 동행 문화체험활동 등 교육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 운영

<참고2> 부처별 토요일프로그램 추진 현황

돌봄서비스 프로그램

- (복지부) '토요일돌봄서비스'
 - 지역아동센터 토요일 운영 ('12. 2 : 1,400개소)
- (여가부) '나홀로 아동·청소년 토요일 돌봄서비스'
 - 취약계층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12 : 200개소, 8,200명)
 -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215개 기관을 활용, 3만 가구의 가정돌봄 서비스 지원('12)

체험교육 프로그램

- (환경부) '푸름이 이동환경교실' 등
 - 버스를 이동교실로 개조, 방문 체험교육 실시 : '12년 증차 및 토요일 까지 확대 운영
 - 민간단체·학교 환경교육체험프로그램 지원, 시·도 자연환경연수원 체험프로그램 지원
- (국방부) '안보현장 체험' 및 '병영 체험'
 - 주말 안보현장 체험(전국 각급 부대, 52만명), 1일 병영체험(전국 각급 부대, 31만명)
- (국토부) '수상레저스포츠 체험'
 - 수상스포츠 체험(4대강 6개소 등, 50만명), 취약계층 수상레포츠(1천명)
- (문화부) '문화예술·콘텐츠·스포츠·관광 체험'
 - 문화·예술·콘텐츠 체험 프로그램 운영(120여개, 84만명)
 - 토요일문화학교(149개 기관, 1만명), 토요일스포츠활동 지원(33만명), 주말 가족여행 활성화 지원, 소외계층 청소년 쿼터제 도입(30% 내외) 등

- (법무부) '토요 법체험'
 - 솔로몬 로파크 프로그램 운영 : '법토크데이' 프로그램 확대 ('12 : 73회, 2,900명)
 - 토요 법교육 출장강연 : 신청 학교의 희망에 따라 추진 ('12)
- (고용부) '부모와 함께하는 직업체험프로그램'
 - 한국 잡월드('12.상반기 개관)를 활용, 상담과 체험이 연계되는 청소년·어린이 체험관 및 부모와 함께하는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12년 최대 19만명)
- (행안부) '범죄예방교실', '소방안전체험교실'
 - 소방안전체험관 토요 학생전용 체험시간(09:00~12:00) 정착
- (농식품부) '팜스쿨' 및 '농어촌체험마을'
 - 팜스쿨 : '12년부터 농어촌 경관 및 문화자원 탐방 등 토요 특별 체험프로그램 신설('12 : 30개교)
 - 농어촌체험마을 : 농작물 재배, 마을 부존자원을 활용한 각종 체험(1,860개 마을, 3만7천명/회)
- (보훈처) '토요일사체험'
 - 독립기념관, 백범기념관, 안중근기념관 등 활용

수련·탐방 프로그램

- (외교부) '외교사료관 개방 및 토요일 어린이 외교관학교' 프로그램
- (여가부) '청소년 수련시설 상설 운영', '주말캠프'
 - 생활권수련시설 398개소 상설 운영(11만명), 국립청소년수련시설(3개소, 1만명)
- (환경부) '국립공원 탐방'
 - 국립공원 탐방(37만명) 등 총 10개 사업 60만명 대상 프로그램 운영
 - 소외계층을 고려한 생태관광바우처('12 : 2,800명)
 - 국립공원 건강나누리 캠프('12 : 1,600명)
- (국방부) '청소년 호국수련'
 - 청소년 호국수련활동(195개 부대, 4만5천명)
- (국토부) '지역탐방 프로그램'
 - 취약계층 대상 독도탐방(5~10월), 해양영토대장정(4월~) 등

진로직업 관련 프로그램

- (고용부) '토요 진로직업지도'
 - 맞벌이부부 및 취약계층 자녀를 위해 고용센터를 주중 → 토요일로 확대 운영(4월부터 8개 고용센터에서 시범운영 후 확대)
 - 홀로 가정에 남은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직업진로 지도 콘텐츠 개발·지원
- (지경부) '기업·공공기관 홍보관 개방'
 - 포스코역사관, LG사이언스홀 등 대기업 홍보관 및 산하 공공기관 홍보관 개방
- (금융위) '금융교실'
 - 청소년 금융교육협의회「지역아동센터금융교실」('12 : 26,000명)
- (공정위) '소비자교육'
 -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한 소비자교육('12 : 5,200명), 소비자캠프(연 4회)

다문화학생 교육선진화 ‘한국판 ESL과정’ 추진, 전망과 과제

글

• 최성유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과 과장



I. 우리 사회는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이행 중

우리 사회는 매우 빠른 속도로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이제는 TV, 신문 등 언론보도나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이러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경험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을 찾는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유학생이 많아지면서 이제 우리 사회는 인종, 국적, 언어를 기준으로 ‘우리’와 ‘남’을 구별하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 행정안전부 발표¹⁾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 귀화자, 외국인자녀(이하 ‘외국인주민’)는 모두 126만 5,006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2.5%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대비 11%가 증가한 수치로 2006년 첫 조사 이후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유엔미래보고서는 현재 100만 명 수준인 다문화가족이 10년 후에는 400만 명으로 늘어나면서 인구의 10%를 차지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인구추세가 점차로 고령화되는 한편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어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1) 「201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행정안전부, 2011.6.24)

Ⅱ. 다양성이 공존하는 학교로의 변화

우리 사회가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교육의 최전방인 학교 또한 언어적, 문화적, 민족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이른바 '다문화학생'의 수가 매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은 2011년 기준으로 약 8천개 학교에 3만 8,678명이 재학 중인데, 이는 2007년 기준인 14,654명에 비해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다. 이미 전국의 세 학교 중 두 학교에는 다문화학생이 1명 이상 재학하고 있고, 10명 이상 재학 중인 학교도 약 9백여 개로 전체 초·중·고등학교의 8.4%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다문화학생은 대부분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학년이 낮을수록 다문화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이후 급증한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이 2000년도를 기점으로 취학연령에 진입하였고, 외국인가정의 자녀들도 학교에 진학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반영한다.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은 연간 평균 6천 명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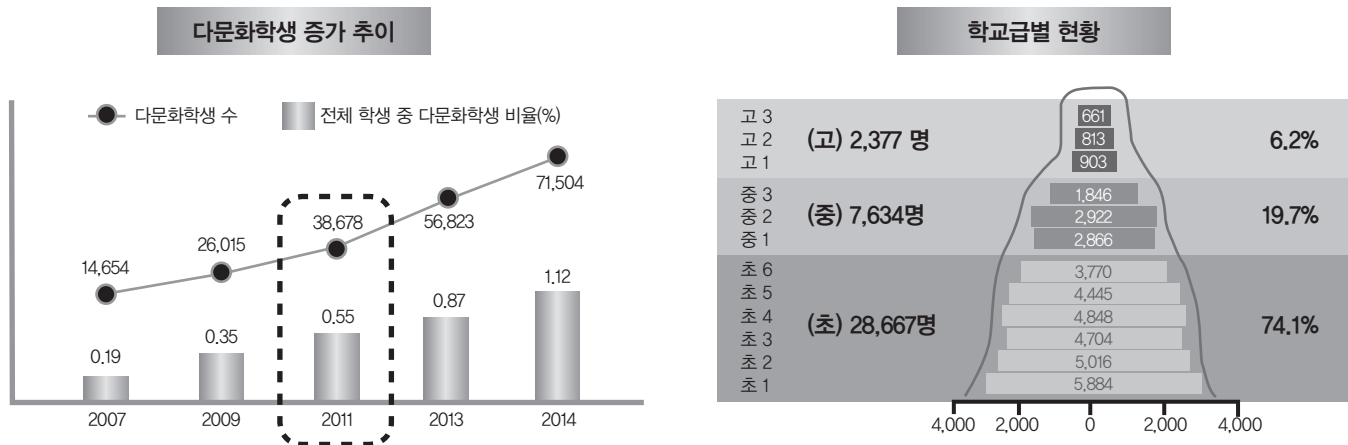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다문화학생이 전체 학생의 1%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학교도 다양한 문화적·언어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배우고 생활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어 학생들의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도록 학교의 역할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Ⅲ. 한국어교육이 핵심

다문화학생들은 부모를 통한 언어습득 및 또래 문화경험이 부족하여 한국어 발달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우리나라 국제결혼가정은 결혼이민자 여성과 한국 남성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80% 이상³⁾으로 자녀교육에 있어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한국 가정의 현실에서 한국말이 서투른 외국인 어머니가 아이에게 한국말을 제대로 가르쳐 주기는 쉽지 않다.

또한,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외국인 부모와 함께 입



[그림1] 우리나라 다문화학생 현황²⁾

2) 교육과학기술부 내부 자료(2011. 12월 기준)

3)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12. 3) : 국민의 배우자(결혼이민자) 체류 현황. 여성 86.3%, 남성 13.7%.

국하는 중도입국 자녀나 외국인가정 자녀의 경우에는 한국 체류기간이 짧아 모국어는 능숙하지만 한국어는 서투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어가 서투른 다문화학생이 한국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경우 학습부진과 정서불안, 따돌림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문화학생들은 한국의 낯선 언어와 문화에 적응하면서 동시에 학교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로 학습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급우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한국어가 서투르다는 이유로 쉽게 놀림을 당하거나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다문화학생이 겪는 한국어의 어려움은 학업능력 저하와 정서적 불안, 사회적 소외현상으로 이어지는 주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학생이 앞으로 사회에 잘 적응하고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어 역량을 강화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게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가 서투른 다문화학생을 교육해야 하는 대부분의 학교현장에서는 사실상 별다른 준비를 하고 있지 못했던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었다.

IV. 다문화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의 현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학교현장에서 한국어가 서투른 다문화학생들에게 적절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다문화학생들이 겪는 많은 어려움의 중심에 언어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으며, 한국어는 당장 일상과 학교생활, 더 나아가 교과학습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숙달해야만 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공교육 체계로 다문화학생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은 학교가 감당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으며 이를 학교가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어교육은 우리나라 안에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일체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이와 비교하여 한국어교육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2언어(Korean as a Second Language)로 가르치는 교육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다문화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은 일반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과는 다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문화학생들의 경우 가정의 교육지원 환경에 따라 한국어 능력은 매우 다양한 수준을 보인다. 특히 중도입국자녀나 외국인가정 자녀의 경우 입국시기, 체류기간에 따라 한국어 능력이 다르고 학업성취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다문화학생에게 한국어를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가정배경, 인지수준, 학업성취수준,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SES : socio-economic status)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같은 다문화학생이라 해도 한쪽 부모가 한국인인 국제결혼가정 자녀인지 외국인 이주자 가정 자녀인지, 출생지가 한국인지 아니면 중도입국자녀인지에 따라 한국어 능력은 매우 다르게 나타나므로 학생별 개인차를 고려한 맞춤형 한국어교육이 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다.



3. 다문화학생 교육선진화 '한국판 ESL과정' 추진, 전망과 과제



그러나 지금까지 학교교육 현장에서는 이들의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인별 수준에 맞는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보통 다문화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은 다문화학생이 다수 재학하고 있는 일부 학교를 중심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거나, 지역센터(아동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무지개센터 등)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학생별 한국어 수준을 초기에 진단할 수 있는 도구 역시 단위학교에서 자체 개발하거나 아동발달센터의 언어치료프로그램을 이용한 진단평가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문화학생을 위해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의 경우에도 학교나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개발한 교재, 민간 학습지, 대학교 한국어학당 교재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최근 한 연구⁴⁾에 의하면 한국어가 부족한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체계적인 교육과정 마련(26.9%), 적절한 교재 개발 및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19.2%), 교수·학습방법 개발(11.5%), 교사에 대한 연수·지도교사(보조강사) 배치, 기타(7.7%)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어가 부족한 다문화학생에게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국가수준의 교육적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수준의 표준화된 한국어 교육과정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V. 외국의 사례 분석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표적인 다문화 국가인 미국은 다문화학생의 사회 적응을 위해 NCLB법(No Child Left Behind)에 근거한 ESL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SL 프로그램은 이민자자녀를 위해 연방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읽기·쓰기 향상 프로그램으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아 영어구사능력이 부족한 학생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언어능력을 진단하여 단계별로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 호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서도 자국의 다문화학생들을 위해 자국의 언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토플 주니어(TOEFL Junior), 캐나다 영어능력 검사(CanTEST, English Language Tests in Canada), 호주의 교육평가서비스(AEAS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Tests) 등 자국어 교육 실시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대부분이 각국 언어별로 학생 개인별 언어 능력 평가를 위한 표준화된 검사체제가 갖추어져 있다.

이러한 자국어교육 프로그램과 평가체제는 다문화학생의 언어능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적응하고 학습능력을 키우는 매우 중요한 제도적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다.

4)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한국어(KSL) 교육과정 개발 연구(2011, 원진숙)

Ⅵ. 앞으로의 정책 방향 : 다문화학생 교육선진화 방안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다문화학생 교육선진화 방안을 발표⁵⁾하면서 앞으로 다문화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어가 서투른 다문화학생의 기본 한국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교육과정을 정규과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국어(KSL) 교육과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어교육과정을 도입하고자 하는 핵심은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진단부터 수준별 교육까지 맞춤형 한국어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어교육과정을 연내에 고시하고, 다문화학생을 위한 한국어 능력 진단 도구와 표준화된 수준별 교재를 개발하여 단위학교에 보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 중인 ESL과 같은 교육과정을 우리나라의 다문화학생에게도 우리의 여건에 맞게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Ⅶ. 한국어교육과정(KSL) 도입을 위한 과제

한국어교육과정(KSL)의 도입은 기존의 단위학교에서 방과 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다문화학생을 위한 한국어 수업을 정규 교과시간에 운영이 가능해지도록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로써 다문화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는 다문화학생들에게 한국어를 통한 기초 의사소통능력뿐만 아니라 다문화학생들이 실제로 학습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도 신장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편

성 시 한국어 수업을 신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물론 한국어교육과정(KSL)이 학교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올해 도입되는 한국어교육과정이(KSL)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수준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진단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다문화학생들에게 개인별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한국어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에서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역량을 가늠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단위학교에서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와 같은 4가지 영역을 망라하여 다문화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을 진단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진단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진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반 한국어 능력시험(Standard TOPIK)을 시행 중이나 이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은 대학생 이상 성인인 재외동포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어휘와 문법 능력 평가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초·중·고등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능력시험과는 별도로 단위학교에서 다문화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담교사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다문화학생을 위한 학생용 한국어 능력시



5)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발표(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12.3.12)

험(Junior-TOPIK)의 개발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다문화학생의 수준에 따라 맞춤형 한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다양한 수준의 한국어 교재가 필요하다. 한국어 교재는 J-TOPIK을 통해 진단된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능력에 따라 교육할 수 있도록 말하기·듣기 중심의 초급 한국어, 읽기 중심의 중급 한국어, 쓰기·문법 중심의 고급 한국어까지 단계별 개발이 필요하며, 한국어교육과정(KSL) 및 J-TOPIK의 내용과 수준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문화학생들에게 한국어를 지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과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인 교사용 지도서 등 교수 보조자료들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무리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한국어교육과정(KSL)이나 진단도구, 교재가 개발되더라도 학교현장에 적극 보급·활용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그러므로 앞으로 도입될 한국어교육과정(KSL)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사 연수프로그램이 개발·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추후 도입될 한국어교육과정(KSL)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수업과 관련된 연수를 실시하여 한국어교육과정이 학교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가져오도록 할 필요가 있다.

류열풍과 더불어 한국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밖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의 표준으로 활용될 수도 있어, 이럴 경우 한국어교육과정(KSL)은 한국어의 보급과 국제화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된다.

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는 성공적인 한국어교육과정(KSL)의 도입을 위해 국립국제교육원, 국립국어원 등 관계 기관들과 연계·협력하여 J-TOPIK, 한국어 교재, 연수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하고 한국어교육과정(KSL)이 학교현장에 안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㉞

VIII. 제언

앞으로 한국어교육과정(KSL)의 도입은 단위학교에서 표준화된 한국어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크게 도울 것이다. J-TOPIK, 한국어 교재 등은 다문화학생을 위한 예비학교를 포함하여 대안교육 시설 등에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에도 도입되는 한국어교육과정(KSL)의 내용은 국내의 한국 학교로 다시 입학할 예정하고 있는 재외동포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도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최근 한





제10회 한국교육개발원 · 중앙일보 교육포럼
학교폭력 근절과 인성교육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추진상황 중간점검-
 ■ 일시 : 2012년 5월 16일(수) 09:30~13:00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 목련실

제10회 한국교육개발원 - 중앙일보 교육포럼 지상중계

SPECIAL REPORT

II

특별기획

학교폭력 근절과 인성교육 -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추진상황 중간점검

정리
 이한길
 중앙일보 기자

한국교육개발원(KEDI)과 중앙일보는 지난 5월 16일 '학교폭력 근절과 인성교육 -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추진상황 중간점검'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의 2·6 학교폭력 종합대책 발표 100일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개선방안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인성교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해 올 7월에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교육과정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비판이 나오겠지만 인성교육을 강화하지 않으면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태완

•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사회)

토론참가자 (가나다 순)

- | | |
|----------------------|----------------------------------|
|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사회) |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 신순갑 학교폭력대책범국민연대 사무총장 | 이한배 서울 난곡중학교 생활지도부장 |
| 엄태서 서울 신천중학교 2학년 | 조 벽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F O R U M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 사회) : 2월 6일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로 100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지난 100일간 학교폭력대책이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자리입니다. 우선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6 학교폭력대책이 나온 이후에 학교에 변화가 있었나요.

엄태서 (서울 신천중학교 2학년) : 예전에는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하면 주변 학생들이 방관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서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6 학교폭력대책이 발표된 뒤에는 방송 등을 통해 학교폭력예방교육이 꾸준히 이뤄지고 선생님들도 학교폭력에 엄격하게 대처하면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학생들이 조그만 따돌림이라도 생기면 바로 선생님에게 신고를 하거나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학생들이 폭력은 잘못된 것이란 인식을 가지게 되면서 왕따를 당하는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려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복수담임제가 대표적입니다. 저희 학교도 복수담임제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대부분 부담임 선생님이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담임선생님이 한 분일 때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일부 과목 수업을 특정 학년에서 몰아서 배우는 집중이수제와 복수담임제가 충돌하다 보니 정작 수업도 한 번 받아본 적 없는 선생님이 부담임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한배(서울 난곡중학교 생활지도부장) : 2·6 학교폭력대책은 가해학생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가해학생들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도 생기면서 '학교폭력=범법행위'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이전에는 가해학생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다"며 부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우리 아이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또한 그동안 학교폭력을 방관했

“오늘 토론회는 지난 100일간 학교폭력대책이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자리입니다. 우선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6 학교폭력대책이 나온 이후에 학교에 변화가 있었나요.”

던 아이들이 이제는 사소한 사건까지도 담임이나 117 학교폭력 신고전화 등에 신고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실제 학교생활 중에도 학교폭력을 당하는 아이를 보면 가해학생에게 ‘괴롭히지 말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학생을 도와주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은 교과부와 교육청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학교폭력 대책을 두고 일선 시·도교육청과 교과부가 대립하면서 초반에 갈팡질팡했기 때문입니다. 체육수업 확대도 처음에는 진통이 많았습니다. 개학 전 갑자기 체육수업을 확대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면서 체육교사들이 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체육수업을 두 달째 하다 보니 요즘은 아이들이 더 좋아합니다. 대부분 학교는 아침 8시20분쯤 수업이 시작되는데 그 전에는 8시30~40분은 돼야 학교에 오던 아이들이 체육수업이 있는 날은 일찍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순갑 (학교폭력대책범국민연대 사무총장) : 지난해 12월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 문제가 소수의 문제에서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다수의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구사건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한국사회 전체가 학교폭력 해결을 두고 토론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사회, 전 국민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자신의 역할을 고민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결론이 인성교육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건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책이 일선학교에 좀 더 빠르게 전파됐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 교과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을 거쳐 학교에 전달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2·6 학교폭력대책이 일선학교에서 어느 정도 시행되는 데 두 달 정도 걸렸습니다. 시·도교육청별로 편차도 심합니다. 교과부는 정책전달체계를 단축하고 동시에 16개 시·도교육감들의 학교폭력 근절 의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벽 (동국대학교 석좌교수·학교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학교폭력은 여타 범죄와 다른 측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은밀한 곳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대낮에 목격자가 있는 곳에서 벌어집니다. 둘째, 피해자의 3분의 2 정도가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셋째, 목격자의 80%가 범죄현장을 보고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보고도 못 본 척 하는 것이죠. 이는 우리 사회가 그동안 학교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학교폭력은 90년대에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대부분 학교 밖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으니 학교 밖에 퍼져 있던 폭력이 이제는 교실 안까지 파고들어온 것입니다. 학교를 인체에 비유하자면 교실은 학생과 교사가 함께 숨 쉬는 허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교폭력을 지금까지 가벼운 피부병 정도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암이었던 겁니다. 표면적인 증상만 치료하는 데 힘쓰는 사이 암이 결국 허파까지 전이된 상황입니다. 이번 2·6 학교폭력대책을 통해 변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학교폭력=범죄’라는 인식의 변화, 그리고 학교폭력은 ‘남의 아이, 옆 학



신순갑

학교폭력대책범국민연대 사무총장

“학교폭력 문제가 소수의 문제에서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다수의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한국사회 전체가 학교폭력 해결을 두고 토론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사회, 전 국민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자신의 역할을 고민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결론이 인성교육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건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업태서

서울 신천중학교 2학년

“저희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한 시간씩 인성교육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은 자주 접하다보면 습관처럼 바뀌게 되는 만큼 교육시간을 좀 더 늘리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을 상대로 따로 교육을 하는 것도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 우리 학교'의 문제라는 걸 직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학교폭력대책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사소한 학교 폭력도 범죄라는 인식을 갖도록 교육하고 이에 맞춰 법률을 정비하며 학교별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과를 공개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직접적인 대책은 지난 몇 달 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결국 인성교육이 근본적인 해답입니다. 다행히도 인성교육에 대해선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학생자치를 강화하고 학부모 교육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계속 강조했던 지·덕·체 전인교육의 장점을 되살려야 합니다.

김태완 : 우리가 인성교육에 대한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음에도 잘 살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책을 계기로 인성을 존중하는 전통문화를 다시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학교에선 인성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업태서 : 저희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한 시간씩 인성교육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은 자주 접하다보면 습관처럼 바뀌게 되는 만큼 교육시간을 좀 더 늘리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을 상대로 따로 교육을 하는 것도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한배 : 이번 학기부터 매주 수요일 아침마다 인성교육 동영상 자료를 틀어줍니다. EBS 프로그램을 선생님들이 직접 3~10분짜리로 편집한 것입니다. 처음엔 무관심했던 아이들도 점점 집중해서 보게 되고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성교육이란 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 공감해주는 것입니다. 문제학생의 경우 선생님이 시간을 내서 그 아이들과 밥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얘기하다 보면 학생들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또한 인성교육은 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역사회가 나서야 합니다. 핑계로 들릴 수도 있지만 학교 선생님들은 수업에 교과연구도 해야 하고 잡다한 업무가 많습니다.

신순갑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에선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계된 클럽활동이 매우 활발합니다. 일본만 해도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하는 건 우리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보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클럽활동이 훨씬 활발합니다. 클럽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고유의 문화를 만들어 내고 자치(自治)를 경험해야 전반적인 인성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성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 공동체에 대한 봉사, 애국심, 참여 등으로 규정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클럽활동이나 동아리를 통해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주호 : 인성교육은 곧 '공감'입니다. 인성교육을 주입식으로 고리타분하게 해선 절대로 안 됩니

다. 학교장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연수를 할 때 대구에선 학교폭력 뮤지컬을 함께 봤습니다. 그때 참석한 교장과 학생들 모두 울고 공감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예술이나 동아리 활동 등을 활용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조벽 : 이제 인성교육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는데 아직 '인성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의 국·영·수 중심의 교과과정과 입시를 그대로 놔두고 인성교육을 추가한다면 실패합니다. 국·영·수만 하기도 벅찬데 따로 인성교육이나 창의교육을 한다면 속도 밟도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국·영·수가 아니라 국·인(인성)·수가 중심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국·영·수 등 각 과목 내용에도 인성교육이 녹아 있어야 합니다. 그에 맞춰 입시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또한 인성교육을 학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실패합니다. 학부모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인성교육은 강의나 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성교육은 결과가 아닌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생활지도부 교사가 문제학생을 불러놓고 인성을 가르치는데 몰아세운다거나 때리거나 한다면 인성교육이 되겠습니까. 인성교육을 할 때는 그에 맞는 합당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교원양성 과정에 인성교육 기술을 배우는 교과목이 정규과목으로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교원양성체계는 학생에게 더 많은 지식을 전달하는 법을 가르칠 뿐 그런 기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주호 : 인성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교육과정 개편안을 7월에 고시하려 합니다. 정규 교과목 중 유일하게 인성교육과 관련된 과목이 도덕입니다. 도덕 교육과정을 인성교육에 맞게 많이 바꾸려 합니다. 국어·영어·수학 수업에도 인성교육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번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협박·욕설·비방 등 언어폭력이 전체 학교폭력의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학생들의 언어문화 개선은 국어교사들이 해줘야 합니다. 학생들의 언어습관을 개선하는 교재를 만들어 이달 말 보급하고 수업시간에 언어문화 관련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을 너무 자주 바꾼다는 비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인성교육 없이는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괴롭힘)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매년 몇 시간씩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인터넷 사용연령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 만큼 유치원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완 : 인성은 결국 공감과 연민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을 많이 쓰다 보니 사람과 접촉하는 시간은 줄고 기계와 접촉하는 시간은 늘어납니다. 인터넷 상의 언어는 축약이 대세를 이루고 '악플(악성댓글)'도 많습니다. 결국 인성을 기르려면 대인관계의 장을 많이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인성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교육과정 개편안을 7월에 고시하려 합니다. 정규 교과목 중 유일하게 인성교육과 관련된 과목이 도덕입니다. 도덕 교육과정을 인성교육에 맞게 많이 바꾸려 합니다. 국어·영어·수학 수업에도 인성교육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의 언어습관을 개선하는 교재를 만들어 이달 말 보급하고 수업시간에 언어문화 관련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배

서울 난곡중학교 생활지도부장

“학교에선 스마트폰 문제가 심각합니다. 중독성도 강하다 보니 아무리 값이 비싸도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으면 또래문화에서 소외가 됩니다. 그렇다보니 무리를 해서라도 스마트폰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약한 친구들에게 뺏기도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은 스마트폰 때문에 새로운 폭력을 당하게 됩니다.”

이한배 : 학교에선 스마트폰 문제가 심각합니다. 중독성도 강하다 보니 아무리 값이 비싸도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으면 또래문화에서 소외가 됩니다. 그렇다보니 무리를 해서라도 스마트폰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약한 친구들에게 뺏기도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은 스마트폰 때문에 새로운 폭력을 당하게 됩니다.

조벽 : 학교폭력의 특징 중 하나는 범죄는 발생했는데 책임을 추궁할 범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미성년자라 처벌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 등 OECD 국가에선 ‘학부모 책임법’이 생겼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책임을 부모에게 물어 최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하거나 2,500달러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이런 법안이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해학생 부모들의 가장 일반적인 반응은 ‘우리 애가 그럴 줄 몰랐어요’ 혹은 ‘우리 애가 그럴 리 없어요’입니다. 그러나 학부모 책임법이 있다면 부모는 자녀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2003년 이후 OECD 소속 30개국 중 22개국에서 이와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주요 도시에선 청소년 야간통행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오후 9시 ~ 다음날 오전 6시, 미국은 오후 10시 ~ 다음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 이유는 청소년 범죄가 오후 11시 ~ 오전 1시 사이에 가장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인권침해라는 반론도 많았지만 효과가 있기에 밀고나가는 것입니다.

김태완 : 지난달 경북 영주 중학생 자살사건을 보면 학생들의 정신건강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정신건강 진단을 좀 더 정밀히 할 필요가 있고, 이상이 있는 학생에 대한 추후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주사건의 경우 자살한 학생이 고위험군에 속한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한배 : 요즘 학교에선 인·적성검사를 자주 합니다. 선생님들 입장에선 검사결과가 상담 등에 필요한 훌륭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부모는 아이에게 정서불안 등 이상이 있다고 나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전문성이 부족한 교사들로선 상담을 하기 어렵습니다. 각 시·군·구 교육지원청 단위에서라도 이런 학생들을 상담할 수 있는 외부기관을 지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순갑 : 지역마다 정신건강보건센터가 있지만 학교와는 완전히 유리돼 있습니다.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관련해 학교와 거의 소통하는 일이 없습니다. 교과부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이 문제에 좀 더 깊숙이 개입해야 합니다. 시·도 별로 병원이나 전문심리치료를센터를 지정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학교에서 성격검사나 인·적성검사를 할 때 비용을 아끼기 위해 현재 실정에 맞

지 않는 오래된 검사지를 쓴다는 점입니다. 보통 설문지 한 장 당 300~500원 짜리를 쓰는데 대부분 현재 아이들의 성장발달 수준과 맞지 않습니다. 교과부 차원에서 적절한 검사지를 쓰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조벽 : 학교폭력문제는 전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스트레스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등으로 이런 스트레스를 관리함과 동시에 스트레스 자체를 줄이는 작업도 병행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보통 가정불화·부모의 폭력 등 가정문제로 가장 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밥상머리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문제는 부모들이 일하느라 가족끼리 저녁도 같이 못 먹는 상황에서 밥상머리 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나서야 합니다. 아이가 부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태완 : 오늘 토론 결과를 종합해보면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선 학교는 학교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순갑 : 주5일제 수업이 시행되면서 인성교육과 청소년활동이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빈틈을 학원 등 사교육시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를 막지 못하면 많은 아이들의 희생으로 얻은 지금의 국민적 공감대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19대 국회는 휴일 학원운영금지법 같은 규제를 강력히 밀고나가야 합니다.

이한배 : 학생들은 지금의 학교폭력예방정책이 용두사미가 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른 이슈에 묻힐 것이란 우려가 많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폭력이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조벽 :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학교의 자정능력이 많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정부가 학교현장의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하고 간섭하는 것보다 학교의 자정능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주호 : 교과부는 지난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학교폭력대책을 추진해왔습니다. 현 정부 마지막까지 지금과 같은 강도가 유지될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학교폭력은 그냥 일회성 대책으로는 절대 근절되지 않습니다. 과거처럼 입시에만 관심 가질 때가 아닙니다. 여러 정부부처와 함께 학교폭력이 뿌리 뽑힐 때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조벽

•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학교폭력문제는 전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스트레스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등으로 이런 스트레스를 관리함과 동시에 스트레스 자체를 줄이는 작업도 병행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보통 가정불화·부모의 폭력 등 가정문제로 가장 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밥상머리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World Education



1

미국 찬틀리고등학교의 도서관을 활용한 교육



글

• 김윤미

서울 동성고등학교 사서교사

I. 미국 부촌에 위치한 찬틀리고등학교 도서관에 가다

2011년 1월, 필자가 속한 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 서울모임 선생님들은 뉴욕과 워싱턴, 보스턴과 캐나다 토론토의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을 둘러보며 교육과 문화 속에 도서관이 어떻게 녹아있는지 체험하고 돌아왔다.

찬틀리고등학교(Chantilly High School)는 미국 버지니아주의 페어팩스에 위치한 공립학교로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약 2,900명의 학생과 150명의 교사가 다니는 규모가 매우 큰 학교이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미국의 '강남 8학군'으로 불릴 만큼 버지니아주 내에서도 부촌에 속한다.

학교에 들어서니 건물 전체가 유리로 둘러싸인 외관이 인상적이다. 통유리를 통해 1층에 위치한 도서관 속 모습이 들여다보였다. 입구에서 사서교사 로빈(Robyn Singletary)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한다.



도서관은 3개 반의 수업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을 정도의 넓은 공간으로 총 52대의 컴퓨터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리서치를 할 수 있는 리서치 랩까지 마련되어 있다. 또한 4명의 학생이 앉을 수 있는 모뎀 책상이 군데군데 놓여 있어 소그룹으로 활동하기에 안성맞춤이다.

도서관 중간 중간에 서가 표시-크게 소설, 논픽션, 전기, 잡지로 구분-를 중세 깃발로 구성한 점이 눈에 띈다. 도서관의 중앙에는 논픽션을 배치하고 양쪽의 큰 서가에는 소설과 전기류를 두었으며, 낮은 서가의 위쪽에는 학생들에게 홍보하고 싶은 책들을 세워 전시를 해두었다. 낮은 서가를 중심에 배치하여 전체적으로 공간이 넓어 보이는 효과 뿐 아니라 전시도 하는 일석이조의 공간활용이라는 점이 마음에 든다. 학교도서관의 공간구성은 접근성의 문제를 넘어 그 도서관의 경영을 보여주는 잣대가 된다. 특히 이곳의 서가배치는 주목할 만하다. 낮은 서가를 이용하여 사회, 역사분야의 책을 배치한 것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도서관에서 별도의 서가를 놓아 구별하는 도서는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기도서, 신간도서, 교과 권장도서 등이 보통이다.

국제학교도서관협회(IASL)¹⁾의 정책 성명서에서 학교도서관은 가르치고 배우는 모든 활동의 근간이며, 교육의 과정을 위한 핵심시설로 정보적, 교육적, 문화적, 레크레이션 기능을 수행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은 단순한 자료의 대출 반납을 하는 공간이나 자율학습공간이 아니라 교육의 장이다. 도서관의 중앙에 만화나 인기도서가 아닌 논픽션을 배치한 모습을 보면 챌트리고등학교 학생들의 자료 활용도와 독서수준 및 독서흥미까지 파악할 수 있다. 수석 사서교사 로빈에게 물어보니 도서관 활용수업에 사회, 과학 등의 과목이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음식도 골고루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내적 성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깊이 있는 독서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주로 판타지, 무협, 만화 등의 책을 읽는데 그치고 말기 때문에 독서교



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독서교육은 사서교사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닌 전 교과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

Ⅱ.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만 할 때,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챌트리고등학교에는 2명의 사서교사(Robyn 수석 사서교사, Lynette 사서교사)와 1명의 비서(Lauren 교생)가 근무하고 있었다.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 사서 실기교사, 사서가 함께 근무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할 수 있는데, 챌트리고등학교는 두 명의 정식 사서교사와 비서가 근무하고 있어 매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이는 11,407 곳의 학교도서관에 고작 724명의 정식 사서교사가 근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참담한 기분이 들었다.

챌트리고등학교의 사서교사는 학생들에게 ‘정보 컨설턴트’로 통한다. 학생들은 사서교사에게 리서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조언을 얻는다. 자신이 정한 프로젝트의 주제를 정하거나 에세이를 쓸 때, 좋은 책을 찾을 때, 개인적인 리서치 상담이나 검색방법을 알

1) IASL; 1993 (IASL POLICY STATEMENT ON SCHOOL LIBRARIES)(online) <http://www.iasl-online.org/about/handbook/policysl.html>



고 싶을 때 도움을 주는 것도 사서교사의 몫이다. 한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개인적 정보 요구에 사서교사가 친절하게 응답해 주는 것이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차이라고 답했다.

교과교사들에게 있어 사서교사의 역할은 조금 다르다. 도서관 협력수업 시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와 리서치 가이드 제공, 인용하는 법, TV/케이블 장비 설치, 리서치 과제협력 등에 도움을 준다.

Ⅲ. 사서교사의 역량이 협력수업에서 발휘되다

사서교사의 역량은 협력수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찬들리 학교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협력수업은 중학교의 협력수업을 기초로 한 심화과정이다.

첫 단계로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도서관 이용교육을 하며, 10~12학년에게는 교과별로 정해진 프로젝트에 맞게 자료를 제공한다. 도서관과 협력하여 진행되는 리서치 프로젝트는 주로 사회, 영어, 과학 과목에서 이루어진다. 보통 프로젝트 과제 시 교과교사는 수업 전에 프로젝트의 방향을 사서교사와 의논하고, 사서교사는 학생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중학교의 협력수업과 달리 고등학교에서는 한 단계 심화된 웹사이트와 전문화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각 교과에서 진행한 프로젝트에 대해 사서교사가 학생들에게 제공한 유인물을 보면 단행본보다는 데이터베이스와 웹 자료에 대한 내용이 많고, 리서치의 내용도 깊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 영어과에서 진행한 ‘셰익스피어 리서치 프로젝트’와 사회과에서 진행한 ‘고대 그리스 리서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사서교사가 학생들에게 제공한 두 가지 자료를 소개한다.

<영어과 - 셰익스피어 리서치 프로젝트 웹 자료>

1. 학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라

- 가. Gale ebook : 셰익스피어, glove theatre로 검색어 넣어 보기(검색 힌트 : Elizabethan World Reference library 의 기사를 찾아볼 것. 정말 좋음) 셰익스피어 연극의 즐거리를 원한다면 Shakespeare for Student에서 연극명으로 검색 후 내용을 검색해보기
- 나. ABC-Clio 데이터베이스 : 세계사-현대 시대를 선택한 후 검색해 보기
- 다. World Book Encyclopedia(World Book Advanced 선택) : 셰익스피어에 대한 글, 연극의 요약(제목으로 검색해 보기) 특정한 연극의 문학적 비판을 원하면 Literature Resource Center를 보라.

2.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지 못한 경우 아래의 웹사이트를 활용하라

- 가. 셰익스피어의 전기 <http://www.bardweb.net/man.html>
- 나. 셰익스피어 온라인 - '전기'와 '연극'을 검색
- 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 원하는 모든 정보가 있음! 전기, 배경, 연극 등등
- 라. 엘리자베스 1세 시대의 연극 - 셰익스피어시대의 영국 연극에 대한 많은 링크를 제공



〈사회과 - 고대 그리스 프로젝트 자료〉

1. 도서자료 : 주제에 맞는 도서자료를 카트에 넣어두었음. 더 많은 자료를 원하면 Nonfiction 구역의 938번에서 찾을 수 있음

2. 데이터베이스(도서관 메인 화면에서 찾을 수 있음)

가. Gale e-books : 자료검색어를 그리스 건축, 그리스 희곡, 펠로폰네소스전쟁,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으로 넣어보라. 학교 밖에서 사용하려면 홈페이지, 패스워드 알려줌

나. ABC-Clio database : 세계 역사-고대, 중세시기를 선택하여 위에서 제안한 검색어를 넣어보라

다. Biography In Context : 이 자료는 인물에 대해 알기 좋은 자료임, 이름으로 검색 후(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스크롤을 내려 기사를 찾으면 됨

라. World Book Encyclopedia(World Book Advanced 선택)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얻은 이미지는 프로젝트에 카피하여도 됨.

3.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지 못한 경우 아래의 웹사이트를 활용하라

가. Ancient Greece - 건축, 연극, 전쟁에 대한 좋은 자료가 많음 (<http://www.ancientgreece.com>)

나. Classics Technology Center - 그리스 비극에 대한 입문 (<http://ablemedia.com/ctcweb/netshots/tragedy.htm>)

다. Theatre Database 특정 고대 그리스 연극, 극작가에 대한 논의자료(<http://www.theatredatabase.com/ancient/>)

라. Ancient-Greece.org - 고대 그리스의 특정 건물에 대한 논의자료(<http://www.ancient-greece.org/architecture.html>)

리서치 프로젝트에서 사서교사는 학교도서관 내 참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어떻게 자료를 접근해야 하는지 자세한 길잡이를 제공한다. 또 다양한 자료 중에서 자신의 프로젝트에 맞는 정보원을 소개하고, 학생들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검색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려준다. 주제 분야와 관련된 도서를 미리 북카트에 넣어두어 학생이 접근하기 편하게 하고, 과제를 해결할 때 이용하면 좋은 데이터베이스와 웹사이트를 미리 선정하여 학생들이 쉽고 정확한 정보를 얻게 도와주는 것이다.

IV. 한국의 리서치 프로젝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미국 학교도서관 탐방 후 필자는 중국어교사와 협력하여 프로젝트수업을 진행해보기로 하였다. ‘중국문화프로젝트’는 발표자 1인 혹은 2인이 자신이 탐구하고 싶은 중국에 관한 주제에 대해 프리젠테이션하는 수업이다. 협의의 내용은 크게 교과교사와 사서교사의 역할분담(수업의 방법), 평가, 활용자료의 범위, 수업시기 등이었다. 중국어교사는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흐름과 주제선정에 대한 교육을 맡고, 사서교사는 자료 찾는 법, 인용법 등 정보활용교육을 맡기로 하였다. 특히 중국어교사는 학생들의 인터넷 짜깁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서자료, 신문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방법과 참고문헌 및 출처방법에 대해 자세히 교육해줄 것을 원했다. 교과교사와 사서교사가 협의를 통해 얻어진 역할은 다음과 같다.

- 1단계 : 개별 탐구주제 설정 (교과교사)
- 2단계 : 탐구주제에 대한 해결방법 (교과교사+사서교사) : 필요한 정보원 모색
- 3단계 : 탐구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활용교육 실시 (사서교사)
- 4단계 : 학생들이 수행한 탐구주제에 대한 평가 (교과교사+사서교사)

특히 교과교사와의 협의 후에 ‘정보의 길잡이(패스파인더)’를 만든다. 정보의 길잡이란 어떤 주제에 대한 정보를 찾는 지도를 말한다. 정보의 길잡이를 만들면 학생들이 결과물을 도출하기까지의 과정을 교사가 미리 알아볼 수 있고, 학생들도 쉽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정보의 길잡이는 주제선정에 필요한 키워드, 다양한 참고정보원의 종류 및 위치, 검색방법 등으로 이루어지며 정해진 내용과 형식은 없으니 자유롭게 작성해도 된다.

〈중국문화 프로젝트 정보길잡이〉

- ◎ 주제 중국의 사회, 문화, 역사 등 전 범위
- ◎ 관련 키워드 중국, 중국인, 한류, 소수민족, 음식, 차, 혼례, 의복, 유적지, 사회문제, 관광지, 마오쩌둥 등등

◎ 참고정보원

1. 단행본자료

중국문화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료를 도서관에 모아두었음. 좀 더 많은 도서를 알고 싶다면 309.112(중국사회문화), 320.912(중국경제), 912(중국역사) 섹션을 참고하기 바람

2. 웹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엔진

- 가. 동성고등학교 학교도서관 (reading.ssem.or.kr)
 - 본교에 소장되어 있는 16,000권의 단행본, 연속간행물, 비도서자료 검색 가능
- 나. 정독도서관(http://dlib.sen.go.kr/dlib_index.jsp)
 - 본교에서 가장 가까운 공공도서관으로 회원으로 가입하면 단행본, 비도서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KISS 전자 저널 구독이 가능
- 다. KINDS(www.kinds.or.kr)
 - 한국언론연구원이 구축한 언론전문종합 DB
 - 전국종합일간신문, 경제신문, TV뉴스, 시사잡지의 통합검색 가능
- 라. DBpia(www.dbpia.co.kr)
 - 누리미디어가 교보문고와 함께 제공하는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
 - 학위논문, 학술지 논문, 전문잡지, 연구보고 이용 가능, 자료의 갱신과 추가가 계속됨
 - ID: ds2011 PW: ehtjrhks(도서관 영타)
- 마. 국가지식포털(www.knowledge.go.kr)
 - 각 기관별로 전산화된 국가지식자료를 통합 검색하여 제공함으로써 모든 기관과 국민이 국가지식정보자원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바. Google(www.google.co.kr)
 - 글로벌 검색이 가능한 검색엔진. 번역기능이 있어 해외의 전문적 자료 수집 가능

3. 웹사이트

- 가. 주한중국문화원(<http://www.cccseoul.org/>)
 - 중국문화에 대한 자료탐색
- 나. 온라인 중국정보 온bao(<http://www.onbao.com/>)
 - 중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뉴스 검색

V. 중국문화프로젝트 진행하기

‘중국문화프로젝트’는 중간평가를 기준으로 주제선정 및 주제탐구를 위해 필요한 자료검색, 참고문헌 적기와 파워포인트 작성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그 이후에는 약 3차에 걸쳐 학생들의 개별발표를 실시하였다.

전체적인 중국문화프로젝트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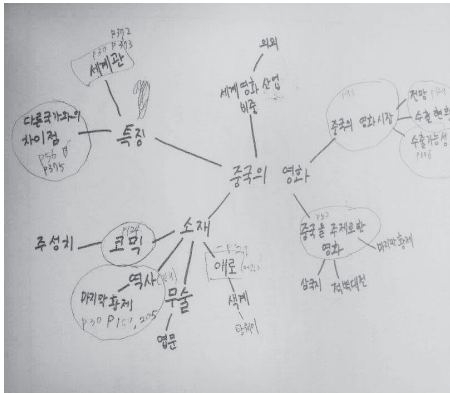
〈표1〉 중국문화프로젝트 일정

일 시	수업내용	대 상	장 소
2011년 10월 13일~14일 (1차 협력수업)	수업의 성격, 기간, 평가방법	중국어교사	도서관
	주제 선정(개념도 그리기), 정보의 길잡이 제공	사서교사	
2011년 10월 14일~18일 (2차 협력수업)	도서 검색 (도서자료 및 필요한 부분 적기)	사서교사	도서관
2011년 10월 18일~20일 (3차 협력수업)	온라인 자료 검색 (검색엔진, 신문, 논문데이터베이스)	사서교사	정보검색실
2011년 11월 1일	중간평가(개념도, 요약, 저널)	중국어교사 사서교사	도서관
2011년 11월 2일~4일 (4차 협력수업)	참고문헌 적기 및 PPT 만들기	사서교사	정보검색실
2011년 11월 14일	최종보고서 및 PPT 완성	중국어교사 사서교사	
2011년 11월 21일~12월6일	프로젝트 발표	학생	도서관
2011년 12월 9일	프로젝트 평가	중국어교사 사서교사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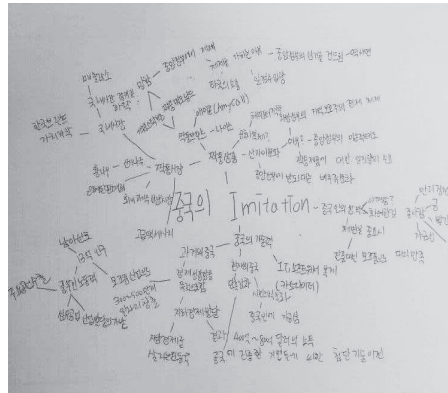
1. 1차 협력수업 : 과제설명 및 주제설정

첫 시간에는 프로젝트의 개괄적인 설명과 평가방법, 주제 선정을 하는 활동을 하였다. 중국어교사는 중국문화프로젝트의 목적과 흐름, 평가내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해결하는 과제를 많이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과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 교과교사와 사서교사는 중국문화프로젝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목적을 각각 이야기하여 학생들이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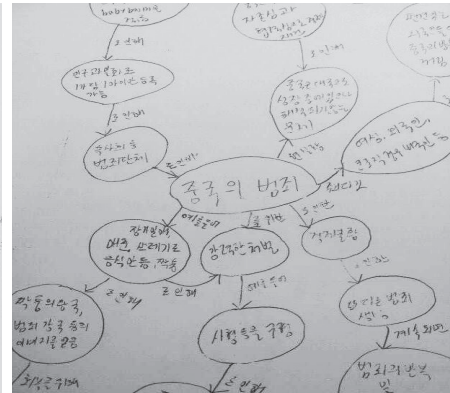
학생들이 선정한 주제로는 정보길잡이에 제시된 중국의 음식, 영화, 산자이문화 외에도 바사족, 한국과 중국의 사군자, 경극, 신화, 현대미술, 중국지역별 성격, 범죄와 처벌 등 재미 있고 다양한 것들이 많았다.



중국의 영화산업



중국의 짝퉁문화



중국의 범죄

[그림1] 개념도의 예 - 학생 활동

2. 2차 협력수업 : 도서검색 방법 및 필요한 도서자료 요약하기

2차와 3차 협력수업에서는 다양한 정보원의 종류를 알아보고 주제에 맞는 정보원을 탐색하는 단계이다. 학생들이 심리적 부담감을 덜고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규 수업시간 내에 정보를 찾아 조직할 수 있도록 하였다.

2차 협력수업에서는 자신의 탐구주제에 맞는 도서자료를

검색하고, 찾은 도서자료 중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요약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시간에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도서자료를 책수레에서 찾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자료를 가져올 수 있도록 미리 공지하였다. 학생들은 이 시간에 자신이 발표할 주제에 맞는 도서를 훑어보고 발표과정에 따른 내용의 페이지 쪽수와 간략한 내용요약을 하였다.

학생243	중국문화 발표	중
작성일자	2016. 10. 15	중
서지사항	지문의 서명, 출판사, 발행연도, 페이지	중
노트의 소주제	중국의 영화산업	중
노트 내용	영화의 종류, 영화의 제작, 영화의 유통, 영화의 감상, 영화의 비평, 영화의 연구, 영화의 교육, 영화의 산업, 영화의 문화, 영화의 사회, 영화의 정치, 영화의 경제, 영화의 기술, 영화의 예술, 영화의 철학, 영화의 종교, 영화의 언어, 영화의 문자, 영화의 문학, 영화의 음악, 영화의 미술, 영화의 요리, 영화의 의복, 영화의 주거, 영화의 교통, 영화의 통신, 영화의 의료, 영화의 농업, 영화의 산업, 영화의 서비스, 영화의 무역, 영화의 외교, 영화의 군사, 영화의 경찰, 영화의 소방, 영화의 환경, 영화의 기후, 영화의 날씨, 영화의 자연, 영화의 동물, 영화의 식물, 영화의 생물, 영화의 화학, 영화의 물리, 영화의 수학, 영화의 통계, 영화의 언어학, 영화의 철학, 영화의 종교, 영화의 예술, 영화의 과학, 영화의 기술	중
아이디어	(위의 정보와 내 생각과의 연결)	중

중국의 영화산업

학생243	중국문화 발표	중
작성일자	2016. 10. 15	중
서지사항	지문의 서명, 출판사, 발행연도, 페이지	중
노트의 소주제	중국의 짝퉁문화	중
노트 내용	중국의 역사, 중국의 지리, 중국의 정치, 중국의 경제, 중국의 사회, 중국의 문화, 중국의 예술, 중국의 과학, 중국의 기술, 중국의 철학, 중국의 종교, 중국의 언어, 중국의 문자, 중국의 문학, 중국의 음악, 중국의 미술, 중국의 요리, 중국의 의복, 중국의 주거, 중국의 교통, 중국의 통신, 중국의 의료, 중국의 농업, 중국의 산업, 중국의 서비스, 중국의 무역, 중국의 외교, 중국의 군사, 중국의 경찰, 중국의 소방, 중국의 환경, 중국의 기후, 중국의 날씨, 중국의 자연, 중국의 동물, 중국의 식물, 중국의 생물, 중국의 화학, 중국의 물리, 중국의 수학, 중국의 통계, 중국의 언어학, 중국의 철학, 중국의 종교, 중국의 예술, 중국의 과학, 중국의 기술	중
아이디어	(위의 정보와 내 생각과의 연결)	중

중국의 짝퉁문화

학생243	중국문화 발표	중
작성일자	2016. 10. 15	중
서지사항	지문의 서명, 출판사, 발행연도, 페이지	중
노트의 소주제	중국의 범죄	중
노트 내용	중국의 범죄의 원인, 중국의 범죄의 유형, 중국의 범죄의 피해, 중국의 범죄의 예방, 중국의 범죄의 처벌, 중국의 범죄의 연구, 중국의 범죄의 교육, 중국의 범죄의 산업, 중국의 범죄의 문화, 중국의 범죄의 사회, 중국의 범죄의 정치, 중국의 범죄의 경제, 중국의 범죄의 기술, 중국의 범죄의 예술, 중국의 범죄의 철학, 중국의 범죄의 종교, 중국의 범죄의 언어, 중국의 범죄의 문자, 중국의 범죄의 문학, 중국의 범죄의 음악, 중국의 범죄의 미술, 중국의 범죄의 요리, 중국의 범죄의 의복, 중국의 범죄의 주거, 중국의 범죄의 교통, 중국의 범죄의 통신, 중국의 범죄의 의료, 중국의 범죄의 농업, 중국의 범죄의 산업, 중국의 범죄의 서비스, 중국의 범죄의 무역, 중국의 범죄의 외교, 중국의 범죄의 군사, 중국의 범죄의 경찰, 중국의 범죄의 소방, 중국의 범죄의 환경, 중국의 범죄의 기후, 중국의 범죄의 날씨, 중국의 범죄의 자연, 중국의 범죄의 동물, 중국의 범죄의 식물, 중국의 범죄의 생물, 중국의 범죄의 화학, 중국의 범죄의 물리, 중국의 범죄의 수학, 중국의 범죄의 통계, 중국의 범죄의 언어학, 중국의 범죄의 철학, 중국의 범죄의 종교, 중국의 범죄의 예술, 중국의 범죄의 과학, 중국의 범죄의 기술	중
아이디어	(위의 정보와 내 생각과의 연결)	중

중국의 범죄

[그림2] 도서자료 요약하기 - 학생활동

3. 3차 협력수업 : 온라인 정보검색하기 (검색엔진, 신문, 논문데이터베이스)

3차 협력수업에서는 자신이 탐색하고자 하는 주제를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정보원의 소개와 실습을 겸하는 시간이다. 학생들은 과제를 해결할 때 포털사이트를 통한 검색과 지식인을 사용하는 것이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먼저 온라인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보원의 종류와 검색방법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필요했다. 특히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포털사이트의 경우 단순검색이 아닌 고급검색을 활용하면 좀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찾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학생들은 검색창에 단순 키워드만을 넣어 검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고급검색 및 상세 옵션 등을 알려주자 놀라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중국문화와 관련한 홈페이지, 정기간행물 및 신문기사데이터베이스, 고급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학술논문데이터베이스를 알려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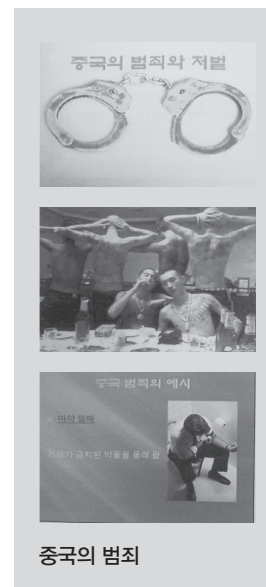
4. 4차 협력수업 : 참고문헌 적기 및 PPT 만들기

이제까지 진행된 정보활용교육 가운데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다. ‘긐어 붙이기’에 길들여진 학생들에게 저작권법이나 참고문헌 적는 교육은 익숙하지 않았던 것이다. 표절의 위험성과 자신이 찾은 자료를 올바르게 가공하여 결과물로 재창조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도서자료, 인터넷 검색자료, 신문기사 자료의 참고문헌 적는 법을 설명하고 결과물에 첨부하도록 하였다. 나중에 결과물을 받고 나서 확인하니 참고문헌을 제대로 적는 학생이 많지 않았다. 참고문헌 적는 법과 실습을 동시에 진행했다면 좀 더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5. 프로젝트 발표하기(학생)

발표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은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발표의 수준은 인터넷 자료를 짜깁기한 수준부터 대학교 수준에 이르기까지 편차가 매우 컸다. 매 발표를 마칠 때마다 중국어교사는 프로젝트의 내용에 대해 정리해주었다.



[그림3] 프로젝트 결과물 - 학생 활동


6. 프로젝트 평가하기(교과교사 +사서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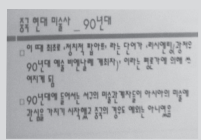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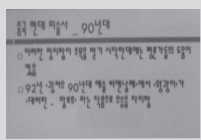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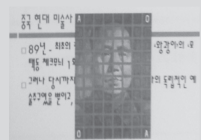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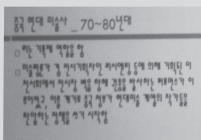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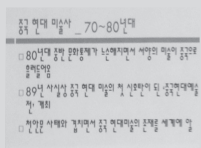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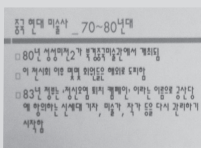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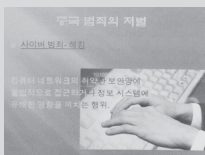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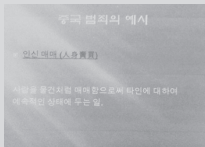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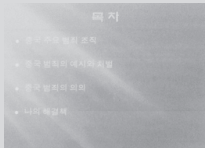
프로젝트의 평가는 교과교사와 사서교사가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기말고사 수행평가 20점을 활동(5점), 검색 및 출처(5점), 표현(5점), 발표(5점)의 네 부분으로 구분하여 채점하였다.

활동부분은 수업시간에 했던 활동지(개념도, 도서요약, 정보저널)를 검사하였다. 검색 및 출처에는 단행본(1권), 인터넷자료(검색엔진, 기사검색, DB 포함 2건), 사진(1장) 등 다양한 정보원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출처를 기술했는지 평가하였다. 이 부분은 사서교사가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한 부분이기도 하다. 표현은 결과물의 시각적인 효과, 흥미유발, 분량, 교육적 효과가 적절히 포함되었는가를 보았고 발표의 태도와 내용숙지의 여부도 체크하였다. 학생들의 발표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자기평가와 동료평가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수업진도에 따른 시간 부족)이 있어 실현하지는 못하였다.

Ⅵ. 학교도서관은 학교의 심장이다

미국의 쉐틀리고등학교에서는 다양한 교과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다. 학교도서관은 학교의 교육과정을 자연스럽게 뒷받침하는 진정한 배움의 공간이고 학교의 심장이었다.

우리의 학교도서관은 아직까지 휴식의 공간, 취미독서의 공간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독서는 ‘공부’가 아닌 ‘취미’일 뿐이다. 재미로 읽는 독서가 아닌 교육과정 속에 녹아 있는 독서는 다양한 교과와의 협력을 통한 탐구수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에서 도서관 협력수업이 불가능하다고 한탄하기보다 현 상황에 맞는 다양한 수업모델의 개발 및 도서관의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현대미술

World Education



2. 중국 정부, '교육공평' 위해 학교 간 격차 좁히기 '안간힘'

글
•
류경숙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치담당관실 국제협력 주무관

I. 들어가면서

중국은 개혁개방 30여 년 동안 교육방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2011년까지 중국은 취학전교육에서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주어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하는 현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많은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교육개혁과 발전, 경제사회 발전이 대중의 요구와 기대에 미치지 못해 교육공평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는 절대 다수 국민들의 이익과 연관되어 있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과도 연계되어 있다. 당의 제17대 회의 중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비록 농촌에서 전면적으로 의무교육이 무료로 실시되었지만 교육발전의 불균형은 교육방면에서 매우 불공평한 관계가 형성되어 대중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익에는 여전히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 것은 교육공평의 문제가 중국에서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현재 교육공평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것은 사회발전이 새로운 역사 단계에 진입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교육공평이 인생의 시발점이고 다른 방면으로는 도시와 농촌의 이원구조¹⁾ 및 우수자원의 과도한 집중으로 교육이 도시와 농촌, 지촌과의 학교 간 차이를 분명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교육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것이 모두의 관심이자 교육 관련 방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놓여 있는 엄중한 도전이기도 하다.

중국의 많은 도시에서 초·중·고 학교 선택문제는 매우 보편적인 문제이다. 자신의 자녀를 유명하고 교육자원이 비교적 풍부한 학교로 보내기 위해 매년 수천수만의 학부모가 동분서주하고 있고, 일부 학부모는 학교선택에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좋은 학교를 선택하기 위해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각종 각양의 ‘반(班)’에 참가하여 유치원 교육이 ‘초등학교 교육으로’, 초등학교 교육이 ‘중학교 교육’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년간 금지하였으나 금지되지 않고, 치유하려 하나 치유되지 않는 교육영역의 일명 ‘난치병’ 영역이 되어 버렸다. 위엔젠구어(袁振國) 중국교육과학연구원 원장은 학교선택의 문제에 대해 “학교 간의 균형은 현실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으며, 현재는 확실히 학교 간의 차이가 과도하게 나타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자원분배가 과도하게 일부분의 학교에 집중되어 있고, 일부 지방에서의 정책은 ‘마태효과’를 강화하여 더 좋은 학교는 더 좋게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감독기관은 학교선택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이 부족하다”²⁾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첫째, 의무교육의 건강한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둘째, 질량에서 차이가 있는 학교 자체의 생존에도 문제가 된다. 만약 ‘좋은 학교’ 선택이 문제가 된다면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선택’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교통, 주거, 취업 등 사회문제가 훨씬 더 가중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양국의 지리적 거리만큼 정서적으로 보다 친밀한 관계에

있는 중국 정부의 노력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공평 문제 해결에 상당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본다.

II. 교육 불공평의 원인

1. 역사적 원인

중국 건국 초기부터 ‘문화혁명’ 이전까지, 중국은 ‘빈궁하고 문화·과학수준이 낮은 국가’라는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정치, 경제, 교육과학기술 등 여러 방면에서 전면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전국 각지의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일부의 ‘중점학교’를 설립하고, 여기에서 얻은 경험이나 성과를 전역으로 확대하여, 일정 기간 내에 시범과 추진동력을 일으켰다. 그러나 10년간의 동란으로 국가는 중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고, 사회 혼란이 그칠 줄 모르게 되었으며, 경제가 붕괴하기 직전에 이르러 일부 방침과 정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1978년 1월 국무원에서 교육부로 전달한 ‘일부 중점 중·고등학교의 시행방안 통지에 관하여’가 ‘중점학교’의 존재와 발전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는 계기를 마



1) 중국의 도시와 농촌간의 교육차이는 호적제도를 기초로 하는 도시와 농촌의 2원 구조가 도시와 농촌의 교육 차이를 형성하는 제도적 근원이 되었다.
2) 专题, 袁振国 教育公平亟需好“药方”, 谷胜男.



련해 주었다. 이는 당시 사회발전에서 직면한 새로운 임무이기도 하다. 기초교육(의무교육)을 중점 발전전략으로 실행한 것은 중국의 특정시대의 특수 요구에서 취해진 특수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2. 이념적 원인

의무교육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중점'과 '일반'간의 구별이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이다. '중점학교'는 객관적인 원인이 있으나 문제의 관건은 어떤 의미에서 사물의 존재가 일단 '습관'으로 형성되면 바로 '세력'이 된다는 데 있다. '중점학교'의 발전은 이미 몇 십 여년이나 계속되었으며 중국인의 뇌리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 '중점학교'가 이미 기초교육의 발전에 과도하리만큼 영향력을 끼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장기적으로 실시된 '중점학교'가 조성한 '양극화'가 현재 실시하는 교육 균형에 알게 모르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쳐 그의 존재가 교육공평에 엄중한 장애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느 전문학자가 북경의 '중점학교'와 '비중점학교'에 대해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였는데, 그 중 수도사대부속중·고등학교

와 고정중·고등학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교적 상세한 조사를 한 것이 있다.³⁾

첫째, 하드웨어 설비이다. 수도사대부속중·고등학교는 농구관, 천문대, 과학관 및 학교방송국 등 기본적으로 학교설립 조건에 필요한 시설 모두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고정중·고등학교는 최소한의 학교설립 조건에 필요한 기본시설만 보유하고 있다.

둘째, 교사의 배정이다. 두 학교에서 수업하는 교사는 모두 40여 명으로, 그 중 수도사대부속중·고등학교는 고급교사가 20여명, 시급 골간교사는 10여명이다. 반면, 고정중·고등학교는 고급교사가 10여명이고 시급 골간교사가 2명이다. 수도사대부속중·고등학교의 교사 학력은 최소한 모두 석사 이상의 학력에 박사도 있으며, 1명의 박사 후 교사도 있다. 또한 외국 국적 교사는 중학교에 영어, 불어, 독어 등 3개 외국어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고정중·고등학교의 교사는 본과 출신들이며, 골간교사가 다른 학교로 이동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고, 외국 국적 교사는 없으며 다만 영어반만 개설하고 있다.

셋째, 학생 재원이다. 수도사대부속중·고등학교는 주로 각 초등학교에서 추천한 우수한 학생 및 농구와 음악 방면의 특기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반면 고정중·고등학교는 학교장의 지도 아래 인접학생들에게 홍보하여 2009년까지 5개 중학교에서 1개 반을 모집하였으나 매우 뛰어난 학생은 없었으며, 우수한 학생은 다른 학교로 가버렸다. 이런 현상에 대해 혹자는 말하기를 중점학교는 학생들이 너무 많이 몰려 학교가 고민을 하고, 일반학교는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어 학교가 머리가 하얗게 되어 버렸다고 한다.

넷째, 학생 진학률이다. 2009년 수도사대부속중·고등학교는 100여 명의 학생 전부가 시험을 보지 않고, 본교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매년 대부분의 학생들이 청화대학교, 북

3) 洪世久, 教育公平是教育科学发展的必然要求, 大理学院学报, 第10卷第1期 2011年1月.

경대학교, 인민대학교 등 100% 중점 대학에 입학하고 있다. 반면 고정중·고등학교 110명 학생 중 30여 명은 본교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고, 시급시범고등학교에는 단지 7명만 입학하였다.

다섯째, 교육투자이다. 수도사대부속중·고등학교는 정부에서 매년 1~2천만 원의 재정교부금을 지원 받고 있지만 고정중·고등학교는 정부에서 필요한 일정 부분만 지원받고 있다. 정부 재정지원 이외 중점학교는 여러 방면에서 자금을 받고 있고 있다. 예를 들면, 건물시설비, 학부모 후원비, 학교선택 비용 등이 있으나, 이러한 자금이 어떻게 학교로 유입되고 있는지 바깥사람들은 추측하기 어렵다.⁴⁾

2008년 북경중관촌 소재 어느 중점 초등학교의 자금이 1억 원을 넘겼다고 하는 것은 중점학교와 일반학교 간의 차이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으며, 이는 전국 각 지역의 학교 간의 차이가 적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다.

3. 경제적 원인

교육 불균형 상황은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경제적 원인이 중요 요소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성 혹은 현에서의 교육 중시도와 지도자의 성향에 따라 정부지원이 다르다.

전국적으로, 교육을 중시하고 지명도가 있는 광둥 쓰파이쩐(广东 石排镇)과 섬서 우치시엔(陕西 吴起县)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광둥 쓰파이쩐(广东 石排镇) 주민은 유치원에서부터 박사과정까지의 25년 동안 돈을 내지 않고 교육을 받고 있으며, 쓰파이쩐(石排镇)은 교육에 매년 1,600만원의 재정지출을 증액하고 있다. 우치시엔(吴起县)은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돈을 내지 않고 교육을 받고 있으며, 2009년 중학교 진학률, 일반학교 보급률 및 유치원 입학률이 각



각 99.47%, 96.12%, 96.45%에 도달한다. 또한 청화대학교와 북경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10만원에서 2,000원 등 서로 다른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석유로 부자가 된 우치시엔(吴起县) 주민은 13만 명에 이르고, 2009년 GDP가 81.87억 원, 1인당 평균 62,976.9원, 총 수입 27.59억 원, 1인당 평균 21,223원이다.⁵⁾ 광둥 쓰파이쩐(广东 石排镇)과 섬서 우치시엔(陕西 吴起县)의 두 지방정부 및 그와 관련된 지도자는 설령 다른 지출을 줄더라도 교육 분야 만큼은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상기 내용은 경제의 중요성에 대해 첫째, 경제발전을 떠나서 GDP는 단지 허상에 지나지 않고 둘째,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경제발전을 꾀하고자 하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전시 공정 등을 적게 해야 하며 셋째, 정부의 교육예산에 대한 통일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교육의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없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4. 이익적 원인

중점학교는 수년 간 적지 않은 지역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각종 특혜를 받아왔다. 첫째, 최고의 시설 구비. 중점학교는

4) 刘力, 李超颖, 路超, 重点中学存在有碍义务教育公平, 2009年11月.
5) 21世纪经济报道, 陕西吴起免费教育模式揭秘: 富县如何造富民, 2010年7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방면의 시설설비 수량, 질량 모두가 일반학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좋다. 둘째, 교사 우수. 향진(乡镇)—현시(县市)—주시(州市)—성(省)의 교사는 모두 우수하고, 현시(县市)등에서 배출한 몇 명의 우수 교사와 골간교사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은 바깥세상의 일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으나 마음 속으로는 모두 도시로 나가기를 바라고 있다. 셋째, 학생 우수. 중점학교는 시험선발, 우수학생 추천 등의 방법을 통해 최고로 우수한 학생을 자기 학교로 오게 한다. 넷째, 대우 다름. ① 경제적 측면에서 중점학교는 중점투자, 각종 후원금과 학교선택 비용 등으로 인해 교사의 대우 또한 일반학교와는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 ② 각종 혜택에서 중점학교의 교사는 우수교사 등 일반학교보다 수량이 훨씬 더 많으며 중점학교의 지도자 대부분이 검직을 하고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 등 각종 혜택을 받고 있다. 중점학교 학생 중 일부는 돈과 권력을 바꾸고 있다. 어떤 전문가는 일부 중점학교의 배후에는 이미 얽히고 설킨 이익집단이 형성되어 있고, 강력한 집단의 비호를 받고 있어 교육공평을 매우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학교의 설립 수준을 높여 학교 간의 차이를 줄여 9년 의무교육에서 최상의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면 과제이다.

상술한 네 가지 원인이 중국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대동소이하며, 교육방면에서 나타난 일종의 폐단

으로, 특히 의무교육단계에서 교육 불공평을 만든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Ⅲ. 교육공평을 통한 학교 간 격차 좁히기 정책과 사례 소개

1. 정책

2005년 5월, 교육부가 공포한 '한층 더 진보한 의무교육 균형발전의 약간의 의견에 관하여(关于进一步推进义务教育均衡发展的若干意见)' (이하 의견(意见))를 보면 중국정부가 학교 간의 균형발전과 교육공평 실현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견(意见)'에서 각급 교육행정부문은 의무교육균형발전을 충분히 인지하고 사회주의 화해사회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향후 의무교육단계에서 학교마다 학교설립을 좋게 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에 관심을 가지도록 이를 최우선적인 위치에 놓고 정책을 실현하며, 도시와 농촌, 지역 간, 학교 간의 교육차이를 넓히는 것을 유효하게 억제하고 점진적으로 의무교육의 균형발전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의견(意见)'에서 각급 교육행정부문은 의무교육균형발전의 추진을 향후 교육정책의 출발점과 중착점으로 삼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에서 의무교육균형발전의 중대공정과 항목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방정부와 교육행정부문의 책임을 한층 더 강화하여 지역을 중점으로 현(市, 地区)지역 내 의무교육 균형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였다. '의견(意见)'에서 각 지역 의무교육균형발전을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현급정부는 지역 내 교사자원의 총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내 골간교사가 순환하면서 수업하고, 학과 교사가 부

족한 농촌학교에 도시학교 교사가 순회하여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고, 농촌과 도시 여건에 부합하는 재정을 지원하며, 농촌교사의 연수를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유효한 기제를 건립하고, 매 학교의 교육교수질량을 제고하도록 노력한다. 의무교육 교수질량 측정 평가체계를 교수지도체계를 점진적으로 규범화, 과학화, 제도화하여 모든 학교가 의무교육 교육과정 방안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보장하여 교수기본요구에 도달하도록 한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이 어려운 학생에 대해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주는 각종 조치를 취하여 학생들이 함께 발전하도록 한다.

셋째, 성급교육행정부문은 국가의 유관 규정과 현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해당 지역 의무교육단계 학교설립조건을 기본요구를 완성시키는 것이다. 의무교육단계에서 공립학교는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입학하는 근거리 배정을 견지하고, 중점 학교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여 의무교육단계에서 학교선택의 바람을 유효하고 효과 있게 억제하도록 한다.

또한 각 현(市, 地区)은 본지의 학교설립조건에 대해 기본



설비가 낙후된 학교에 대하여 기한을 변경하여 집중적으로 낙후된 학교를 개조해 직할시내 낙후된 학교를 점진적이고 빠른 속도로 줄여나가도록 하는 동시에 학교 간의 설립조건을 차이를 줄여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공공교육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신축과 증축, 개축을 할 때 학생 재원의 부족, 설립학교의 차이, 교육질량이 낮은 학교에 대하여는 적당하게 조정·취소하여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향진(乡镇), 현성(县城) 및 주변 학교의 과밀학급을 해결하도록 하였다.

2. 사례 소개

2011년 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중국 교육부 기초교육부서에서는 대도시의 학교선택 현상을 해소하고, 한층 더 의무교육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직할시, 계획도시, 성(地区)⁶⁾에서 ‘주변의 좋은 학교’⁷⁾를 소개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가. ‘주변의 좋은 학교’ 소개 취지

「의무교육법」에 의무교육은 시험을 치르지 않고 인근 학교에 배정하는 규정이 있고, 교육규율에서 학령기에 있는 아동



6) 북경, 천진, 상해, 청도, 시하먼, 남경, 곤명, 무한, 하얼빈 등
7) <http://www.moe.gov.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moe/s5543/list.html>



들의 심신 성장의 특징에 맞추어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들이 제일 좋은 학교에서 제일 좋은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것은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정당한 요구이다. 만약 이 두 조건이 완전하게 일치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학교 간의 차이는 존재하므로 학교선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현상은 주로 직할시, 계획도시와 일부 성(지역)의 도시에 집중되고 있다. 학교선택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한층 더의 무교육에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기초가 될 것이며, 또한 지역 내 학교 간의 차이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학교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학부모들에게 학교선택 비용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으로 다스려야 한다. 이러한 소개활동을 통해 학부모들로 하여금 주변에 좋은 학교가 있음을 알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나. '주변의 좋은 학교' 소개 의미

이것은 '무엇이 좋은 학교'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어떤 조사에 따르면 어떤 학부모의 마음 속에 '좋은 학교'는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으면서 유명한 학교이고, 어떤 학부모는 진학

률이 높은 학교이고, 어떤 학부모는 교육시설 및 설비가 좋고 교사 수준이 높은 학교이고, 어떤 학부모는 학생과 학부모의 소양이 좋은 학교 등이다. 이 모든 것을 구비하는 학교가 가장 좋은 학교일 수는 있겠지만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 많은 교육 전문가들은 합리적인 교육이 최고로 좋은 교육이고, 합리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가 바로 좋은 학교로 생각한다.

사람은 저마다 장단점이 있다는 속담이 있다. 모든 학교가 모든 학생에 적합할 수는 없겠지만 자신의 특징과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에서 공부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학부모는 많은 학교의 특색과 장점에 대해 전부 알지는 못할 것이고 사회 또한 이 모두를 알려 주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이 거주하는 인근에 적합한 좋은 학교를 소개해 줄 필요가 있으며, 이는 학생들이 근거리에 있는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 '학생을 위한 학교선택'의 책임이 학부모에게만 있지 않고 학교당국 등 여러 관계기관이 일부 역할을 분담하고 있음을 알려주어 '학부모가 맹목적으로 학교선택을 하지 않도록' 교량역할을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주변의 좋은 학교' 구체적 조건

'주변의 좋은 학교'는 주로 의무교육단계의 시 지역에 있는 공립중학교로 수량은 각 지역에서 결정한다. 구체적인 조건은 첫째, 기본적으로 학교선택에 문제가 없는 학교이고 둘째, 설립특색이 분명하고, 타 학교와는 다른 비전을 제시하는 학교여야 한다. 예를 들면, 학생의 잠재력을 계발하여 발전을 가져올 수 있게 하는 학교, 교사가 학생들의 가정을 방문하는 학교, 한 학급에 한 명의 반 담임 이외에 또 다른 담임이 있는 학교 등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변의 좋은 학교'의 우수한 점을 발굴하고 홍보하여 교육 본래의 의미와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라. '주변의 좋은 학교' 소개방식

직할시, 계획도시와 일부 성(지역) 도시교육국(교육위원회)에서 현지 실정을 반영하여 각 성(시)에서 주요 언론매체와 한 개 혹은 두 개의 성(도시) 언론매체에 '주변의 좋은 학교'라는 칼럼란을 만들어 관련 학교를 소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주변의 좋은 학교'를 추천하여 모두 함께 양호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하여 학교 간의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IV. 맺는 말

중국은 세계의 어떤 국가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의무교육단계에서 교육 불균형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교육자원 공급의 부족과 교육자원 배치의 불균형이 교육의 불공평을 가중시킨 가장 직접적이고 주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2005년 5월, 교육부가 공포한 '한층 더 진보한 의무교육균형발전의 약간의 의견에 관하여'는 각급 교육행정부문이 '교육공평이 사회공평의 초석'임을 분명하게 인지하여 지역중심으로 낙후된 학교시설 개조, 농촌과 도시 간의 교사 교류, 교육교수질량 제고, 농촌과 도시 여건에 부합하는 재정지원 등을 통해 모든 자녀들이 공평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각종 제도와 정책을 수립·실시하였다. 또한 2010년 7월 전국교육회의에서 채택된 '국가중장기교육개혁과발전규획강요(国家中长期教育改革和发展规划纲要)(2010~2020)⁸⁾는 공공교육자원의 공평한 배치제도의 보장 체계를 어떻게 완전하게 구축할 것인가를 좀 더 분명하게 제시한 문건으로, 교육공평이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또한 교육의 불균형은 지

역여건, 학교 간의 차이, 가정환경 등 총체적 산물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수목적 중·고등학교 설립 등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교육 불균형 해소'와 '대학입시의 자율화와 학교의 다양화를 통한 기회제공'이라는 정책결정자의 정치철학에 따라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어 중국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정부는 국정을 고려하여 제도와 교육정책을 수립·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 중에 나타난 교육 불균형을 어떻게 줄여 나가고 있는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과 중국 두 정부 모두가 질 높은 교육제공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공평에서 더 나아가서 사회공평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원한 이상으로, 인류가 추구하는 방향과 목표이며 교육정책의 기본가치인 동시에 사회통합의 기초로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대선을 앞둔 이 시점에 '교육정책'이 중요한 화두가 되어 보다 더 질 높은 교육의 제공과 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개혁'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

8) '공평촉진을 국가기본교육정책으로 삼고, 대중들은 법에 의거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의무교육균형발전을 촉진하여 합리적으로 공공교육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교육공평의 기본 요구이다. 이와 동시에 교육자원배분의 공평화를 강조하여 점진적으로 이를 실현하고 사회공평가치가 교육영역에서 중요하게 체현되도록 한다'는 것이 그 주용 내용이다.

World Education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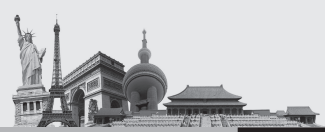
선진국들의 청소년 진로교육 우수사례와 시사점

글
• 김병숙
경기대학교 대학원 직업학과 교수

I. 진로교육의 중요성

직업의 세계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인터넷 기술에 의해 급격한 개편을 한지 30여 년이 되지 않은 지금, 휴대폰의 출현으로 인해 1인 1미디어시대, 1인 1기업시대로 전환하면서 우리를 먹여 살렸던 관료적 기업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실체가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소수가 트위터를 조종하여 여론과 경제를 지배하는 사회로 돌입하고 있다. 이러한 직업세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학교현장에서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009년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진로와 직업' 교과를 선택과목화 하였고, 입학사정관제 도입, 종래의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을 통합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의무적으로 전개, 진로체험 프로그램 도입, 진로진학상담교사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동안 경쟁과 입시의 치열함 속에서 진학에 초점을 맞추어 성장해온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이와 같은 결과를 양산했다



는 자성의 소리가 높은 가운데, 중학교는 고등학교 입학용 자기주도학습전형 준비, 고등학교는 대학교 입학사정관전형 준비 등 또 다르게 변화된 형태의 입시준비 행태가 학교에 부담을 주고 있다. 2011년 OECD 발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지수는 65.98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하였으며, 1위인 스페인에 비해 47점이나 떨어지고 평균인 100점보다 34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행복지수는 주관적인 것으로 '주관적 건강', '학교생활 만족도', '삶의 만족도', '소속감', '주변상황 적응', '외로움' 등 6가지 영역에 대한 응답률을 수치화한 것이다.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은 2009년 64.3점, 지난해 65.1점을 기록해 올해까지 3년 연속 OECD 국가 가운데 주관적 행복지수에서 최하위에 머물렀다.

진로교육은 자기주도적인 학습역량 강화와 진로·적성에 바탕을 둔다. 이는 자기존중감을 바탕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자기를 탐색하여 자신의 이해도를 높이고, 진로정보를 확보하여 미래를 설계할 때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우리나라 민족만이 추구할 수 있는 독창적 진로유산, 가족에서 지원된 진로자원, 자신이 갖고 있는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진로역량 등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학생들이 '나'에 대

한 소중함을 알고, 그 속에 위대함이 있음을 발견하여 자기주도적인 입장에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여 자신 있게 자신의 진로를 선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진로교육의 참 의미이다.

의사결정능력은 21세기에 가장 경쟁력 있는 능력이며,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의사결정능력의 향상을 도모한다면, 자기주도적 학습습관, 진로탐색, 진로계획 등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자기주도적 진로탐색을 위한 의사결정은 학생 개개인의 자기주체성(self-identity)과 자기개념(self-concept)을 향상시켜 생애목표를 갖고 개척할 수 있으므로 학교 내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촉진시키고 일탈적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스스로의 힘을 갖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로교육은 나에게 대한 정확한 평가, 유망한 직업정보 알기, 진로계획하기 등의 학생과 직업을 일치시키는 특성요인이론에 근거한 틀을 유지하고 있다. 20년 후 노동시장에서 활동할 청소년들에게 특성요인의 틀로는 대응하기 어렵다. 이에 본고에서는 해외 진로교육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진로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해외 우수 진로교육 사례¹⁾

1. 미국



미국은 학교중심 진로교육모형(학교와 교사중심의 진로교육 중심축), 고용중심 진로교육모형(지역 내 기업 고용주가 중심축으로 직장체험학습의 장 마련), 가정중심 진로모형(가정에 거주하는 여성, 장년, 성인대상), 주거중심 진로교육모형(불우한 가족 대상) 등으로 진로교육 활성화를 꾀하여 왔으며, 2000년대에는 일반교육과 분리하던 진로교육을 통합교과의 관점으로 확장하였다. 즉, 학습장애 요인까지 진로지도 프로그램 요소로 보고자 하였으며, 학생은 평생학습시대의 소비자가 아니라 학교로부터 배운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부자로서의 전환이 당면 교육의 과제라고 한다.

미국은 학생, 부모, 교사, 상담자, 관리자 등에게 각각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중등과정의 학생들에게 부모, 교사, 상담자, 관리자 등이 학생들이 교육으로부터 의사결정을 도와 주의 깊은 진로계획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이는 의



사결정을 돕는 도구로써 참가하기→학습의 중요성 이해하기→선택기회 탐색하기→평가하기→선택기회 검토하여 실행하기→진로계획 개발 및 의사결정 반영하기 등의 과정을 거친다.

단기간 프로그램(one-day conference)은 중·고등학교 일반 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이며, 수학과 과학에서의 성취가 진로선택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시키고 이 교과와 관련된 다양한 직업이 있음을 인지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효과적인 역할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여학생이 수학에 대한 태도변화를 추구하여, 결국 수학 및 과학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이 여학생들에게 직업선택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직업을 선택하도록 동기와 자신감을 부여한다(최지희, 2000).

2. 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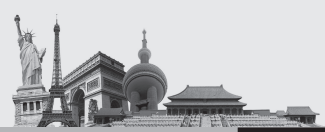
교육고용부의 기본적 진로서비스 목표는

① 청소년들로 하여금 고용, 교육, 훈련에 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객관적

이고 현실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 ② 학교를 졸업하거나 훈련기관을 졸업할 때, 혹은 실직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 ③ 초·중등, 대학생들로 하여금 직업세계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제공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 ④ 기회평등을 촉진시키는 활동 등이다.

민간단체인 위탁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전문 진로상담가(career advisor)들이 지역진로정보센터에서 진로지도 활동을 하거나 학교에 파견되어 학생들과 교사들을 지원한다.

1) 본 내용은 이지연 외(2009), 교육과정과 연계된 진로교육 운영모델 구축Ⅱ, 미국 프랑스 핀란드 덴마크의 교과통합 진로교육,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지연·정윤경(2010), 해외 진로교육 사례: 진로교육관점에서 살펴본 미국 입학사정관제 아일랜드의 진로교육체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임연 외(2008), 영국·뉴질랜드·캐나다·호주의 진로교육,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미석(2000), 중고등학교학생을 위한 진로지도체제 구축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최지희(2000), 최근 5년간 우수학생의 고등교육기관 진학추이 및 향후전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병숙(2007), 직업정보론, 시그마프레스 등의 내용을 참조하였고, 일부 내용은 발췌 또는 요약하였음.



이들은 대학졸업 이상에 해당하는 진로지원의 학위나 해당하는 자격증을 지녀야 한다. 진로상담가는 11학년 학생들에게는 최소한 45분 동안 면접한다. 진로상담가는 학생들과의 라포(rapport)형성과 면접의 목적과 구조를 설명한다. 요약과 검토 기법들이 잘 활용되고 있었고 학생들과 상의하여 11학년 동안 진로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마지막 단계에 집으로 우송해 준다. 보통 진로상담가는 일주일 중 절반은 학교에서 절반은 지역센터에서 진로지도 관련활동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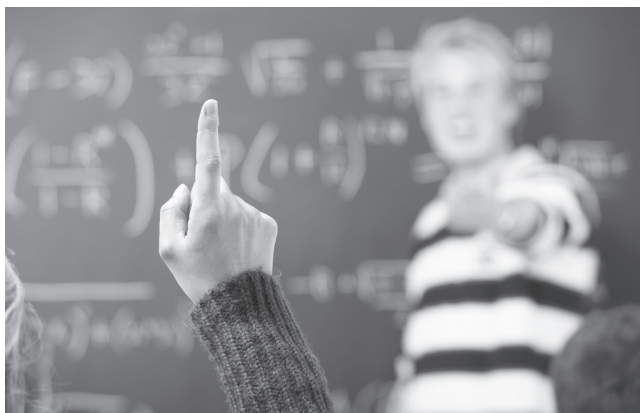
학교 내의 직업지도 프로그램과 지도를 직접적으로 조정하는 책임교사는 진로조정자(career coordinator)인데, 거의 모든 학교에서 진로조정자를 두고 있으며 명칭은 학교에 따라 진로담당부장(head of careers)등이라 일컫으며, 성격 및 사회교육(Personal and Social Education)의 부장교사가 진로조정가가 되기도 한다. 보통 진로조정가의 행정적인 업무는 ① 진로위탁회사와의 연계 ② 진로상담가를 위해 프로그램을 조직하는 일 ③ 진로의 날 행사나 외부 인사들과 인터뷰 등과 같은 이벤트 계획과 조직 ④ 각 학년 교사들에 의해 사용되어질 교사용 자료 패키지 활용 ⑤ 진로정보영역의 유지와 감독 ⑥ 현장체험학습 기회를 배정하는 일 등이 있다. 진로위탁회사의 진로상담가가 방문하여 학교의 진로상담실이나 진로자료실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개인상담이나 집단



상담활동을 한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은 ① 독자적으로 시간표를 가진 진로지도 시간 ② 성격 및 사회교육 내의 진로지도시간을 운영하여 진로의사 결정을 준비하고 진로에 관련된 면담, 현장경험, 이행과정 등은 이와 같은 수업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또한, 진로자료실에 대한 안내를 받기도 한다. ③ 통합활동(integrated)은 진로활동이 교과목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일의 세계와 진로에 관련된 측면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 국가적 교육과정 교과목의 프로그램과 방법, 관점들을 활용할 수 있다. ④ 확대활동(extended activities)은 현장학습이나 개인상담 등이 학교교과시간 이외에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 등이다.

영국의 진로교육은 하나의 교과나 내용체계로 제시되지 않고 진로교육의 목표 및 내용과 밀접한 관련 요소들로 구성된다. 이 요소들은 학생들의 삶 전반에서의 역할과 관련된 개인적·사회적·건강교육, 학생들이 사회에서 효과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는 시민교육, 학생들이 직업과 직장에서 성공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이해를 얻는 일 관련 학습, 학생들의 일상의 재무적 이슈들을 다룰 수 있도록 돕는 기업·개인·재무교육 등을 포함한다(임언 외, 2008).



3. 프랑스



프랑스는 1970년대 실업자 증가로 인해 학교교육과정에서 진로정보 및 진로상담을 통합하여 제공하였으며, 1980년대는 학생들의 학습부진과 중도탈락을 감소시키는데 관심이 있어 개인별 진로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오늘날에 와서 프랑스는 학생들이 평생동안 스스로 진로선택을 하도록 하는 연속성의 원칙, 진로교육 분야에 속하는 모든 참가자와 조직은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돕는데 함께 지원하는 집합성의 원칙, 학교의 진로계획 수립에 유용하고 적절성을 요구하는 응집성의 원칙, 학교와 학교 외의 자원인사들과 협력하는 협력의 원칙 등을 표방한다(이지연, 2008).

교육부의 진로지도 담당은 학교교육실(Direction de l'enseignement scolaire) 내의 진로담당관(Mission de l'orientation)이 관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진로지도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을 수립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프로그램 시책을 추진하는 구심체 역할을 하게 된다. 광역교육청의 진로지도 담당관(service academique des l'information et



de l'orientation: SAIO)은 지역 진로지도 시책을 총괄하게 된다.

진로정보센터는 학교와는 별도의 기관이며, 지방교육청에 의해 운영된다. 사설 진로정보센터를 제외하고 교육부가 관할하고 있는 센터의 수는 전국에 걸쳐 518개소이다. 고등학교 1~3개마다 하나의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셈이다. 이 센터의 역할은 ① 학부모와 학생을 포함하여 모든 방문자들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상담 ② 학교공부, 직업교육, 자격제도, 직업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③ 개별적 상담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적성, 취미, 능력을 파악하게 해주며,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는 방법, 진로계획서 작성 등을 도와주는 것 ④ 지역수준에서의 교육제도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발달을 분석하고 해당 지역 학교와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는 것 등이다.

프랑스 중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학년위원회(Conseils de classe)이다. 이 위원회는 학생들의 진로뿐만 아니라 유급여부도 결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사, 학부모대표, 학생대표 그리고 경우에 따라 진로상담가(conseil



d'orientation Psychologique) 등으로 구성된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학년위원회가 권위적으로 학생들의 진로를 결정하였다.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중학교 4학년 말에 학년위원회에서는 성적표를 근거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도달하였는가를 평가한다. 그 결과는 학부모에게 통지되며, 학부모는 이를 근거로 자녀의 진로를 선택하든가 유급을 요청한다. 학년위원회는 학부모의 요청을 검토하여 학생의 진로를 학교장에게 제안한다. 학부모의 요청과 학년위원회의 심사결과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 것으로 간단하게 과정이 종결된다. 그러나 학년위원회의 심사결과가 학부모의 요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학교장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면접을 신청하여 학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알리고 이에 관해 논의한다. 그 후의 결정권은 학교장에게 있다. 학교장은 학생의 진로 혹은 유급여부를 교사들과 학부모에게 통보한다.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서신을 통해 학생의 능력과 흥미에 근거하여 최종심사결과를 설득한다. 이 모든 과정에도 불구하고 학부모가 학교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8일 이내에 지역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심사기구에 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심사기구는 학교장, 교사, 학부모, 진로상담가, 교육청 장학관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려되어 진로가 확정된다(진미석, 2000).

4. 덴마크



덴마크는 의무교육기간인 초등교육과 전기중등교육기간 동안 진로교육이 교과통합 형태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다.

OECD(2002)는 덴마크에서 이루어지는 단위학교 진로교육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활동을 ① 교육, 직업, 노동시장 입문 주제의 교과통합의무화 ② 학습계획서 작성 의무화 ③ 1~2주 가량의 직업체험 등 3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다. 이는 덴마크의 학교교육법에 제시되어 있는데, 제7조에 의하면, 범교과 통합 필수 주제를 ① 교통안전 ② 보건·성 및 가족교육 ③ 교육, 직업 및 노동시장 입문 등이라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 의하면, 전환시기의 기초직업입문교육에 대해 ① 모든 단위학교는 8~10학년 시기에 산업체 또는 기관에서 단기간의 기초직업입문교육을 제공하고 ② 모든 단위학교는 8~10학년 시기에 이론과 실습이 결합된 형태의 교육을 학교 밖에서 제공해야 함 등을 명시하였다. 제13조에 의하면, 단위학교에서 상담의무에 대해 ① 모든 단위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교육 및 직업에 대한 선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조언과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교육적 상담서비스 제공체제를 갖추어야 하고 ② 교육부는 교육적 상담서비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으로 제정해야 한다 등으로 명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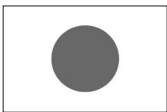
이와 같이 덴마크는 전환시기의 기초직업입문교육이 8~10학년 시기에 제공되며, 이러한 1~2주의 직업체험은 학생들의 진로선택을 위한 일종의 진로체험활동이다. 졸업 후 진학





을 원하는 학생을 위해 직업현장 뿐만 아니라 대학, 전문대학 등에서 이루어지는 1주 정도의 오리엔테이션 활동도 포함된다. 10학년 시기에는 ‘가교(bridge building)’코스가 있으며, 이는 약 4주 이상의 장기간 동안 교육기관에서 체험활동을 포함한다. 특히 덴마크는 진로교육에 대해 강력한 투자를 하고 있다.

5. 일본



일본의 가계를 잇는 직업정신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일본의 진로교육은 체험위주의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한다. 일본에서는 2002년부터 완전 주5일제 수업이 실시됨에 따라, 일본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연중 등교하는 날이 약 200일로 줄어든 반면, 가정에서 보내는 날이 165일이 되어, 가정에서 보내는 날이 많이 증가하였다. 일본은 주5일제 수업에 대해서는 첫째, 학생들이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시간의 비중을 높일 것 둘째, 학생들의 생활에 여유를 줌으로써 주체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을 증가시킬 것 셋째,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상호간에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경험토록 함으로써 생활력을 육성시킬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들의 활동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생활의 이해, 생활기술의 습득을 위해 형집을 이용한 조오리(일본 짚신)만들기, 과일쥬스 만들기 등의 활동을 한다. 세대 간, 연령 간 교류를 위해 할아버지와 같은 고령자들과 함께 옛날 전통놀이를 체험해 본다. 생산·근로 체험을 위해 농장, 목장, 공장 등에서 체험활동을 한다. 자연체험을 위해 동식물의 생태 관찰, 야영 등과 때로는 우주과학에 대한 흥미를 자극하는 활동을 하며, 지역의 자연, 문화, 산업 등에 관한 학습활동을 위해 마을 산책, 문화시설 순회나 지도 만들기 등을 한다. 지역에서 사회참가활동은 환경보호운동, 환경미화운동, 사회복지활동에 참가하며, 교과와 관련된 학습활동은 독서회, 사생회, 합창대회가 있다. 스포츠활동은 야구, 축구, 등산 등이며, 레크리에이션은 게임 대회, 연날리기 대회, 강가에서 놀기 등이 있다. 한편, 국제교류 체험은 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과 교류하고, 지역 단체나 시설 등에서 개최하는 사업에 참가하는 것은 미술관, 박물관, 과학관 등의 특별견학이다. 지역의 기업 등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은 컴퓨터교실이 있다.

이들 분야를 활동단위로 분류해 보면, 개인단위로 활동, 부자, 모자 간·가족단위로 활동, 같은 또래의 친구들끼리(같은 연령, 다른 연령 등) 활동, 지역활동을 위한 그룹(같은 연령,





다른 연령 등) 등 여러 가지 단위가 있다. 학생들의 교외활동의 장소로는 청년의 집, 소년 자연의 집 등의 청소년 교육시설, 공민관, 커뮤니티 센터 등의 사회 교육시설, 체육관, 학교 교정, 빈 교실 등의 학교 시설, 공원,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캠프장 등의 야외교육 시설, 아동관 등의 아동교육 시설,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자연과학관 등을 이용한다.

그 외에도 지역사회와의 협조에 의해 운동장 등의 지역 기업 관련 시설, 신사나 절, 교회 등의 보유시설과 용지를 이용한다. 또한, 활동범위로 나누어 보면, 일상생활권 활동, 여행이나 숙박 등의 광역 생활권 활동, 원격지의 여행을 포함한 활동 등으로 나타났다.

Ⅲ. 외국의 진로교육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OECD의 역량에 대한 DeSeCo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등이 3년 동안 국·내외 생애핵심역량 개념 및 지표체계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리나라 청소년기에 요구되는 역량을 개념



화하고 지표체계(안)을 제시하는 연구였다. OECD의 역량에 대한 DeSeCo 프로젝트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미국 등 12개국의 참여 속에 1997~2003년까지 7년간에 걸쳐 추진되었다. DeSeCo의 핵심역량 하위요소는 ① 도구를 상호적으로 사용하기 ② 이질적인 집단과 상호작용하기 ③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등 3개의 요소로 구성되었다. 진로교육과 관련된 자율적으로 행동하기의 요소는 다원화되고 변화가 급격한 사회에서 개인은 스스로 정체감을 확립하고 목표를 수립하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큰 맥락에서 행동하며 생애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며, 권리와 이익의 한계를 요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3가지 하위요소는 시대적 안목을 갖춘 청소년을 목표로 한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① 패턴이해 ② 체계이해 ③ 행동의 결과인지 ④ 행동선택), 성취력 있는 청소년을 위해 생애목표와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기(① 목표 및 과제 설정 ② 계획 수립 ③ 수행 ④ 평가), 시민의식을 가진 청소년을 위해 권리와 이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하기(① 흥미이해 ② 규칙과 원리이해 ③ 욕구와 권리주장 ④ 대안제시) 등으로 규정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9).

국가별 진로교육 비전을 보면, 뉴질랜드의 경우는 ‘학생들





을 자신감 있고, 서로 연계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평생학습자로 길러낸다'이며 이것이 핵심역량으로 설정되었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단위학교에서 진로교육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상주하고 있으며, 이들이 학교 밖의 전문가집단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체계로 구성되었다(임언 외, 2008).

캐나다는 국가진로발달을 위한 역량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이 청사진에서 생애/일 역량을 보면, 자기관리영역, 학습 및 일 탐색영역, 생애/일 설계 영역 등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캐나다의 특색 있는 진로발달프로그램을 보면, Real Game으로 청소년과 성인의 진로발달을 위해 창조적인 역할극과 시뮬레이션을 포함한 경험적인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 학부모, 지역 내 자원인사들이 참여하며 미래 성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체험위주의 진로지도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등 여러 나라에 보급되어 운영된다(김병숙, 2007). 퀘백주의 경우를 보면, 학교의 민주화를 위해 역량중심 접근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역량이란 학교나 일상생활에서 획득한 여러 형태의 학습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9).

호주도 진로교육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역량을 의무교육동안 직업과 관련된 학습, 범교과 관점에서의 진로교육을 통합, 융통성 있는 원칙, 진로교육체계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 훌륭한

한 사례 등을 진로교육의 목표로 보았다(임언 등, 2008).

덴마크의 진로교육은 교육이나 직업선택을 위한 준비를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중간목표와 최종목표로 구분하고 전문적·사회적·개인적 역량개발,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선택을 돕는 것, 생애학습 가치 이해, 교육, 훈련, 직업 및 노동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조건들을 잘 활용하는 것 등을 체계화하여 구성하였다(김나라, 2009).

그러므로 외국의 진로교육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진로교육이 핵심역량에 기반을 두고(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통합교과의 움직임(미국, 프랑스, 핀란드, 덴마크 등) 등의 경향이 뚜렷하다.

둘째, 우리나라에서도 핵심역량에 대한 연구가 2010년에 종결됨으로써 핵심역량을 진로교육의 기반으로 한 정책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개인은 스스로 정체감을 확립하고 목표를 수립하며, 큰 맥락에서 행동하고 생애계획을 수립하며 실천하고 권리와 이익의 한계를 요구할 수 있는 능력 등이 진로교육의 목표와 체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진로교육의 핵심내용은 의사결정과 진로계획의 행동화이며, 통합교과로서 진로교육을 적용하고, 진로장벽을 가진 집단에 대한 특별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등이 필요하다.

셋째, 외국의 진로교육체제의 5가지 틀은 ① 학생, 학부모,



교사, 진로상담가, 기업 등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② 정확한 최신의 진로정보 보급 ③ 전문성을 가진 진로상담가 배치 ④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⑤ 피드백과 사후관리 등이다. 이를 위해 내·외부에 전문성을 가진 진로상담가가 배치된 체제가 구축되고 진로교육의 전문성을 배가하기 위해 진로상담 영역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덴마크는 전환시기의 학년에게 직업선택과 상위학교 진학을 돕는 프로그램을 1~2주 또는 4주 이상 운영하는데, 직업선택을 위한 기업체 현장, 상위학교 진학을 위한 대학교와 문대에서의 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있어 취업과 진학을 위한 가교체제를 갖추고 있다.

넷째, 진로교육의 지지체계를 다원적으로 구축하고 진로정보의 최신화와 정확성에 매우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학생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정보망을 구축하여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⑤



참고문헌

김병숙 외(2011). 서울 진로적성교육 업무 과제개발과 의사결정능력 향상 프로그램 구안, 서울시교육청

김기현(2009). 청소년 생애핵심역량개발 및 추진방안연구Ⅱ :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소정희·이상은·박정열(2007). 캐나다 퀘벡주 교육과정의 개혁사례 고찰: 역량기반교육과정의 가능성과 한계, 비교교육연구, 17(4), pp. 105-128

이지연·정윤경(2010). 해외 진로교육 사례: 진로교육관점에서 살펴본 미국 입학사정관제 아일랜드의 진로교육체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임언 외(2008). 영국·뉴질랜드·캐나다·호주의 진로교육, 한국직업능력개발원

Betz, N. E. & Heckett, G. (1983). The relationship of methematics self-efficacy expectations to the selection of science-based college major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3, pp. 329-345.

OECD(2002). OECD REVIEW OF CAREER GUIDANCE POLICIES, DENMARK COUNTRY NOTE

www.oecd.org
www.riss4u.net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 성과와 전망

5TH APEC EDUCATION MINISTERIAL MEETING



글
•
고영종
교육과학기술부 APEC 교육장관회의
준비기획단 부단장

I. 성공적으로 막 내려

지난 5월 21일(월)부터 23일(수)까지 사흘간 경주에서 개최되었던 교육분야 최대 규모의 장관회의인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¹⁾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회의에는 21개 APEC 회원국의 장·차관, 고위공무원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사, 연구진 등 약 600여명이 참가해 역대 APEC 교육장관회의 중 가장 큰 규모의 회의로 기록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번 APEC 교육장관회의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남기게 되었는가? 사실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회의를 끝마쳤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APEC 교육장관회의가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를 냉철하게 분석해 보고,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보다 더 큰 교육 리더십의 확보를 위해 무엇을 보완하고 준비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II. APEC 교육장관회의 주요 성과

1. 역대 최초로 APEC 회원국 전원 참석으로 교육 리더십 발휘

이번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는 지난 1~4차 회의와는 달리 21개 전 회원국에서 대표단을 보내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첫 번째 교육장관회의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회의에 참석한 수석대표도 장관 11개국, 차관 7개국 등 21개 회원국 가운데 18개국에서 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함으로써(장차관 참석률 : 86%) 지난 3차 회의의 66%(04년 칠레, 장관 10, 차관 4), 4차 회의 52%(08년 페루, 장관 6, 차관 5)를 훨씬 뛰어넘은 성과를 가져왔다.

장·차관의 회의 참석 여부는 APEC 교육장관회의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아무리 회의내용을 충실하게 준비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국가의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장·차관의 참석률이 낮다면 장관급 국제회의에 걸 맞는 회의운영을 하기 어



렵게 될 뿐만 아니라 각 회원국의 교육에 관한 의견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게 된다. 또한 APEC 교육장관회의가 모든 회원국의 의견을 포괄하여 수렴하기 위해서는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회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모든 회원국들은 APEC 국가 간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큰 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노력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회원국 참여를 위해서는 회의 주최국의 교육 리더십이 더욱 요구되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교육장관회의는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첫 번째 회의로, 이를 통해 APEC의 중요성 및 상호간의 공동협력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고, 이러한 회의를 주관한 우리나라의 글로벌교육 리더십이 심분 발휘된 회의라고 보아도 손색이 없다 하겠다.

2. '경주 이니셔티브'의 채택으로 실천적인 경주선언문 도출

이번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에서는 21개 APEC 회원국들이 실천적이고 지속가능한 교육협력을 위해 우리나라가 제안한 교육협력 프로젝트인 '경주 이니셔티브'를 실행하는 경주선언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21개 회원국들은 아태지역의 공동번영과 지속가능한 성장, 역내 지식정보 격차의 극복 및 교육발전을 위해

1)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역내 21개 회원국 교육장관들이 함께 모여 역내 지식정보격차 해소 및 경제발전을 위한 교육의 역할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APEC 교육장관회의는 역내 최고회의이다.

서는 APEC 역내 교육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해 한국이 제안한 교육협력 프로젝트(ECP, Educational Cooperation Project)를 추진하는 경주이니셔티브를 실행하기로 하였다. 교육협력 프로젝트란 한국의 주도 하에 전 회원국이 참여하여 APEC 역내 교육협력의 수요(분야 및 수준 등)를 진단하여 구체화된 협력전략 및 실행방안을 도출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협력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거나, 역내 교육협력 모범사례 및 성공요인을 발굴하고, 교육협력 모델이나 시행전략 개발 및 파일럿 테스트 등 후속연구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이번 교육장관회의에서 단순한 정보공유에서 머물던 회원국 간 협력수준을 성과중심의 실천적 프로젝트로 가시화하기 위해 협력과 관련된 분야별 수준별 협력 전략을 회원국 간 공동연구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교육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교육협력에 관한 수요 파악 및 회원국 상호간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협력 모델이나 Best Practice의 발굴·공유 등을 통해 교육협력 수준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교육협력 프로젝트의 실행으로 우리 교육의 강점인 스마트교육의 확산, 교사교류를 확산시킬 수 있는 토대 마련,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적·감성적 능력 배양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수출의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향후 4년간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며, 이는 APEC 프로토콜에 따라



교육네트워크(EDNET)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화된다. 또한 그 결과는 4년 후 다음 장관회의에서 가시적인 실천방안 형태로 보고될 예정이다.

3. ICT 분야 우수사례 공유로 미래교육 비전 제시

우리나라의 ICT 환경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만15세(중3~고1) 학생들의 '디지털 읽기'능력은 OECD가 발표한 2009년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의 디지털 읽기(DRA)부문 평가결과에서 19개 참가국 가운데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ICT 기술 역시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 이러한 ICT 강국을 환경으로 한 우리 교육은 ICT를 활용한 스마트교육으로 구현되고 있으며, APEC 역내에서 현재 선도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APEC 교육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는 ICT 분야의 의제 주도국으로 한국의 스마트교육 우수사례를 회원국과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국가적 차원의 마스터플랜을 영문화하고, 공개교육자료(OER, Open Educational Resources)의 개발 및 교사의 ICT 활용 능력개발 연수 등 우수사례 공유에도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ICT 및 스마트교육의 확산을 위해 이번 APEC 교육장관회의 부대행사로 미래교실테마관을 설치·운영하였다. 미래교실 테마관은 이러닝·스마트교육, 디지털





교과서 등을 활용한 미래형 교실 체험관으로 미래교육의 비전과 미래학교의 역할을 제시하여 회원국에게 미래교육의 비전을 보여주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수학교 현장방문 코스에도 스마트교육 실시학교를 포함하여 학교현장에서 실현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스마트교육을 회원국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나라의 스마트교육 성과를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회원국 장관들은 스마트교육 특별교실 수업을 참관하면서 우리나라의 스마트 기기가 학교 교육현장에 적용되는 장면에 놀라움을 표시하였다. 장관들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학생들 스스로 자료를 만들고 친구들과 공유·전송하는 과정을 보면서 개별 맞춤형 교실수업방법에 찬사를 보냈다. 미국의 Tony Miller 교육차관은 “학생들이 친구, 교사, 전자기기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스마트교육이 21세기 역량들을 길러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하였으며, 브루나이의 Pehin Abu Baker APONG 교육장관도 학생들이 집단별로 스마트월에 토론한 내용을 기재해 서로 공유하는 수업장면을 보고 매우 인상적이라고 평가하였다.

APEC 회원국들의 이러한 평가는 우리나라의 ICT 및 스마트교육이 우리나라에만 머무르지 않음을 예고해 준다. 이미 이번 APEC회의 기간 동안에 브루나이와는 ‘첨단 ICT 활용교실 지원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실질적인 성과도 거두었으며, 이러한 성과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ICT를 활용한 교육

및 스마트교육이 향후, ICT 콘텐츠, 소프트웨어, 첨단기기 등 교육관련 수출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4. 양자회담을 통한 교육협력 확대

이번 APEC 교육장관회의는 이전의 교육장관회의와는 달리 APEC 회원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자회담 등을 통해 국가별 구체적인 협력의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교육협력 강화를 위한 실천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것에 큰 성과가 있다고 평가된다. 이번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 기간 동안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2개 회원국 수석대표들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ICT·스마트교육 협력 추진 및 교사고류 확대, CAMPUS Asia 등 대학 간 교류 확대, 공동연구 추진 등을 합의하고, 교육약정 체결, 연구개발(R&D) 협력 등을 의미 있게 논의하였다.

먼저, 브루나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멕시코, 홍콩 등과는 우리 교육의 장점인 ICT, 스마트교육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최근 국내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미국과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한·미 공조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복수담임제 시행, 체육·예술교육 확대, 상담인력 배치 확대 등과 같은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학교폭력의 대응체계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공동연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공동연구를 통해 미국의 학교폭력 현황 및 정부차원의 대응 정책,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 지역과 사회가 연계한 인성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분석하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양국 간 소통을 통해 안전한 학교, 행복한 학생 키우기가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서 한·중·일 3국은 CAMPUS Asia 사업 확대 및 기반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하며, 한·중·일 교육장관회의 개최를 위한 실무협의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합의하였다.

또한 이번 APEC 교육장관회의를 통해 회원국들은 우리나라 교육성과의 가장 큰 요인을 우수한 교사와 교육열로 보고 한국과의 교육협력을 위해 교사·학생 등 인재 교류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각국이 한국 교사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한국과 교사교류 추진을 희망하여 올해 미국·중국·태국·필리핀·캐나다 등 5개국에 434명의 교사를 보내기로 했으며, 2013년도에는 5개국 외에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러시아 등 5개국을

더 확대해 모두 10개국에 710명의 교사를 파견할 예정이다. 특히 회원국별로 교류대상과 교류방식·기간 등을 특화하여 미국·뉴질랜드(수학·과학교사), 중국(언어교사 교류), 홍콩(ICT 활용), 필리핀·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다문화 교육 교사, 한국어 교사

〈표1〉 국가별 주요 합의·논의 사항

브루나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첨단 ICT 활용교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스마트교육, STEAM교육, 마이스터고, 교원양성 등 교육정책 정보 교류 •양국 인적교류 활성화 논의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학력 보장 관련 공동연구 성과 논의 •우수 교원 양성을 위한 정부정책 논의 •학교폭력 대응 공동연구 실시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첨단 ICT 활용교실 구축사업 추진 합의* •양국 교사교류 실시 합의(2013)* •이러닝 코리아 2012 인도네시아 참석 권유 •고등교육기관 차원의 양국 언어 및 문화교류 활성화 합의* •EAS 교육장관회의(2012. 7. 인도네시아) 개최 협조 약속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교류 약정 갱신·보완 •한중 교사교류 사업 확대 및 지속추진 방안 논의 •한·중·일 CAMPUS Asia 사업 정부차원 지원 확대 합의* •한·중·일 교육장관회의의 신설을 위한 국장급 실무회의 개최 합의*
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세안 사이버대학-CLMV 역량강화사업 추진상황 점검 •GKS 등 학생 교류 확대 •베트남 현지 한국어 언어교육센터 설립(2012. 9월 개소예정)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 취업연계 직업기술교육 정책 지원 논의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국 간 교사교류 프로그램 추진 논의 •ICT를 활용한 스마트교육 정책 논의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중·일 CAMPUS Asia 사업 정부차원 지원 확대 합의* •한·중·일 교육장관회의의 신설을 위한 국장급 실무회의 개최 합의*
홍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러닝 스마트 교육 정책 정보 교류 •스마트 교육 성과 극대화를 위한 교원양성·연수 정책 방향 논의 •인적 교류 확대 방안 논의
러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간 네트워킹 및 학생 교류 강화 •학위 상호인증 방안 모색 •송도 글로벌 캠퍼스에 모스크바대학 및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 분교 설립 •기초연구분야 협력 강화 •※협력 연구 주제 및 분야, 협력 가능 시설 목록 교환 •문화 예술 및 스포츠 분야 교사교류
멕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국 간 교사교류 프로그램 추진 논의 •ICT를 활용한 스마트교육 정책 논의 •문화교류 시행계획서 갱신 합의*
우크라이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국 간 우주기술분야 협력 강화 •한·우크라이나 교육협력 협정 체결 추진


※ 양자회담을 통해 추진이 합의된 사항

파견), 러시아(기초과학·예술) 등과 전략적으로 교차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번 APEC 회의 기간 동안의 양자회담을 통해 한국교육의 해외진출 기반을 확장하고, 한국 교육현장의 국제적 역량 강화의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Ⅲ. 보다 크고 강한 교육 리더십의 발휘를 위해

이번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가 3일 동안의 숨 가쁜 일정을 마무리한 채 다음 4년을 기다리게 되었다. 불과 60년 전만 해도 전쟁으로 황폐화되고 자원도 부족한 가난한 나라에 지나지 않았던 대한민국, 교육발전을 통해 전후 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2009년 11월 개발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이 된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이번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는 모

든 APEC 회원국이 참여하고, 회원국 간 실질적인 교육협력을 강화하는 성공적인 회의로 길이 남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이번 회의의 성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 더 크고 강한 교육리더십의 발휘를 위해서는 이번 회의를 경험삼아 보다 많은 것을 준비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장 이번 회의에서 확보한 다양한 교육협력 과제들을 가시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교육협력 프로젝트의 실행을 위해서는 APEC 교육협력네트워크(EDNET)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진행방향을 논의하고, 회원국의 전문가들과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향후 4년 동안의 추진일정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APEC 교육장관회의보다 더 큰 국제회의가 더 많이 열릴 수 있다. 2015년 UNESCO 세계교육회의(EFA) 및 2017년 ASEM 교육장관회의 개최 등을 앞두고 우리 교육의 국제적 리더십이 더욱 확대되고, 국제적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역할을 잘 해 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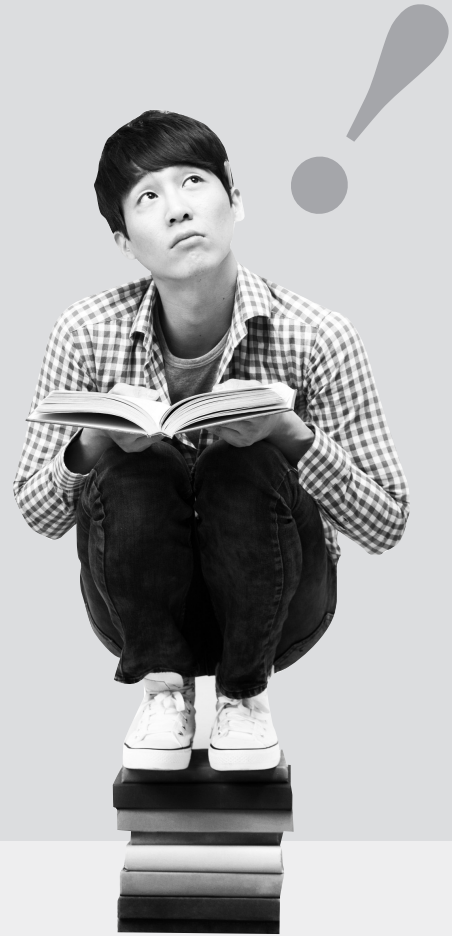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11~2020

고졸 32만 '품귀', 대졸 50만 '백수' 학력 간 고용 미스매치 심화, 원인·문제점·대책

글

• 이대창

한국고용정보원 연구본부 본부장



I. 수요에 비해 월등히 많은 고학력자 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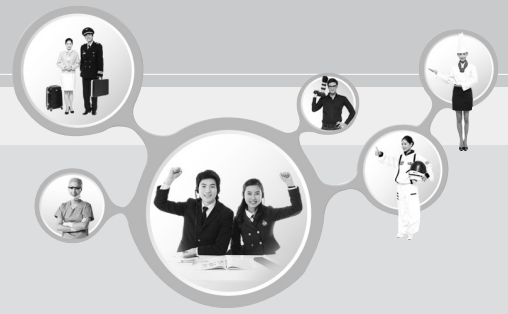
향후 10년간 학교를 졸업하고 새롭게 직업전선에 나서는 구직자를 기준으로 전망할 때 고졸은 32만 명 초과 수요인 반면, 전문대졸은 22만 명, 4년제 대학은 27만 명, 대학원은 1만 6천 명 정도 초과공급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교 졸업생들이 취업 시 약 20% 가량은 자신의 교육수준보다 하향 취업하는 것을 염두에 보면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에 대한 초과공급 정도는 더 심할 것이다.

〈표1〉 학력별 신규인력 수급 차 전망(2011~2020)

(단위: 천명, %)

구 분	신규인력 공급		신규인력 수요		수급차		초과공급율
전 체	5,335.6	(100.0)	5,153.3	(100.0)	182.3	(100.0)	3.4%
고 졸	671.4	(12.6)	990.7	(19.2)	-319.3	-(175.2)	-47.6%
전문대	1,453.6	(27.2)	1,233.8	(23.9)	219.8	(120.6)	15.1%
대학교	2,330.2	(43.7)	2,064.3	(40.1)	265.9	(145.9)	11.4%
대학원	880.4	(16.5)	864.5	(16.8)	15.9	(8.7)	1.8%

※ 초과공급률(%)=(초과공급/신규공급)×100



이 신규인력 수급차를 해석할 때 유의할 점은 이 전망은 앞으로 각급 학교에서 새로 배출되어 구직활동에 나설 학생들의 공급규모와 앞으로 새로 생길 신규 구인 규모와의 차이를 나타낼 뿐이라는 점이다. 즉, 이것이 졸업이후 전 연령층에 걸쳐 고용시장에서 학력별 수요와 공급 간의 격차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전체적인 학력별 인력공급 규모를 보려면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바탕으로 한 학력별 경제활동인구 전망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전망에 의하면 향후 10년간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소지자

중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규모는 370만 명이 증가하여 2020년에는 모두 1,333만 명에 달할 것이다.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의 비중은 2010년 38.9%에서 2020년 49.1%가 된다. 즉,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절반 정도가 대졸자란 이야기다.

그렇다면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에 대한 수요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학력별 수요를 예측하는 데 한 가지 장애요인은 위에서 언급한 하향취업이다. 시계열자료를 바탕으로 한 학력별 수요 구분은 취업자의 학력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직무내용이 고졸자 숙련수준이더라도 대졸자가 하향취업 중이면 이 일자리를 대졸 학력이 필요한 일자리로 간주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러한 오류를 피하는 한 가지 방법은 숙련수준별 일자리 규모를 파악하고 각각의 숙련수준이 어느 정도의 학력을 필요로 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제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1직군 관리자, 2직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대졸자 적합 직종, 3~8직군은 중등교육(고졸자), 9직군은 초등교육이 요건이다.¹⁾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0년에 이미 전문대졸 이상 졸업자 초과공급규모가 450만 명에 달하고 있다. 3직군 사무종사자까지도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더라도²⁾ 2010년에 대졸 이상 공급은 전 연령층에서 962만 명인데 반해 1~3직군 취업자는 887만 명에 불과해 대학졸업자 75만 명 이상이 초과공급이다. 이중 상당수는 하향취업중이고 일부는 실업상태에 있을 것이다.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지닌 근로자 전체의 초과공급규모는 2020년 270만 명(1,333만 명-1,063만 명)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본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비교적 느슨한 기준으로 고학력자 수요를 크게 추정하더라도 수요에 비해 월등히 많은 고학력자를 배출하여 왔다. 이러한 현상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08년 이후 최근 대학진학률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적어도 청년층 고

〈표2〉 학력별 경제활동인구 전망

(단위: 천명, %)

년 도	계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2010	24,748	5,089	10,038	9,621
	100.0	20.6	40.6	38.9
2015	26,312	4,282	10,493	11,538
	100.0	16.3	39.9	43.9
2020	27,141	2,944	10,865	13,332
	100.0	10.8	40.0	49.1

〈표3〉 직업별 취업자 전망

(단위: 천명, %)

표준직업대분류	2010		2015		2020	
계	23,829	100.0	25,325	100.0	26,177	100.0
1. 관리자	562	2.4	608	2.4	639	2.4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571	19.2	5,215	20.6	5,702	21.8
3. 사무 종사자	3,739	15.7	4,050	16.0	4,287	16.4
소계(=1+2+3)	8,872	37.2	9,873	39.0	10,628	40.6
4. 서비스 종사자	2,434	10.2	2,617	10.3	2,711	10.4
5. 판매 종사자	2,934	12.3	2,980	11.8	2,928	11.2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441	6.0	1,266	5.0	1,074	4.1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238	9.4	2,322	9.2	2,348	9.0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695	11.3	2,820	11.1	2,906	11.1
9. 단순노무 종사자	3,215	13.5	3,448	13.6	3,582	13.7

1) ILO(1990),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ISCO-88", Geneva, ILO

2)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3직군 사무종사자의 평균교육년수는 2000년까지는 13년을 약간 초과하였으나 2005년 이후 12년 미만으로 오히려 감소되었다.



학력자 비중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취업-후진학 패턴과 평생교육 발전으로 중장년층 고학력자 비중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II. 고학력화의 원인

이러한 고학력화의 원인으로는 학력 간 채용, 승진, 임금보수 등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격차 또는 차별과 결혼, 대인관계 등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격차 또는 차별을 들고 있다. 비용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고학력화는 자녀들의 학비부담을 부모가 대부분 감당하는 문화에 기인할 가능성도 크다. 아울러 1990년대 대학설립자유화 확대로 대학입학 문턱이 낮아진 것도 고학력화의 큰 요인이었다.

먼저 학력별 임금격차 또는 대졸자 임금프리미엄은 중반까지 줄곧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으나 1995년 이후부터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중반이후 대학진학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대학졸업자들이 대거 노동시장으로 진입하여 공급을 늘려온 것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그러나 1990년대에 강하게 나타난 정보통신혁명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주로 숙련 편향적 또는 과업 편향적 기술진보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모든 직업군에서 대학졸업자에 대한 수요 또는 생산성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여 대학졸업자가 고졸자 또는 중졸자에 비해 임금프리미엄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설득력이 있다.

숙련기능직 등 전통적인 고졸직군에 있어서의 좋은 일자리가 과거보다 증가속도가 낮은 것도 고학력화를 부추긴 요인이다. 특히

대기업 노사관계 악화와 생산기반의 해외이동 등으로 제조업 고용 비중이 감소하고 기업들의 정규직 채용 기피로 비정규직이 양산되면서 고임금 고졸직종으로의 취업여건이 나빠진 것이다.

결정적으로 결혼에 있어 동일학력의 배우자를 택하는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특히 여성의 대학진학률 상승은 결혼을 앞둔 모든 청년층의 대학진학을 서로 상승적으로 부추기는 효과를 가져왔다.

III. 고학력화로 인한 학력별 미스매치가 낳는 문제들

다음으로 고학력화로 인한 학력별 미스매치 확대가 어떠한 문제를 낳는가를 살펴보자. 잘 알려진 것처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산업수요를 뒷받침할 유능한 고학력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낮은 대학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고학력화로 인한 미스매치는 크게 두 가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하나는 청년층 실업확대로 인한 인력손실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부모세대의 등록금 조달 부담으로 노후소득 준비를 어렵게 한다는 점이다.

고학력화가 반드시 부정적인 면만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대졸자는 노동시장에서 확실한 임금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 이 임금프리미엄은 기술발전가속화에 따라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학력화가 장기적인 실업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전반적인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긍정적이다. 정확한 표현으로 고학력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졸인력에 비해 부가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없는 경우가 문제이다. 즉, 대학교육의 질이 담보되고 우수한 실력을 갖춘 졸업생을 배출하여 산업수요를 만족한다면 오히려 경제에 득이 될 것이다.

따라서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고학력화는 긍정적인 면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하향취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표4〉 OECD 주요 국가 청년(20~24세) 고용률³⁾ 추이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호주	74.8	75.3	76.3	76.7	76.8	73.9	73.3
벨기에	52.6	47.7	48.5	48.7	47.9	43.8	44.0
캐나다	69.4	70.5	71.6	71.6	71.7	68.1	68.0
덴마크	73.9	71.4	72.8	74.9	75.3	71.8	67.5
프랑스	47.9	50.0	49.5	50.9	51.5	50.4	49.2
독일	65.3	59.5	61.4	63.3	64.5	63.4	63.8
이탈리아	41.1	41.1	41.7	40.8	40.9	37.1	35.4
일본	66.5	63.6	64.2	64.5	64.4	62.6	61.9
한국	52.0	51.6	49.2	48.0	45.5	44.6	44.3
네덜란드	77.5	73.3	74.7	76.7	76.5	75.3	72.9
노르웨이	69.1	65.9	69.5	71.7	73.2	68.2	67.3
스페인	47.9	55.6	57.8	57.2	54.2	44.3	40.7
스웨덴	60.2	58.8	59.9	63.5	63.4	57.6	57.1
영국	68.5	67.8	67.7	67.4	66.5	63.0	62.4
미국	72.2	68.0	68.5	68.4	66.8	62.2	60.3
G7 국가 평균	65.4	63.1	63.7	64.0	63.4	60.1	58.9
OECD 국가 평균	60.1	58.1	58.9	59.4	59.1	55.9	55.3

자료: OECD StatExtracts, OECD

있다. 대졸자의 하향취업이 임금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졸자가 고졸자에 비해 지니는 임금, 채용, 승진 등 노동시장에서의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일단 취업에 성공하면 긍정적이다.

문제는 미스매치로 인해 청년들이 실업과 니트(NEET: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이로 인해 인적자원의 손실이 커진다는 점이다. 급격한 대졸인력 공급증가 속도에 맞는 고용창출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에서 미스매치 확대는 대졸자의 구직기간 장기화 → 하향취업 → 저학력자의 실업확대 등의 연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신규대학교 졸업자들이 대기업/공공기관 및 정규직 취업을 위해 졸업 후에도 장기간 취업준비를 하거나 취업준비를 위해 재학기간을 일부러 연장시키는 등의 전반적인 취업준비기간과 구

직기간의 장기화는 곧바로 실업률 상승 또는 고용률 하락을 초래한다. 특히 청년층의 장기 실업과 미취업 확대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문제를 낳는다. 대표적으로 근로의욕 상실, 인적자본 미활용에 따른 진부화 또는 근로능력 퇴보, 실업자로서의 낙인효과로 인한 취업가능성(employability) 저하,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한 비행 또는 범죄유발 등을 꼽을 수 있다. 따라서 청년 시기의 실업과 미취업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국가 인력정책과 고용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목표이다.

우리나라 20세~24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2000년의 52%에서 2010년 44.3%까지 하락하였다. 이 하락원인으로 대학진학률 상승과 대학졸업기간 연장 및 졸업 후 니트(NEET) 등 미취업 확대를 들 수 있다. 대졸인력 미스매치 확대는 대학졸업기간 연장 및 졸업 후 미취업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IV. 인력수급 미스매치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3) 고용률은 해당 연령층 전체 인구 중 재소자, 군인 등 숙박인구를 제외한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비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력수급 미스매치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첫째는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재학 중에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이다. 15세~24세 저학력·청년층을 위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는 조기부터 진로교육을 강화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진로를 조기에 설정하고 직업능력을 갖춰 고교 졸업 후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선취업-후진학'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이다. 셋째는 지나치게 연구중심인 대학 전공구성을 보다 직업중심으로 개편하고 우수인력 배출능력이 부족한 대학을 구조조정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채용, 승진, 보수에서 학력차별이 없는 '열린 고용사회'를 구현하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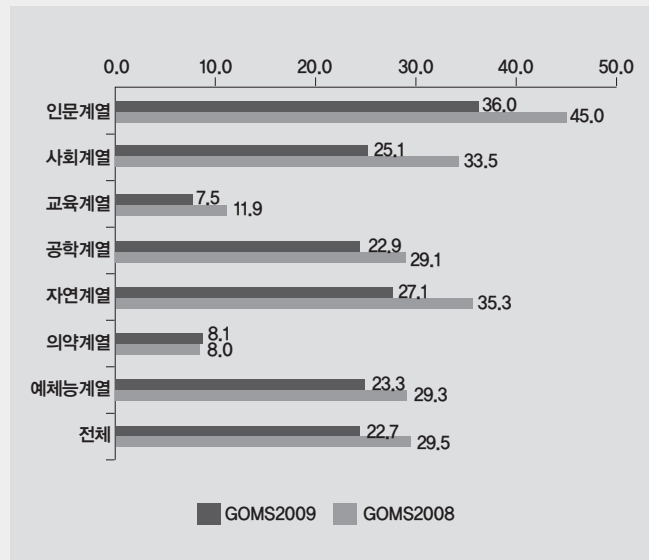
〈표5〉 OECD 주요국 청년층(15~19세) 고용률 추이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호주	49.7	51.0	50.8	51.2	51.7	47.7	46.9
벨기에	7.4	6.8	6.8	6.7	7.2	6.8	5.9
캐나다	43.3	44.5	45.1	47.1	47.5	42.5	41.1
덴마크	59.0	54.1	57.3	56.5	59.1	55.8	49.6
프랑스	10.4	11.5	11.4	12.4	12.3	11.5	11.5
독일	30.5	25.7	26.6	28.3	29.0	28.1	27.3
이탈리아	11.8	8.1	7.9	7.6	7.2	5.6	4.8
일본	15.4	14.8	14.9	14.9	14.9	14.0	13.7
한국	10.3	8.0	6.7	6.6	5.9	5.4	6.1
네덜란드	55.0	50.3	51.3	54.6	57.2	55.4	53.1
노르웨이	43.9	37.9	38.2	40.1	44.0	39.2	37.1
스페인	18.6	20.4	20.8	21.2	17.6	11.0	8.3
스웨덴	29.3	25.7	28.0	28.6	27.7	20.6	20.2
영국	53.1	47.6	44.9	42.1	43.1	37.6	35.3
미국	45.2	36.5	36.9	34.8	32.6	28.4	25.9
G7 국가 평균	32.4	28.4	28.6	28.0	27.3	24.4	22.8
OECD 국가 평균	30.2	26.2	26.5	26.1	25.8	23.2	22.6

학력별 인력수급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청년층 고용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현재처럼 대학진학률이 높은 현실에서 저학력자 고용은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기 이전인 15세~24세 시기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우리나라의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에서 고등학교까지는 학

생들이 간단한 파트타임 일을 하는 것조차 어려운 현실이다. 입시를 위한 공부를 할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이다. 이것은 특히 부모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학생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우리나라 중산층 부모들조차 자녀들이 스스로 학비나 용돈을 조달하도록 신문 배달이나 음식배달 아르바이트를 시키는 일을 꺼려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중등교육이 의무화된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고교시절이 포함되는 15세~19세 연령층의 고용률을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OECD국가 평균에 비해 15%포인트 이상 낮다. 고교 재학 중 또는 졸업 직후의 청년층이 광범위한 일자리를 소화하는 호주, 덴마크, 네덜란드에 비해서는 4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고 미국의 경우와 비교해도 15%포인트 가량 차이가 나고 있다. 학생들의 취업이 가능하도록 시간제 또는 한시적 일자리를 많이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고 학사운영제도의 변혁도 필요하다. 특히 영미국가처럼 여름방학을 길게 하여 학생들이 방학 중 전일제(full-time)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중등교육 단계의 학생들의 활동은 대학입시제도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많이 받으므로 입시에 수험능력과 관련이 있는 진로설정이나 취업경력 등 직업능력을 반영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나



[그림1] 전공계열별 직업-전공 불일치 비율(GOMS)




아가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대학졸업생을 채용할 때도 진로설정이나 관련 업무 수행경력을 감안하는 관행을 정착시키는 것도 청년들의 재학 중 취업을 확산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처럼 선취업-후진학 또는 재직만학(在職晩學: study late while working)을 보편화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 재직만학 모형은 학생들로 하여금 일과 연관된 전공을 택하게 하는 기능도 할 것이다. 대학졸업자직업이동 경로조사(GOMS)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학졸업생들의 경우 직업과 전공과 불일치를 호소하는 비율이 높다. 특히 인문계열의 경우 40%대, 자연계열의 경우 30%대의 높은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의학계열이나 교육계열의 경우 상대적으로 10% 이내로 낮다. 또한 대학의 학사제나 등록금제도를 변경하여 보다 오랜 기간 학점 이수를 통해 졸업이 가능하게 한다든지, 수강학점에 비례하여 등록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도입도 필요하다.

아울러 대학정원이나 학과(전공)정원을 조정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보다 직업중심의 전공편성이 되거나 산업수요가 높은 학과 정원을 늘려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학 간에도 교육중심의 대학의 경우 취업경쟁력이 높은 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재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취업률



공시제'나 정부의 대학 간 예산지원을 공시취업률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된다.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채용, 승진, 근무제도 등 인사관행도 변경되어야 한다. 열린고용사회가 확산되고 차별관행도 시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재직 중 학위취득이 가능하도록 근로시간저축제⁴⁾, 집중근무주제⁵⁾, 동료 간 일자리나누기(job sharing), 원격근무 등 탄력근무제의 실질적인 도입과 확산이 필요하다. 즉, 주경야독이나 주독야경 등 실질적으로 재직 중 학업병행이 가능한 근무환경이 확산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환경의 변화는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일-가정 양립이나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을 촉진시키려는 여러 현대 복지국가들이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표6〉 2011~2020년 누적 전공별(전문대졸 이상)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

(단위: 천명, %)

구 분	신규인력 공급		신규인력 수요		수급차		초과공급률
전체	4,664.2	(100.0)	4,162.5	(100.0)	501.7	(100.0)	10.8%
인문계열	419.9	(9.0)	370.5	8.9	49.4	9.8	11.8%
사회계열	1,366.8	(29.3)	1,222.9	29.4	143.9	28.7	10.5%
교육계열	377.8	(8.1)	329.4	7.9	48.4	9.6	12.8%
공학계열	1,036.2	(22.2)	942.2	22.6	94.0	18.7	9.1%
자연계열	426.1	(9.1)	357.7	8.6	68.4	13.6	16.1%
의약계열	459.6	(9.9)	426.6	10.2	33.0	6.6	7.2%
예체능계열	577.9	(12.4)	513.2	12.3	64.7	12.9	11.2%

※ 초과공급률(%)=(초과공급/신규공급)×100

4) 연간 근로시간을 고정시켜 놓고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하고 대신 대체휴가를 확보하는 제도
5) 주40시간 근무제도 하에서 어느 주에는 주50시간, 다른 주간에는 주30시간 등으로 운영하는 제도

말레이시아 사례를 통해 본 외국교육기관 유치 발전전략과 과제

글
•
홍영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I. 외국교육기관 유치에 대한 국가적 관심의 확산

세계화 추세가 확산됨에 따라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한 국가 간 교육협력 및 교육서비스의 교류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수 외국교육기관의 유치는 글로벌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서비스 수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비롯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정주환경의 개선 및 만성적 적자 상태인 유학수지 개선의 일환으로 외국교육기관 유치 노력을 해 오고 있으나 주변 경쟁국에 비해 아직 전반적인 유치 성과가 미흡한 상태이다.

주변 경쟁국의 외국교육기관 유치 실태를 볼 때 국가별로 고등교육 서비스를 통한 수익성 추구, 해외 우수인력 활용 및 자국 우수인력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관련 정책 및 전략을 강화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역시 우수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분교 설립으로 인해 해외 유학 수요의 대체가 가능하고 또한 국내 고등교육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교육기관 유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및 유치 계획 수립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주변 국가의 다양한 유치 전략과 사례를 검토해 봄으로써 유용한 시사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II. 말레이시아의 외국교육기관 유치 배경과 현황

그동안 외국교육기관 유치에 관한 선행 사례 연구에서 말레이시아의 유치 사례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였고, 우리보다 일찍 외국교육기관 유치 작업에 착수한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과 적극적 유치 활동을 벌인 두바이, 카타르에 관한 사례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말레이시아는 2011년 IMD 교육경쟁력 국가별 순위에서 34위

인 일본에 이어 35위를 차지했으며, 43위인 중국보다 훨씬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국가이다. 말레이시아의 교육제도는 기본적으로 영국식 교육제도를 축으로 하여 말레이시아 특유의 이슬람적 배경이 혼합되어 있으며, 특히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 그리고 외국인 등이 함께 사는 다민족 국가의 특성대로 교육의 형태와 질에 있어서도 다양성이 두드러지는 국가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해외 대학들과의 교류를 통해 편입 및 학위 수여를 가능하게 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고, 국내·외 학생들이 말레이시아에서 저렴한 학비로 공부하고 외국대학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기 위해 외국교육기관의 말레이시아 분교 유치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이러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외국교육기관 유치 전략으로 대표적인 것이 Twinning Program의 도입·운영이다. 이는 말레이시아에서 1~2년을 공부하고 외국의 본교에서 남은 학업을 마치는 방식으로 말레이시아 단과대학(College or Institute)에서 외국대학의 학위프로그램을 통해 수학 후 외국의 학위를 받는 제도이다. 최근에는 전 학기를 말레이시아 내에서 마쳐도 학위가 인정되는 프로그램도 개발되어 말레이시아 내에서 저렴한 학비로 공부하고 선진국의 대학 학위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Twinning Program은 유학비용을 절반 가까이 줄이면서 외국 우수 대학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외국의 본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학이 쉽고 경우에 따라 유학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표1〉 Twinning Program의 유형별 특징

유형	특징
2+1 / 1.5+1.5 / 1+2 트위닝 프로그램 (Split Programs)	2+1년 / 1.5+1.5년 / 1+2년 방식으로 말레이시아 대학 및 말레이시아 대학과 연계된 해외 대학에서 각각 교육을 마친 후 해외 우수 대학의 학위 취득
'3+0' 외국학위 제도 (Foreign Bachelor's Degree in Malaysia)	말레이시아에서 모든 교육과정을 마친 후 국제학위 취득
해외대학 분교 캠퍼스 (Branch Campuses of Foreign Universities in Malaysia)	본국에서 받는 것보다 분교 캠퍼스에서 저렴한 학비로 같은 교육 제공

* 출처 : 주 말레이시아 대사관 홈페이지(<http://mys.mofat.go.kr>)



USM(Universiti Sains Malaysia), UKM(Universiti Kebangsaan Malaysia), UPM(Universiti Putra Malaysia) 등 일부 사립대는 자체 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시에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국가와 협력하여 Twinning Program과 학점교환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현재 말레이시아에는 4개의 유명한 외국대학 말레이시아 분교가 있다. 1998년 최초로 설립된 Sunway 소재 모나시대학교(Monash University Malaysia Campus, 호주에 본교), 커틴공과대학교(Curtin University of Technology Sarawak Campus, 호주에 본교), 노팅험대학교(University of Nottingham, 영국에 본교), 2000년에 설립된 Swinburne University of Technology Sarawak Campus(호주에 본교)가 그것이다. 이들 학교는 영국과 호주 학위 프로그램을 4년이 아닌 3년에 마칠 수도 있으며, 영어로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마치면 해당 본교

학위와 동일한 학위를 수여한다.

Ⅲ. 말레이시아의 외국교육기관 관련 규제 및 지원

말레이시아 사립대는 사립법인이 설립 및 소유하고 있으며, 외국대학에도 같은 규제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 모든 사립대는 이익을 창출하는 법인으로써 세금도 기업과 같이 적용하고 있는 점이 우리와 매우 다르다. 사립대는 고등교육부¹⁾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1996년 창설된 MAPCU(말레이시아 사립대학교 협회)의 감독 하에 있는데 1997년 3월 18일 등록된 MAPCU는 주요 사립대를 주축으로 말레이시아 최고 수준의 고등교육협회의 위치에 있다. MAPCU는 고등교육부, 국가인증위원회, 재무부, 경제발전부의 인가를 받는다.

말레이시아에서 사립대학은 사립종합대학, 사립단과대학, 사립전문대학으로 구분되는데, 외국교육기관(대학) 분교(캠퍼스)는 사립종합대학으로 분류되어²⁾ 외국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부에 법인설립신청서, 학교설립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대학 분교는 국내 사립대학과 같은 규제지침을 그대로 적용받고 있어서 설립인가부터 감사, 조사, 보고, 평가에 이르기까지 일반 국내 사립대학에 적용되는 법령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외국대학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없다. 따라서 말레이시아 국립대학에 적용되는 인종 쿼터제(말레이인에게 55% 입학우선권 부여)의 적용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위치에 있다.

한편 건축부지나 건축비, 운영비 등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정부로부터의 공식적인 지원은 없다. 말레이시아 내 지주회사(holding company)를 통해 대학이 설립, 운영되므로 재정운용도 지주회사에서 책임을 지게 되고, 정부로부터의 공식적 지원도 없으며 국내 대학과 다른 별도의 특별한 통제도 없는 방식이다.

1) 말레이시아의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부와 고등교육부로 이원화되어 있다.
2) <http://mys.mofat.go.kr/korean/as/mys/information/education/>

IV. 말레이시아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기준 및 심사

말레이시아의 대학은 크게 University Status, University-College Status, Non-University Status로 구분된다. University Status는 일명 4년제 대학들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 국공립대, 사립대, 외국대학 분교(Foreign University Branch Campus)로 분류된다. University-College Status는 종합대학(University)과 단과대학(College)의 중간 형태로 지난 2004년부터 일부 학과에 독자적인 학위수여권이 부여되면서 생겨났으며 대기업 체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University-College에서는 독자적인 학위수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학과의 경우 외부 학교의 학위프로그램과 연계된 학위수여도 가능하다. Non-University Status는 독자적인 학위수여는 불가능하지만 외국대학과 연계하여 학위수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이 설치된 교육기관으로 College나 Institution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표2〉 말레이시아 대학교육 체제

유형	특징	종류	숫자
University Status	독자적으로 학위 수여	국공립대학	11
		사립대학	11
		외국대학 분교	4
University-College Status	독자적인 학위 수여 기능과 함께 일부 학과는 외국대학과 연계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프로그램 진행	국공립	6
		사립	5
Non-University Status	독자적인 학위 수여가 불가능하며 외국 대학과 연계하여 학위 수여 가능	College 또는 Institution	519

※ 출처 : 주 말레이시아 대사관 홈페이지(<http://mys.mofat.go.kr>)

말레이시아 대학체제에 있어서 외국대학 분교는 University Status에 속하는 사립대학의 하나로 간주되어 설립기준과 심사기준도 국내 사립대학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설립심사를 하고 있으며, 일반 국내 사립대학에 대한 조사, 보고, 감사, 평가 등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국내 사립대학과 동일하게 질 관리를 하고 있다.

V. 말레이시아 사례를 통해 본 외국교육기관 유치 발전전략과 과제

말레이시아 정부도 우리나라처럼 적극적으로 외국대학을 유치하여 자국학생이 외국으로 유학 가는 것을 줄이고 국내에서 외국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한다거나 설립 건축비 등을 지원하는 등의 재정적 지원은 하고 있지 않다. 일본, 중국, 싱가포르, 두바이, 카타르 등 여러 국가들이 학교 부지를 제공하거나 설립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등 외국대학 분교 설립에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반해 말레이시아는 별도의 공식적 지원이 없다는 점에서 특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단지 영리법인으로서 말레이시아 지주회사를 통해 외국대학 분교를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일종의 국내 학교 영리법인을 세워 국내 사립대학과 같이 안정적으로 학교를 설립,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을 기업과 같이 취급하고 있어 세금도 기업이나 대학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등록금을 규제하는 규정도 따로 없어 우리의 대학 제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외국교육기관 분교 설립에 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에는 현재 4개의 외국대학 분교가 설립·운영되고 있고, 여러 외국대학들의 말레이시아 분교 설립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말레이시아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외국교육기관 유치 활성화에 시사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향후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발전적 전략과 정책과제를 제안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외국교육기관 설립 규제

첫째, 외국대학 설립 규제에 관한 것으로 말레이시아에는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대한 규제가 별로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해

경제자유구역 중 일부 제한된 지역에만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자유구역이 대부분 도심과 멀리 떨어진 공장지대이므로 수도권 대비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고 생활기반 시설이 낙후되어 있으며, 낮은 지방 재정 자립도 및 중앙정부 재정지원의 한계로 인해 우수 외국대학의 유치는 물론 정상적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특히 지금까지는 우수한 외국대학의 '유치' 그 자체에 재정적 지원을 비롯한 정책방향이 집중되었고 유치 이후의 학생모집 등 운영 정상화에 대한 관심은 그리 많지 못했다. 광양 STC-Korea, 부산 FAU, 송도국제도시의 스토니부룩 등 우수 외국고등교육기관을 유치했지만, 유치 이후에 이들 대학이 학생모집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나라에 진출하려는 우수 외국대학의 입장은 소극적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 현재 이들 학교의 학생 확보 전망이 그리 낙관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학생 확보가 어렵고 졸업생들의 진로가 불확실하다면 실패의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 우수한 외국대학의 유치와 정상적 운영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 개발과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의 지리적 원격성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외국대학의 교수진이나 스태프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설비투자 확대가 요청된다.

2.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심사 기준

둘째, 말레이시아의 외국대학 분교는 국내 사립대학과 동일한 설립기준과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일원화된 설립심사를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일반 사립대학과 달리 일차적으로 해당 경제자유구역청이 설립심사를 신청하면 '외국교육기관 설립심사위원회'를 통해 서류심사, 면담심사, 현장실사, 종합심사의 심의단계를 거친 후 다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을 거치게 되고 최종적으로 교과부 장관의 설립 승인이 이루어지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약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뿐만 아니라 심사 매뉴얼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심사준비 및 심사과정의 전문성과 일관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

선하기 위해 외국교육기관 설립심사위원회 내 분야별(법·재정/운영·교육과정) 소위를 구성하여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설립심사 절차를 효율화하는 동시에 심사매뉴얼(한·영)의 보급·활용을 통한 제출서류의 간명화가 요청된다.

3. 외국교육기관 설립 주체

셋째, 설립주체의 자격에 있어서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주변 경쟁국인 일본, 중국, 싱가포르, 두바이, 카타르 등이 모두 영리법인과 과실송금을 허용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역시 외국대학 본교에 학사운영비(academic management fee)를 합법적으로 지불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우리와 같은 과실송금 논쟁이 없으며, 공식적으로 외국대학 본교에 운영비를 지불하는 것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주체의 자격이 비영리 외국학교 법인으로 제한되어 있다. 해외에 대학을 설립하여 진출하는 경우 초기 시설비·운영비 등 투자회수를 위한 잉여금 송금을 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교육기관이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되어 있어 비영리법인 회계에서 결산상 잉여금의 전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영리법인의 진출을 허용하고 이에 따른 과실송금 문제를 관계부처 협의와 법 개정을 통해 풀어나가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외국교육기관 질 관리

넷째, 외국교육기관의 질 관리 시스템의 확보이다. 말레이시아 대학체제에 있어서 외국대학 분교는 사립대학의 하나로 간주되어 일반 국내 사립대학에 대한 조사, 보고, 감사, 평가기준 등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동일한 수준의 질 관리를 하고 있으며, 다른 주변국들 또한 외국 대학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질 보증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부터 UNESCO/OECD의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국가 수준의 고등교육 질 보증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이에 따라 대학은 매년 대학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공

시시스템에 공개하고 있으며, 격년제로 대학 자체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정보공시시스템에 탑재하고 있다. 또한 대학 평가기구에 대한 정부 인정제를 실시하여 평가기구의 질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 국가 수준의 질 관리 체제가 비교적 늦게 구축된 탓에 질 보장의 대상 범위가 국내 대학으로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 간을 이동하는 고등교육 수요자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국내 대학의 학위 및 학점, 자격 등의 국제적 통용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고등교육 평가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외국대학에 대한 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최근 질 관리에 대한 검증과정 없이 무분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유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국제화 성과 창출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된 점을 감안하여, 외국대학 유치에서 그치지 않고 그 성과와 실효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해 체계적인 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5. 외국교육기관과의 교류 프로그램

다섯째, 다양한 Twinning Program 운영 등 이미 많은 사립대학에서 외국대학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으로 인해 외국 대학 유치의 기본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호주의 모나시대학교와 노팅험대학 사례를 통해 볼 때, 약 20여 년간 30여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말레이시아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해당 대학의 교육프로그램과 대학에 대한 신뢰와 명성을 축적한 다음 분교를 설립함으로써 학생 모집과 운영 측면에서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 방식과 같이 학교 부지 및 시설 등의 하드웨어 투자를 전제로 우수 외국대학 분교를 유치하는 'one-shot' 또는 'package' 전략보다는 전문분야 또는 질적으로 우수하거나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국내 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 대학 분교를 유치하는 단계로 발전시키는 점진적 전략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공동학위/복수학위과정' 또는 국내 대학에서 일부(1년 또는 2년), 본교에서 나머지 학년(1년 또는 2년)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외국 대학이 국내 고등교육시장의 환경과 학생 및 학부모의 수요, 졸업생들의 진로 등에 대해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쌓은 다음 이를 토대로 국내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제한된 자원의 제약 하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재정적 지원 부담을 지는 것보다 외국 대학이 국내에 진출할 수 있는 모티베이션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효과적인 전략으로 판단된다. 현재 국내에서도 일부 대학에서 외국 대학과 1+3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데 이러한 1+3 교육프로그램의 특징은 국내 대학의 1년 과정이 해당 대학의 정규 학사조직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닌 별도의 조직(예를 들면 국제교육원, 글로벌학사운영센터, 미래지식교육원 등)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 대학에 적용되는 법이나 학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유연성 있게 탄력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우수대학들이 국내 대학과 이러한 학술교류협정이나 공동/복수학위 과정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계시켜주는 정책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해당 외국 대학에 대해서도 해외로의 분교 진출로 인한 위험부담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으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현재 국내에 진출한 외국교육기관 분교도 한국의 분교에서 1년 또는 2년 과정을 이수하고 해외 본교에서 나머지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유연성 있는 학사운명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직하다. 이는 학생의 입장에서 본교가 위치한 외국의 문화와 생활을 직접 체험해보는 기회를 통해 진정한 글로벌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공교육에서 '발도르프교육'을 꿈꾸다 강원 고성 공현진초등학교

●

글

김용근
공현진초등학교 교감



우리는 이렇게 시작했다

국내 최초로 공교육에 발도르프교육을 도입한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큰 관심거리가 되어 지금 학교가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어느 날 강원도형 혁신학교인 강원행복+학교를 만들기 위해 급조한 것도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에서 그것도 공교육에서 발도르프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그동안은 학급단위에서 연구하고 실천해왔으며, 발도르프교육 교사모임을 통해 역량강화를 꾸준히 해 오다가 2012년 강원행복+학교 운영 신청공모를 통해 그 모습을 세상에 드러냈다. 혁신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급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한 것들을 하나씩 풀어내고 있는 것이다. 다가올 미래에 대한 준비, 이것이 지금의 공현진초 모습을 바꾸어나가고 있다. 준비된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서를 통해 그 내실을 다져나가는 학교, 3월부터 시작해서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공현진초에서는 학교문화가 바뀌고, 선생님들이 달라졌고, 아이들이 행복해지고, 학부모들이 흐뭇해지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아이들이 꿈꾸는 학교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공현진초의 기본 사명이다.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학교 현관을 들어서서 현황판을 보거나 학교교육계획서를 살펴보면 기존 학교들과 확연히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해서 공현진초가 아이들을 위해 해야 할 6가지 과제를 분명하게 명시했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지적 학업성취뿐만 아니라 상상력, 교육예술, 도덕적 신장을 강조하는 교육내용의 제공을



우리의 사명

우리 공현진초등학교는 학생의 지적 성취 뿐 아니라 상상력, 교육예술, 도덕적 성장을 강조하는 교육내용 제공을 우선으로 합니다. 머리, 손, 마음으로 학교는 학생들을 스스로 훈련하고, 창조적이며, 실용적이고도 합리적인 평생학습자, 독립적 사고자로서 자라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고등교육(상급학교) 준비가 아니라 학생의 남은 삶을 준비하는 개별화되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교사와 가족, 공동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하고 이용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원지역 강원행복+학교와 지속적인 교류를 해 나가겠습니다.

1. 그림, 음악, 연극, 움직임, 노래, 조소, 수공예, 목공예 따위의 예술로 살아있는 교육과정을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아이들 학업능력의 탁월함을 보장합니다.
2. 나이와 발달단계에 따른 교육으로 배우고 성장이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다양하고 통합된 방법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개념을 배우는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나아가 세상을 향한 관계를 바라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4. 호기심을 키워줌으로써 상급학교 진학후에도 계속해서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심어주겠습니다.
5. 책임감, 인내심, 진실성, 자기호련, 신뢰성, 손재주, 우정, 동정심을 포함한 기본적인 가치들과 생활의 기술들을 장려하겠습니다.
6. 우리의 교육활동이 이 세상의 공정사회·공정교육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우선으로 하는 데 있다.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학교의 기본 핵심이다.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공정사회·공정교육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게끔 하는 것이 공현진초가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사명이다. 이것을 기초로 학교교육계획서도 49쪽으로 확 줄였다.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육목표, 학사일정, 교육과정, 평가들의 내용을 가지고 만들었다. 형식을 과감히 내려놓았다. 학교교육 목표도 궁극적으로 강원행복+학교와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맞춘 교육이념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해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인간육성'을 내세웠



다. 전인적인 인간을 단순히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운영하기보다는 전체 학교교육과정 속에 녹여내어 운영하고 있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살아있는 교육과정 운영¹⁾

교과서를 내려놓자

단순히 기존 교육과정에서 하기 힘들었던 생태체험이나 현장학습을 운영한다고, 공문서나 교사업무를 조금 줄이는 것이 혁신일까? 물론 1차적으로 이런 것이 필요하나 조금 더 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추진해 나갔다. 그래서 먼저 기존 교과서를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쉽지 않지만 일단 부딪혀보기로 했다. 아이들의 창의성 개발의 가장 좋은 방법은 교과서를 가르치지 않는 것이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있되, 내용을 담아가는 것은 획일적인 교과서가 아닌 교사가 살아있는 교과서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 학교의 강원행복+학교 운영의 주제가 '맞춤형 교육과정 모델선도학교'다. 맞춤형 교육과정의 핵심은 바로 주어진 교과서대로 획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살아 있는 교과서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그대로 준수하는 교육과정의 운영이 아닌 교사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살아 있는 교육과정을 만드는 학교(개정 2009년 교육과정에서 교사의 자발성을 중요시함) 교육과정에 대한 재구성을 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혁신학교를 추진할 수 없다. 교육과정은 있지만 교과서가 없는 학교, 상상가지 않겠지만 실제 그런 학교가 혁신학교다. 교육과정은 있지만 교과서가 없는 학교, 아이들 책상 위에 교과서가 없이 공부하는 학교가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까? 이런 학교

를 현실로 만들어 보았다. 온 나라 방방곡곡 아이들이 비슷한 시기에 아니면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교과서 내용을 배우고 있는 것 자체가 획일화 교육이 아닐까. 교과서가 없다면 당연히 평가도 교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되고, 이렇게 되면 굳이 학원에 가서 선행학습이나 사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더구나 공현진초에서는 도입-전개-절정-결말의 기존 수업지도안 대신 발도르프교육의 감각교육을 기본으로 하는 그야말로 형식보다는 내용에 충실한 수업지도안을 획기적으로 개발하고 수업시간에 활용하고 있다.

사람교육을 기계가 대신하지 않는다

공현진초에서는 수업시간에 텔레비전과 컴퓨터를 이용한 수업을 하지 않는다. 이용한다면 고학년에서 주로 하



1) 원고지면 관계상 여러 사례 가운데 몇 가지만 소개함을 전제로 합니다.

고, 하더라도 그 시간은 몇 분 이내다. 수업에 꼭 필요한 부분만 활용하는 것이지 온종일 맹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기계가 사람교육을 대신할 순 없다. 감성교육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주기집중(에포크)수업을 통해 다양한 리듬과, 시, 노래, 놀이로 아이들의 손과 가슴을 자극하여 궁극적으로는 감성이 풍부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공현진초가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인 것이다. 디지털 기계를 이용한 수업이 화려하고 편리할지 모르나 아이들의 감각과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분명 알아야 한다.

기존 책상과 의자가 없는 교실

공현진초에서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교육과정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움직임교육'으로 한국에서 최초로 발도르프 교육 관련 움직임교육을 우리 교육과정에 끌어들이고 운영하고 있다. 무엇을 어떻게 왜 가르쳐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실천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왜 움직임교육이 우리 학교현장에 필요한 것인가? '움직임교육'이 단순히 체육교과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고, 교사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아이들의 사고, 감정, 의지 모두를 아우르는 기본교육이다. 움직임교육을 하지 않거나 모른다면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미 완성된 교과서내용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거나 사기업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컴퓨터 마우스 클릭수업을 한다면 모를까? 움직임교육은 저학년에서 감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조건이다. 기존 책상과 걸상에 앉아서 동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 체육관으로 옮기지 않고서는 수동적인 활동이 대부분이다. 있다고 하더라도 교탁 앞에 나와서 잠시 해보는 것으로 모든 아이들의 감각활동을 충족시킬 수 없다. 왜 유치원이나 저학년 아이들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몇 시간씩 수동적인 수업을 받아야 할까? 아



이들의 몸을 자유롭게 이끌어 내야 가르치는 것이나 배우는 것이 즐겁다.

공현진초에서 1, 2학년 교실에 움직임교육 관련 책상과 방석은 기존 학교들이 해오지 않았던 가장 혁신학교다운 혁신 교육프로젝트라고 본다. 아이들의 정서와 인성, 지적 활동에서 놀라운 성과를 가지고 온 것이 바로 이 '움직임교육'이다. 중요한 것은 학교장이나 담임교사들이 이에 대한 실천 의지가 있으면 다른 학교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12감각을 키우는 움직임(서커스)교육


우리 공현진초에서는 아이들의 균형감각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 월요일과 금요일에 전교생이 체육관에 모여서 움직임교육을 한다. 단순히 신체활동을 위한 체육요소의 하나가 아니고, 전체 교육과정의 기본이 되는 토대라고 보면 된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과정에서 균형감각을 키우려면 먼저 체육수업을 떠올릴 것이다. 우리 체육교과서에 저글링, 디아블로, 접시돌리기, 스카프저글링, 원돌리기, 외발자전거, 짐볼 구리기 등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지 않다. 과연 이러한 것들이 아이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인가? 기껏 서커스 공연에서만 보는 것일까? 움직임활동이 아이들 성장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 학교폭력 해소,



학업성취에 많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교육을 배우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 ICT, 한문, 영어, 독서 등을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크다. 우선 아이들이 신나게 배운다. 담임교사가 이 부분에 소질이 없다고 해도 요즘 학교현장에 스포츠강사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고 부탁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교사가 이러한 것을 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교육혁신에서 교육혁명으로

가르침에서 깨달음이란 무엇을, 어떻게, 왜, 가르쳐야

할지, 또 아이들 발달단계에 따라 어떤 교육내용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원론적인 자기고민들을 새롭게 다시 해본다면 가르침이라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교육은 근본에 충실해야 한다. 단순히 틀에 박힌 교과서 내용을 잘 전달한다고 가르침의 소임을 다한 것은 아니다. 아이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들의 처지에서 꼭 필요한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가르침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공현진초에서 교육혁명적인 내용들은 단순히 일회성이 아닌 오랜 시간 준비한 것들에 대한 결과물이다. 형식보다는 내용에, 관행보다는 혁신에 무게를 두었고,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의 본질을 찾아가 하는 것이다. 공현진초의 교육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화를 거듭해 나가고 있다. 



즐거운 배움, 따뜻한 감성교육 펼치는 경기 양평 지평중학교

•

클

허행운
경기일보 기자





“사생활은 있는 그대로 그려야 하겠지만, 보는 이의 느낌에 따라 달라 보일 수도 있다.” 초여름 햇살이 제법 따갑게 쏟아지는 교정 한켠에서 정돈희 미술교사의 조금은 엄하지만, 때로는 자상한 설명이 이어지자 학생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거렸다. 이윽고 학생들은 스케치북과 물감을 들고 곳곳으로 흩어져 그리기에 여념이 없었다.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 553에 위치한 자그마한 시골학교인 지평중학교의 수업들은 이처럼 여느 학교와는 다르게 창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954년 6개 학급으로 개교한 이 학교는 올해부터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혁신학교’로 지정받아 창의성과 다양성 등을 바탕으로 고도화된 지식기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목표로 학사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비록 반세기가 지난 현재 각 학년당 1개 학급에 특수학급 1개 학급 등 모두 4개 학급으로 학생 수는 줄었지만, ‘혁신학교’ 지정 이후 짜임새 있고 내실 있는 학사운영으로 도회지에 서도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로 거듭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세상과 소통할 수 있을까

대다수 교사들이 그렇듯, 조광희 지평중학교 교장도 학생들이 교문으로 들어서면서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표정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 하지만, 어두운 표정의 학생들을 보면 뭔가 우리가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조 교장은 “진정한 가르침이란 모름지기 즐거움 속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감성”이라며 “학생들이 등교하는 게 즐겁지 않다면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강조했다. 평소 올바른 교육에 대한 그의 철학이 궁금했다. 물론, 교육이라는 방정식은 철학이라는 학문으로는 풀어 낼 수는 없다. 교육이다 획일적으로 단순화되고, 학교들마다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듯, 똑같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래도 나름대로 철학이라는 딱딱한 개념보다는 뭔가 부드럽고, 자녀를 학교에 맡긴 학부모들이 쉽게 납득할 만한 소신이나 가이드라인은 있지 않을까.

“동양에선 예로부터 가르침은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이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육의 방향도 이젠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인성을 우선 가르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육에 대한 저의 소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학교가 경기도교육청의 혁신학교 프로그램은 늦었지만 의미가 깊다.

조 교장이 지난해 처음 이 학교에 부임했을 때는 참으로 막막했다. 전형적인 시골마을이어서 학생들이 해가 거듭될수록 줄어드는 까닭도 있겠지만, 학교현장에서만의 ‘공교육’으로 도회지 아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척박한 교육환경 때문이다. 그렇다고 영어와 수학 같은 비중 있는 과목들을 무시할 수도 없다. 해안이 필요했다.

신문, 또 다른 SNS를 발견하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신문읽기를 통한 ‘세상과의 소통’이었다. 조 교장은 어찌면, 이를 통해 획일적인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진정으로 남을 먼저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 참다운 교육이 가능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통찰적 사고력을 지닌 지성인을 기르고,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고, 심신이 건강하고 함께 꿈을 키워가는 건강한 사회인을 배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학생들이 신문읽기를 통해 기성세대와 소통하고, 더 나아가 세상과 폭 넓은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세상이야기에는 국어는 물론, 영어, 수학과 과학, 미술, 음악 등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신문이라는 매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그리고 흥미롭게 이들 과목들과도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 학교에서 NIE교육이 진행된 것은 1년 남짓 되었다. 교사들은 이제 NIE교육을 통한 프로그램에 대해 확신하고 있다. 지평중학교는 한가지 신문만 읽지 않고, 보수적인 성향과 진보적인 성향 등 다양한 매체들을 골고루 읽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 학교가 으뜸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이다.

“물론, 디지털시대를 맞아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서도 세상과 소통할 수 있지만, 매일 아침마다 잉크냄새가 풍기는 신문을 직접 읽음으로써 학생들이 세상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권오경 교감의 설명처럼, 이 학교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 것이다.

수업현장을 들어가 보자. 학생들은 매일 수업을 시작하기 전인 오전 8시20분부터 30분 동안 조간신문들을 꼼꼼



하게 읽고, 신문기사를 통해 알게 된 내용들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를 공책을 통해 꼼꼼하게 보고서로 작성해 발표한다. 실제로 이 학교 3학년 한 학생은 최근 모 대학 재학생들이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북송 반대 집회를 벌인 데 대해 “요즘 사람들은 자신과 직접 관계 없는 일에는 무관심한데, 이처럼 용기를 갖고 집회를 열고 있는 대학생 선배들을 닮고 싶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등 다양한 견해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신문에 소개된 인물들에게 편지를 쓰는 코너도 운영되고 있다.

올해 초 스마트폰을 창안한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가 별세했다는 소식에 학생들은 격려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학생들 스스로 축제 등 교내 행사에 대해서도 신문을 통해 익힌 솜씨로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 학교 측은 이같은 학생들의 열정들을 담은 전시회도 열고 우수한 보고서에 대해선 시상도 할 계획이다. 물론, 신문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성적이나 수치로 정확하게 집계되지는 않고 있지만, 적어도 긍정적인 결실은 기대되고 있다.

Kin-Ball, 협력을 배우는 광장

직경 1.2m, 무게 0.9kg의 가볍고 큰 전용 공(에드벌론볼)



현장르포

을 이용해 세 팀이 서로 서브와 리시브를 주고 받으며 점수를 내는 킨볼(Kin-Ball)은 경기에 참가하는 팀원들의 호흡이 맞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진행할 수 없는 종목이다. 지난 1984년 캐나다 퀘벡에서 체육학자인 마리오 두마가 창안한 킨볼은 협력을 배우는 차원에서 독특한 스포츠이기도 하다. 킨볼에 사용되는 볼은 체공시간이 길고 안전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시켜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다. 지평중학교 학생들은 지난해부터 매주 목요일 7교시는 물론, 틈이 나는 대로 킨볼을 즐긴다. 그러면서 서로 호흡을 맞춘다.

이 학교를 찾으면 체육시간은 물론, 쉬는 시간에도 학생들끼리, 또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서로 큰 풍선을 굴리는 모습을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다. 흘리는 땀에 비례해 그만큼의 협동심도 배우고 튼실한 믿음과 우정도 쌓아가고 있다. 권오경 교감은 “서브 전에 반

드시 ‘옵니킨’이라는 말로 신호를 보내고 리시브 팀의 색깔을 외쳐 리시브 팀을 지정하며, 같은 편 인원 전부가 서브 순간에 볼을 건드리면 안 되고, 한 사람이 계속 서브할 수 없는 규칙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지혜를 익히게 된다”며 “교실에서 이론적으로만 협동심을 강조한다고 우정이 쌓여지는 게 아니라, 이처럼 킨볼을 통해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배려도 익히게 된다”고 말했다.



창의·지성교육을 위한 배움 중심의 교육과정

이 학교 학생들은 딱딱하고 지루한 교과서에서 벗어나 각 교과목별로 창의적이고 지성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세상을 익히고 있다. 우선 체육과의 경우, 양평읍 모 볼링장에서 전교생들이 볼링을 배울 계획이다. 영어과도 용문면에 위치한 양평영어마을에 전교생들이 입소, 닷새 동안의 일정을 통해 영어권 국가들의 문화를 체험하면서 살아있는 생활영어를 익히게 된다. 도덕과의 예절교육도 빼놓을 수 없다. 학생들은 양평 강남예절교육원에서 한복 바르게 입기, 찻자리 예절, 인사방법, 올바른 복장, 식사예절, 교복 바르게 입기 등을 익히면서 올바른 인성을 배운다.

과학과 탐구·실험 프로그램은 다양하다. 1학년은 액화질소를 이용한 실험, 드라이아이스 만들기, 잎의 기공 관찰, 정전기 유도실험 등을 체험하고 있다. 2학년은 금속의 열용량 측정, 금속원소의 불꽃반응, 빛의 굴절실험, 별자리 관찰 등에 참여할 수 있다. 3학년은 뇌모형 맞추기, 자극의 전달속도 관찰하기, 지구 복사평형 실험, 구름의

생성원리 관찰, 꽃가루관의 발아과정 관찰 등 도회지 학교 학생들이 부럽지 않다. 사회과는 우리 고장의 인물이나 문화, 유적 등을 탐사하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밖에도 전교생들은 매주 수요일 6~7교시에 사물놀이, 락밴드, 축구, 배드민턴, 쿠키와 빵 만들기, 포토숍, 명상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들을 즐기고 있다. 이 학교 학생들의 등교가 즐거운 까닭이기도 하다. ‘공교육’의 존재이유이기도 하다.

학습능력을 키우는 즐거운 수업

여느 시골학교들과는 다른 게 또 있다. 각 과목별로 인

턴교사를 활용, 학생들에게 도회지 학원 못지 않은 심도 깊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수업방식이 그것이다. 대학처럼 과목별로 수강신청을 받아 운영하는 교과교실제도 한 몫을 하고 있다. 학생들은 학기 초 수업 받을 과목을 신청한 뒤 동일한 수준의 학생 16명이 한 교실에서 인턴선생님으로부터 심화교육을 받고 있다. 학교 측은 이를 위해 과학실과 공통교과실(도덕, 사회), 도서실(국어과), 어학실습실(영어), 수학교실, 기술·가정실 등으로 교실들을 리모델링하고 전자칠판도 설치했다.

기존의 수업방식도 크게 개선했다. 영어의 경우 영어 본문을 녹음해 인터넷 카페에 올리기와 플래시 카드를 만들어 연중 이용하기 등으로 운영되고 과학도 탐구중심 체험 학습으로 이뤄지며, 사회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활용한 이미지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학생들은 각 과목별로 재미있고 흥미롭게 접근해 배우고 있다.

존중과 배려의 민주적 학교문화


이 학교는 지금까지 단 한건의 학교폭력도 발생하지 않았다. 교사들과 학생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학급을 운영하는 등 존중과 배려가 녹여진 이 학교만의 독특한 문화 때문이다. 물론, 가끔씩은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그 흔한 '왕따'도 없다. 한 교사는 “학생들은 학기초에 학급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결정하고, 이를 실천하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감도 자연스럽게 익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자치회가 기획하는 테마체험학습도 이 학교만의 자랑이다. 교사들은 학생자치회의 결정을 대부분 존중해주고 있다. 실제로 이 학교 학생들은 지난해 1학년의 경우는 남이섬으로 '프랑스 문화체험', 2학년은 오대산 월정사와

상원사 등지로 '생태체험', 3학년은 서울 코엑스로 '해양생태체험' 등을 각각 다녀왔다. 체육대회도 학생자치회가 준비하고 주관하고 있다. 올해도 오는 10월 중순 개최할 예정으로 각 종목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준비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소통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학교 공동체

지평중학교의 가정방문은 도회지 학교들의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가정방문과 크게 다르다. 담임교사가 애정을 갖고 학기 초에 학생들의 가정을 찾고, 가정방문을 통해 파악된 가정환경을 토대로 학생들의 부모나 멘토가 되어주고 장학금 혜택이나 학비 지원 등도 이뤄지기 때문이다. 학생의 기초학력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선 여러 교과 선생님들과 의논해 친절한 보충교육도 진행된다.

다른 학교들과 차별화된 학부모들과의 협력도 빼놓을 수 없다. 물론, 학부모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어려운 점도 있지만, 매월 첫째주 목요일 학부모회의를 여는 등 학부모와의 파트너십도 구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부모들이 스스로 도서관 운영에도 참여하고 있다. 교내 시설인 지식체육관도 배드민턴클럽과 지역주민들에게 트레이닝 공간으로 매일 개방되고 있다. 시골학교의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현장르포

방과후 창의적 체험활동 '1인 1기' 학생들 꿈 찾아주는 나침반 서울 현대고등학교

글 전민희 중앙일보 기자

사진 황정옥 중앙일보 기자, 현대고등학교



지난 봄 오후 5시 무렵, 서울 강남에 위치한 현대고등학교를 찾았다. 정규수업이 끝나면 조용해지는 여느 학교 분위기와는 달리 교내가 시끌벅적했다. 방과후 창의적 체험활동인 '1인(人) 1기(器)'에 참여하는 학생들 때문이다. 현대고 1학년 학생은 매일 8교시에 경제·체육·예술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한다. 이 시간을 통해 대입 입학사정관 전형에 활용할 '스펙'을 만들고, 자신만의 꿈과 진로를 찾는다.

현대고등학교가 인성·진로교육의 하나로 '1인 1기' 프로그램을 개발한 건 자율형 사립고 전환 1년 전인 2010년 3월, 서범석 교장(61)이 부임하면서다. 교육과학기술부 차관까지 지내며 '교육통'으로 불리우던 그는 현대고로 자리를 옮긴 뒤 고등학생에게 진정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고민했다. 지식만 갖춰서는 차세대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성공으로 가는 열쇠"라는 결론을 내렸다. '1인 1기'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도 학생들이 고교시절 자신의 적성을 일찍 파악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해나가면서 구체적인 진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현대고 1학년 학생의 교육목표는 '체(體)·덕(德)·지(智)'입니다. 건강한 신체가 뒷받침 돼야 바른 인성을 갖고 지식을 배울 수 있죠." 서 교장은 "1학년 때만이라도 체육과 음악·미술 분야 중 하나를 골라 배우고 익히면서 특정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도입 초기엔 상당수 학부모로부터 "국어·영어·수학에 치중하지 않는다."는 불만섞인 소리를 들었지만, 요즘은 오히려 "1인 1기를 통해 아이의 집중력이 향상됐다."는 얘기를 듣는다. '1인 1기'는 이제 현대고 학생들이

꿈을 찾는 기회의 장이자 공부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창구로 자리매김했다.



자동차항공기연구반 박주호(2학년)군 ;

“보트·자동차 직접 만들었죠.
신동력 개발하는 연구원 될래요.”

“자동차항공기연구반라니까 자동차와 항공기에 대한 이론적 지식만 쌓는 줄 아셨죠? 아니에요. 자동차와 보



현장르포

트·항공기를 직접 만듭니다.” 박주호(2학년)군은 기자를 자동차항공기연구반 교실로 안내하며 이렇게 말했다. ‘고등학생이 자동차를 직접 만든다는 게 말이 되나?’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자동차항공기연구반 교실 문을 여는 순간 의심은 사라졌다.

교실은 말 그대로 난장판(?)이었다. 일반 교실의 1.5배 크기인 그곳에는 보트, 잠수함, 차체 없는 자동차가 가득했다. 책상 이곳 저곳에는 주사기와 발사나무(모형비행기·장난감 만드는 데 사용되는 목재)로 만든 크레인이 놓여 있다. ‘발사나무 크레인’은 자동차항공기연구반에 들어온 학생이 처음에 만드는 작품이다. 그 과정에서 건물·교량에 사용되는 트러스 구조를 이해한다. 박군은 크레인 바닥에 붙어 있는 4대의 주사기를 위·아래로 움직이며 책상 위에 놓인 지우개를 집어내는 모습을 보여줬다. “처음 목표는 계란을 옮기는 것이었어요. 크레인을 어떤 구조로 설계해야 더 튼튼

할 지, 집는 부분의 모양을 어떻게 만들지 수도 없이 고민했죠. 완성된 후 계란을 옮겼을 때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현대고 자동차항공기연구반은 1991년 자동차와 항공기 연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여 만든 동아리다. 이듬해 하이브리드 자동차(유해가스 배출량을 줄인 환경자동차)를 설계·제작했고, 1994년에는 1L의 휘발유로 1,0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었다. 1996년엔 1인승 헬기를 제작·발표하면서 각종 과학·기술잡지에 연구성과가 게재되기도 했다. 현재는 1인 1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초구에 사는 박군이 지난해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한 현대고에 지원한 동기도 자동차항공기연구반에 들어가고 싶어서였다.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모터쇼에 갔다가 자동차업체에서 나눠주는 안내책자를 받았어요. 차량별 배기량과 연비·마력 등이 적혀 있더군요. 이를 활용해 자동차 성능을 비교하고, 연비 대비 마력을 계산하는 작업이 흥미로웠습니다.” 이후 ‘자동차 개발자’의 꿈을 갖게 됐다. 고교에 진학한 뒤 자동차항공기연구반에서 자동차·항공기·보트 설계와 관련한 지식을 쌓고, 직접 제작하면서 ‘신동력을 개발하는 연구원이 되겠다’고 꿈을 구체화했다. 동아리 활동 경험을 살려 서울대 수시모집 특기자 전형으로 기계항공공학부에 입학하는 게 1차 목표다. “자동차항공기연구반을 통해 확실한 꿈을 찾았고, 꿈을 향해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어요. 20년 후에는 제 손으로 환경오염 걱정 없는 자동차·항공기를 만들 겁니다.”



오케스트라반 전재우(1학년)

“국민MC를 꿈 꿉니다. 오케스트라 이끌며 미리 무대를 경험하죠.”

지난 3월 고교 입학식에 참석한 전재우(1학년)군은 의구심이 들었다. ‘왜 학교 행사에서 교내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안 하지?’ 현대고에 지원하면서 주위 선배들로부터 현대고의 1인 1기 프로그램에 대해 들었던 그는 당연히 교내 오케스트라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아주중 재학 시절 한 사설 오케스트라에서 바순을 연주했던 전군은 당시 경험을 살려 고교 진학 후에도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할 기대에 부풀어 있던 터였다. 하지만 현대고에는 오케스트라가 없었다. 방과후 창의적 체험활동의 하나로 악기연주반과 바이올린반·클라리넷반·플룻반이 있을 뿐이었다. 학교 측에 “왜 교내 오케스트라는 없느냐?”고 물으니 “희망하는 학생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전군은 자신이 직접 교내 오케스트라를 결성하기로 마음 먹었다. 재학생들도 교내 행사에서 친구와 후배들이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 자부심을 느낄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4개 반으로 나뉘어 있는 악기연주와 관련된 방과후 체험활동을 하나로 통합한 뒤 단원 20명과 객원연주자 10명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지휘자를 자청했다. 결성된 지 한 달 남짓,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음악 열정과 학교 사랑으로 똘똘 뭉쳤다. “4월 30일 1학년 학생들의 꿈이 담긴 타임캡슐을 봉안하는 행사가 열렸어요. 현대고 오케스트라의 첫 공연이 이뤄진 날이었죠. 1개월 동안 아침·저녁으로 연습한 공연을 학생·교사들에게 선보인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설렙니다.”

그가 오케스트라에 열정을 갖는 이유는 또 있다. 장래 희망인 MC에 한 발 다가서는 교두보가 될 거란 확신 때문이다. “오케스트라 지휘와 MC가 무슨 관련이 있냐고 의아해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공통점이 많아요. 무대에 선다는 것이 닮았고, 나 아닌 누군가와 조화를 이뤄야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현장르포

수 있다는 사실이 비슷하죠.” 오케스트라는 연주자 한 명의 실력이 뛰어나다고 좋은 공연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휘자는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가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소리를 이끌어내 청중에게 전달해야 한다. MC도 마찬



가지다. PD와 카메라맨·작가들의 의도를 파악해야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고교 시절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활동하면서 가능한 많은 무대에 서고 싶어요. 무대 공포증도 없애고 리더십도 키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활동은 대입에서도 저만의 ‘스펙’이 될 수 있겠죠.” 신문방송학과에 진학해 국민MC를 꿈꾸는 그의 도전은 이미 시작됐다.

고교생 미래CEO과정 박윤석(2학년)군

“매킨지 같은 세계적 컨설팅회사 설립하겠습니다.”

박윤석(2학년)군은 어려서부터 경영분야에 관심이 많았다. 신문을 봐도 경제나 기업 관련 기사에 먼저 눈이 갔다. 자연스레 경영·경제학과 진학을 꿈꾸게 됐다. 하지


만 ‘이들 학과를 졸업한 뒤 어떤 일을 할까’에 대해선 뚜렷한 목표가 없었다. 그랬던 그가 고교 진학 1년 만에 경영컨설턴트라는 구체적인 꿈을 갖게 됐다. 요즘엔 매일같이 세계적 컨설팅 기업인 ‘매킨지’에서 일하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린다.

‘고교생 미래CEO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물이다. 고교생이 갖춰야 할 경제감각과 경영마인드를 키워내기 위해 현대고가 만든 경영·경제 프로그램이다. 1년 동안 16차례에 걸쳐 대학 교수나 기업 CEO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한다. ‘대한민국 일등상품 마케팅 전략’ ‘애플과 삼성의 리더십’ ‘청년 CEO의 경영 스토리’ 같이 청소년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주제들로 짜여졌다. 박군은 상명대 경영학과 권기환 교수의 강의를 가장 인상 깊었다. “아무리 튼튼한 재정을 가진 대기업도 한 번의 잘못된 결정으로 망할 수 있고, 기울어져 가는 중소기업도 좋은 아이디어 하나로 살려낼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위기에 처한 기업을 회생시키는 경영컨설턴트가 되겠다’는 구체적인 꿈을 갖게 된 계기이기도 하죠.”



박군은 현재 경제신문을 만드는 교내 동아리 ‘이코노미스트’에서 부장으로 활동 중이다. 좋은 기사를 쓰기 위해 그는 매일같이 신문 경제면과 경영 서적을 뒤진다.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도 경영·경제 지식과 연계해 풀어나가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 “지난해 동아리 티셔츠를 사려고 시장에 간 적이 있어요. 같은 물건을 구매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싸게 팔고, 어떤 사람에게는 비싼 값을 부르는 상인들의 모습을 발견했죠. 고교생 미래CEO과정을 들으며 강사

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강연자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물건을 사고파는 경제 주체들 사이에 정보격차가 생기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후 박군은 비대칭성과 관련한 이론을 찾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아는 게 힘이잖아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경제활동과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하면서 경영·경제 분야에 더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번 학기 중에 발행할 경제신문에는 고교생 미래CEO 과정을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강의 내용과 강사 인터뷰, 학생들의 느낀 점을 모아 경제·경영 관련 고급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목표를 세웠다. “이 모든 경험은 경영컨설턴트라는 꿈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10년 후 고교생 CEO프로그램의 강연자로 현대고를 방문할 저를 기대해 주세요.” 



한국교육개발원(KEDI) 홈페이지



KEDI 홈페이지
<http://www.kedi.re.kr>



영문 홈페이지
<http://eng.kedi.re.kr>



전자도서관
<http://askkedi.kedi.re.kr>



학교평가
<http://eval.kedi.re.kr>



교육통계서비스
<http://cesi.kedi.re.kr>



방송고e스쿨
<http://www.cyber.hs.kr>



영재교육연구센터
<http://gifted.kedi.re.kr>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EDUMAC)
<http://edumac.kedi.re.kr>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http://eduzone.kedi.re.kr>



OECD 교육정보센터
<http://oecd.kedi.re.kr>



한국교육종단연구
<http://kels.ked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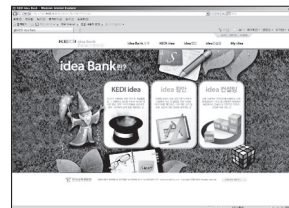
교육정책 네트워크 정보센터
<http://edpolicy.kedi.re.kr>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http://www.schoolup.go.kr>



교과교실 지원센터
<http://scmc.kedi.re.kr>



KEDI Idea Bank
<http://idea.kedi.re.kr>



글로벌교육협력연구센터(IEDC)
<http://iedc.kedi.re.kr>



Wee프로젝트 연구특임센터
<http://www.wee.or.kr>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http://www.hub4u.or.kr>



국가평생교육통계
<http://lifelong.kedi.re.kr>



학교선진화지원센터
<http://serc.ked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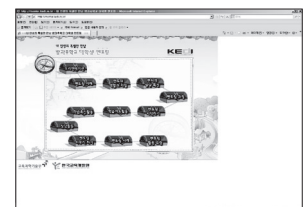
사이버교과서박물관
<http://www.textlib.net>



외국인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http://www.isi.go.kr>



자기주도 학습전형
<http://sellas.kedi.re.kr>



방과후학교 대학생 멘토링
<http://mentor.kedi.re.kr>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Youth

국제청소년학술대회

미래를 변화시킬 주역들
Inspiring Agents of Change

제3회 국제청소년학술대회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연구센터에서는 국내외 청소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흥미나 관심 주제에 대해 스스로 주도적으로 연구하여 그 결과를 연구 논문의 형식으로 발표하는 제3회 국제청소년학술대회(The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Youth)를 개최합니다.

관심주제별 또래 국내외 청소년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ICY는 국제 학술대회 경험을 통한 글로벌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국내외 청소년 여러분을 창의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012년 7월 26일(목) ~ 27일(금)
- 장소 : 대전 KAIST E11 창의학습관
- 주최 : 교육과학기술부
- 주관 :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연구센터
- 후원 :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 ▶ **The 1st ICY : 9개국 총 105개 팀 200여명 참여**
- 미국, 싱가포르, 일본, 몽고, 인도,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대한민국
- ▶ **The 2nd ICY : 6개국 총 129개 팀 300여명 참여**
- 미국, 캐나다, 홍콩, 우즈베키스탄, 타이완, 대한민국
- ▶ **The 3rd ICY : 8개국 총 160개 팀 400여명 참여**
- 미국, 중국, 홍콩, 러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 대한민국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학교엔 '자율'과 '창의', '다양성'과 '배려'가 살아 숨 쉽니다.
무엇을 배웠는가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지향합니다.
맞춤형 교육복지로 교육희망사다리를 만들어줍니다.
우리 손으로 길러낸 인재들이 세계로 나가고 세계의 인재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꿈을 이루는 교육·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한국교육개발원이 디자인합니다.
'인재대국'·'선진일류교육' 한국교육개발원이 만들어갑니다.



1972년에 설립되어 지난 40년간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온 한국교육개발원,
'인재대국'·'선진일류교육'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교육정책연구기관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